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3월 15일(음력 2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 569 호

돌아온 건조기 … 사찰화재 걱정되네

큰 불 대비 아직 '미흡'

소방차 배치 · 매뉴얼 발표 … 소방도로 등 여전히 부족
예산부족 시설보강 못해 " '낙산사 악몽' 재발 막아야"

보물 제479호 동종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와 전각을 잃은 지난해 4월 5일의 양양 낙산사 화재는 불교계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낙산사 화재 이후 사찰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 많은 의견들이 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약'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월과 4월은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과 화재가 발생하는 시기다. '제2의 낙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건조기인 요즘 더욱 커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의 62%가 3, 4월에 집중됐다. 3월 중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입산자의 실수나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 일어난 산불이 59%에 달한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사찰은 언제든지 산불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조계종, 일반 사찰의 대책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사실 낙산사 화재가 발생한 직후 전국 사찰에는 화재 '진압' 바람이 불었다.

조계사를 비롯해 통도사 해인사 봉선사 관촉사 등의 고찰들은 소방차를 구입해 경내에 배치하거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관심을 모았다.

조계종도 전국 주요 사찰들의 화재대책 현황을 조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32곳 사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소방용수 충원 ▲비효율적인 소화전 재배치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방화수림 조성 ▲방재매뉴얼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산사 화재 직후 방재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역시 화재 직후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언급에 이어 관계기관에서도 각종 현황 자료를 내놓았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은 화재 · 지진 · 산불 등에 대한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을 올해 1월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화재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여기까지'라는 것이다. 대형 참사를 막을 후속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찰들의 화재 대책이 '기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조사 결과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를 벌였던 강화지역 전등사, 정수사, 보문사의 경우 소화전 보강과 소화기 추가 배치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 사항인 소방도로 확보와 동산문화재 피난을 위한 조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가 적지 않은 사찰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여전히 소화전이 부족하고 소방도로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총 7억원 규모의 소화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예산 조달이 어려워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은 법주사의 경우 지난해 소화전과 소화기를 보강하고 화재감시기까지 증설했지만 주변의 나무들이 전각과 바로 붙어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종단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5월 ▲산불방화를 위한 안전선 및 방화선 확보 ▲재난방재 기본여건 강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재난 대피시설 구축 ▲관련제도 개선 등의 5개항의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발표했던 문화관광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올해 주요 사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10여개 사찰에 부분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한다는 정도뿐이다.

조계종은 올해 국보와 보물 소유 사찰 30여곳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재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상준 문화유산팀장은 "정부기관과 방재 시설들을 어떤 사찰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조율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지난 2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전법에 사찰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희망'적이다.

일본 사찰의 경우 담징벽화로 유명한 호류지 화재사건(1940년)을 계기로 모든 사찰의 전기시설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보급 문화재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찰들이 목조건물의 지붕과 주변으로 분수를 발생시키는 수막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재 복구 작업에 진력하고 있는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수십년 전에 설치돼 열악할 수밖에 없는 전각들의 전기 배선을 비롯한 기초사항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초발심으로 돌아가 가행정진 할 것"

초우 스님 방장 추대 고사

지난해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던 조계종 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방장직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우 스님은 3월 7일 작성한 글을 통해 "산승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우리 조계종단의 종정예하, 총무원장 스님, 원로대덕 법우, 종도 여러분에게 본인의 문제로 심려 끼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초발심의 수행납자로 돌아가 출사사문의 본분사를 참구하데 가행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도사 주지대행 현문 스님이 3월 9일 공개했다.

초우 스님은 "발표한 글의 내용이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며 "나머지는 주지스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향천사 천불선원 선덕 대용 스님
시방세계 9면
승랍 20년차 스님들 연수현장
운덕 스님 '26년' 업적 8면
불자CEO 경영철학 10면



3월 9일 종성문고 개관기념 테이프 커팅식. 오른쪽부터 동출 · 원소 · 미산 · 청월 · 시몽 · 법현 스님, 박기동 임제선원 신도회장, 이남숙 신수회장. 사진=박재완 기자



종교초월 봉사활동 릴레이 출발!

충북지역 30여 종교단체가 3월 9일 종교를 초월해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는 '종교자원봉사 릴레이' 발대식을 가졌다. 3월부터 11월까지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단체들이 봉사단체 방문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불교계에서는 옥천 대성사와 미륵사 용화사 등이 동참해 반찬나누기, 목욕봉사 등 자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월탄 · 정우 스님 등 공권정지 10년

조계종 특별심사위 '98년 징계자 사면' 일단락 … 현근 스님 제외

정영 스님 문서 견책, 월탄 남현 정우 원학 현소 성문 스님 공권 정지 10년, 현근 스님 동일결정(멸빈).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는 3월 9일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999년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 기소를 통해 멸빈처분을 내린 정영 월탄 남현 정우 원학 현소 현근 성문 스님에 대한 재심결과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종정, 원로회의 유시 등에 따라 정대 · 법장 스님 등 역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했던 '98년 징계자 사면'이 마침내 지관 스님 집행부에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호법부에 판결내용이 전달되면 총무원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6명에게 내려진 공권정지 10년은 1999년부터 소급해 2008년까지로,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처님오신날 정기사면에서 중앙종회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사면 ·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재심호계위원 정념 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은 "종헌 128조(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무시하고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법등에의한징계자들에대한특별법(99년 10월 제정)'에 따라 이미 멸빈된 스님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종회에서 종헌을 개정한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심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특별법과 종헌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법규위원회가 이들의 재심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멸빈자는 재심의 자격이 없다는 조항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특별심사위원회에는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종성문고' 개원 … 희귀본 · 禪書 등 1만5천권

청운동 本社에 위치, 법현 · 시몽 · 미산 스님 등 참석

서옹 대종사의 전법제자인 임제선원 조실 종성(1930~2004) 스님의 유지를 받든 '종성문고'가 현대불교 사옥내에서 문을 열었다.

현대불교는 3월 9일 본사 법당 및 종성문고에서 제주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인 미산 스님과 원소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본사 총괄본부장 청월 스님, 박기동 임제선원신도회장과 임제선원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종성문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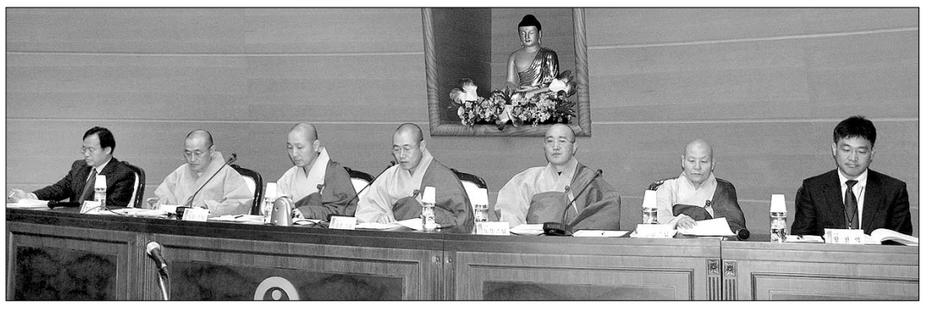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서 법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성문고 개원인연 공덕으로 종지와 설법이 겸하여 통한 초군정안(超群正眼)이 속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본사 대표이사 혜월 스님은 청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종성 큰스님께서 불서 기증을 통해 신문사가 경 · 율 · 론 삼장은 물론 다양한 출판물로도 불자들의 신행과 학자들의 학문, 수행자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된 종성문고는 2004년 12월 21일 입적한 종성 스님이 열반 3개월을 앞두고 본사에 기증한 불교학, 선학, 동양학관련 1만 5천여권의 장서로 꾸며져 있다. 종성문고의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도서대출은 당분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열람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2004-8261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화엄회는 3월10일 미래지향적 종단설계를 위한 종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왼쪽부터 김응철 교수, 법진, 일문, 광조, 도각, 일법 스님, 황찬익 차장. 사진=유철주 기자

"더 강력한 변화 필요하다"

조계종 화엄회 '미래지향적 종단설계' 종책토론회 개최

조직 · 재정관리 · 인사 등 각 분야 문제 지적, 대안 내놔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종단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최고 대의기구면서도 지금까지 얼마나 그러한 노력을 해왔나 되돌아 봐야 한다"(종회의장 법등 스님)

조계종 화엄회의 '미래지향적 종단설계'를 위한 종책 토론회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화엄회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종회 의원을 비롯한 교구본사의 대중, 교역직 종무원, 재가불자 등 5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책설문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에는 종회의원 중앙종무직원 등 교계 출 · 재가자 50여명이 2층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최근의 조계종 중앙종회가 거듭되는 종권다툼으로 권력화 세속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인지 참석자들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회를 경청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가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종책모임 차원 최초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날 파주 보광사 주지 일문 스님, 민추본 도각 스님, 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 전국비구니회 일법 스님, 황찬익 총무원 기획차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일법 스님은 조계종 조직관리와 관련해 "개혁종단 이후 비구니 스님들 종회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타종교와 같은 발전을 가져오려면 비구니스님의 참여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찬익 차장은 "1994년 이후 구축된 현재의 조직구조는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고 "올해 초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이 됐지만, 현재 중앙조직은 더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직관리 종책의 필요에 대해 "교구분권제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해야 하며, 단순히 인사권 재산처분권 등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종도 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 스님은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재정분야와 관련해 "오래전에 정해진 분담금의 규모가 현재 사찰의 현실과 맞지 않아 개별 사찰들의 분담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설문 결과에서도 대다수 응답자가 종단의 수익사업을 찬성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종단 소유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각 스님은 "종단에 부동산이 많다지만 유효한 토지가 많지 않고, 수익을 내려면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종단은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철 교수도 "포교가 안 되는 수도권 지역에 종단 직영포교당을 세우면 직영사찰도 늘어나고, 분담금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사관리 종책 분야에서 법진 스님은 "종도들이 인사권자가 친소관계로 인사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설치를 역설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한 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종단이 변화를 바라는 종도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스님은 "이전과는 달라진 종단의 노력에 비해 사부대중이 여전히 조계종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종도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화엄회 대변인 법진 스님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종단발전에 대한 종도들의 뜨거운 열망과 애정을 확인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종도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 총무원장 이달내 선출"

천태종 총무원장직대 춘광스님 기자간담

삼광사 노조 "인정못해"…종단 변화 모색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의 사임에 따라 3월 1일부터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춘광 스님(사진)이 6일 관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단의 현실과 향후 진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춘광 스님과의 일문일답.



▲운덕 스님이 장기간에 걸쳐 총무원장직을 수행해 왔기에 운덕 스님의 사임이 종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천태종은 종정 중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전임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던 사업이 원래의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대중스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차기 총무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다른 종단들이 상징적인 큰 어른으로 종정스님을 모시는 것과는 달리 천태종은 종정 중심 체제이다.

총무원장의 선출은, 종정스님이 지명하면 스님 15명과 재가불자 1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중앙종회의 인준을 거쳐 다시 종정스님이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언제쯤 새로운 총무원장이 탄생될 수 있는가?

-전적으로 종정스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므로 3월안으로 총무원장이 선출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삼광사 주지스님의 징계는?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이 3월 4일 구두로 나에게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원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려고 했는데 도원 스님이 먼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도원 스님이 사퇴하면 차기 삼광사 주지에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가?

-주지 임명도 천태종은 종정스님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그것도 종정스님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이 현 삼광사 주지스님과 종무원들 및 신도회 간부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빚어진 만큼 사부대중을 원만히 아우르고 한 식구처럼 대할 수 있는 스님이 임명되도록 하겠다.

▲삼광사 노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현재 삼광사는 유급 종무원이 약 70명 정도 되고 신도회 간부만 해도 2천명이 넘는 대규모 사찰이다. 이런 큰 규모 때문에 주지 스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종무원들과 신도들을 가족처럼 챙길 수 있는 주지가 임명된다면 노조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조원이 7명 정도로 된다고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게 종단의 뜻이다.

▲향후 천태종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데…

-변화와 개혁을 암중모색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 종단의 개혁과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앞으로 지켜봐 주기 바란다.

김주일 기자

재난구조봉사단 천태종 4월에 발족

천태종은 긴급재난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재난구조 봉사단을 4월중에 발족한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산하에 발족될 재난구조 봉사단은 전국 주요광역시별로 지부와 지회를 설립한다. 봉사단의 총재는 총무원장 스님이 단장은 사회부장 스님이 당연직으로 맡게된다. 또한 각각 5명씩 모집할 전국 각 지부와 지회에서 활동할 봉사 단원들은 해병대와 공수부대, UDT 등 특수부대 출신자들로 구성한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봉사자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재난 등이 발생되면 국제 NGO 단체에 파견된다. 김주일 기자

도법 · 금강 스님 등 '…대중공사' 출범 논의

조계종 소장파 스님들이 3월 8일 대구 관오사에서 모임을 갖고 종단 현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가칭 · 이하 대중공사)' 출범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실상사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조계종 소장파 스님 금강 성전 지도 진오 종호 혜안 대안 하림 동출 종선 수완 만초 스님(무순) 등 40대 전후의 종단 소장파 스님들이 참석했다.

대중공사의 관계자는 "앞으로 수차례 더 주비모임을 갖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영배스님 東大이사 승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 결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7일 학교법인 동국대가 제기한 영배스님 '이사 취임 이행 심판 청구'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국대 법인사무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결과, 영배 스님 이사 취임 승인 이행 요구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는 "16일까지 이사 취임 승인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14부는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 이사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정행위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남동우 기자

종교사학법인 동일종교인 개방이사 가능

교육부 개정위, '건학이념 구현 할 수 있는자' 한정

종교 사학법인에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3월 7일 열린 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에서 새로 도입된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는 등의 개정시안 내용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개정 시안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방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 사학의 경우 동일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개정위는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은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시행령개정위는 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성은 교원 · 직원 · 학생 대표, 동문, 지역인사 등 정관이 정하는 자'로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교원수급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된다.

시행령개정위는 이 외에도 결산서를 제출할 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 대상과 관련, 대학은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전문대는 2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사회 회의록도 회의 뒤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석달 동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개정위원회 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달 중순 입법예고하고 올 5월 말까지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조동종 임원회의 개최

조동종 임원회의가 3월 8일 조동종 총무원에서 열렸다. 종정 지명 스님 등 2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 4월 5일 제 2회 종조 다례제 개최 △5월 중순 조동종 발원지에 종조인 동산양개선사비 건립 등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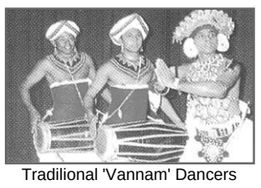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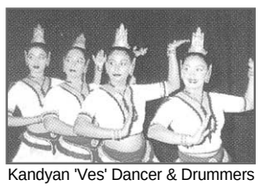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 (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상조(국민상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Tradil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국제불교 교류협의회가 초청하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캔디안 댄스 -**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영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

3월 5일 첫 삽 뜨다

내년 3월 준공…고아원 · 유치원 등 12동 들어서

스리랑카에 한국불자들의 온정이 조계종마을에 이어 다시 한번 전해졌다. 지진해일 쓰나미 피해성금 20여억원을 들여 대규모 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첫 삽을 뜬 것.

조계종은 3월 5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인근 파살라 지역에 마련된 부지에서 스리랑카복지타운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고불총림 유나 지선, 종회의장 법등 스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100여명이 스리랑카를 찾았다. 현지에서도 최대종단 아스기리야 라사나마파 종정, 무역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착공식을 지켜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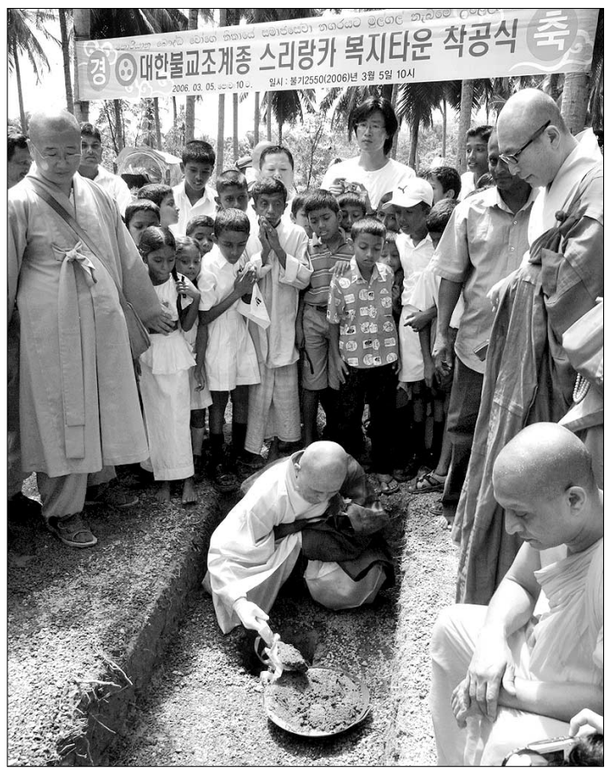
지관 스님은 "스리랑카복지타운은 대한민국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재난을 극복하려는 스리랑카 국민의 강한 의지가 합쳐진 결과"라며 "자연재해로 희망을 잃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께 완공될 스리랑카복지타운에는 2만 5천평의 부지에 아동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과 유치원, 종합관리관 등 12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시설에서는 아동보호, 특기적성교육, 종교교육, 상담 및 치료활동이 이뤄지며, 한국에 파견될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글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운영은 조계종과 스리랑카 불교계로 구성된 현지법인 한 · 스문화사회복지재단이 맡는다.

한편 대표단은 착공식에 이어 6일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과 스리랑카간 교류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라자팍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바 있다"며 한국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복지타운의 원만 회향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복지타운 준공법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스리랑카 전통의 시삽의식을 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봉축 '자비나눔' 행사 다채

연꽃달기 · 난치병 어린이 위한 3천배 법회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중앙신도회 등이 '나눔'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조계종 사회부는 '자비연꽃 달기 운동'에 나선다. 봉축기간동안 연꽃 모양의 금도금 뺏지를 개당 1천원에 판매하며, 동참금은 '자비나눔 기금'을 통해 재난구호 활동과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02)2011-182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난치병 어린이 살리기를 위한 정진기도 법회를 4월 15~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난치병 어린이 살리기 정진기도 참가자들은 1배당 100원씩 모금하는 3천배 기도를 올리게 된다.

4월 18~19일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세상나들이가 준비돼 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바깥 외출을 자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나들이를 떠난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중순 북한 장애인에게 휠체어 360대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이를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02)723-5101

중앙신도회 역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달기' 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연등을 전달한다. (02)733-7277

이은비 기자

'SOS 새만금' 시위 봇물

수경 스님 도올 김용옥 등 현장서 시위

끝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가 각계에서 봇물처럼 쏟아지자, 한국농촌공사측이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의 대법원 판결 직후인 3월 17일로 공사일정을 앞당겼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도올 김용옥씨의 3월 6일 새만금 방조제 현장 시위로부터 시작된 집중시위는 광화문 촛불집회와 수경 스님의 천막농성, 전북지역 5대 종교 성직자 단식농성, 각계가 참여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2220인 시국선언, 새만금 총집중의 날 현장시위 등으로 번졌다.

또 2000년부터 5년 동안 새만금갯벌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해온 환경운동연합과 한일갯벌조사단은 새만금 갯벌에서 완족류에 기생하는 조개 등 4종의 신종을 비롯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생물 9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 등은 "끝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연안의 수많은 생명이 죽는 환경재앙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전북도는 시화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반대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자 한국농촌공사와 시행업체인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은 끝물막이 공사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어민대책위원회의 집회 직후 새만금 방조제 입구를 돌망태를 이용해 완전히 봉쇄했으며, 방조제 공사현장 주변에는 어민, 환경단체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러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 저지와 새만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어서, 새만금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봉영 기자

불자 할머니, 평생 냉차팔아 모은 돈

1억1천만원 동국대에 쾌척

독실한 불자인 한 할머니가 냉차, 버스표 판매 등으로 평생 모은 1억 1천만원을 조계종립 동국대에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에 사는 불자라고 밝힌 이 할머니는 71세의 고령임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최근 동국대를 방문, 현금 1억 1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젊은이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면서 "1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또 "몸이 불편한 불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일산불교병원 개원소식을 듣고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병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추가로 1천만원도 기탁했다.

동국대측은 이러한 할머니의 뜻을 기려 장학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백남준 고국 품으로 18일 봉은사서 49재

1월 29일 미국에서 타계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3월 18일 오후 5시 30분 백남준의 49재 '백남준 고국에 돌아오다'를 연다. 이번 49재에서는 한국 · 미국 · 독일 3국에 분산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유분 일부가 백남준의 조카 켄 백 하쿠다씨에 의해 전달될 예정이다.

49재에서는 백남준이 퍼포먼스의 소재로 즐겨 사용했던 바이올린 부수기, 피아노 뒤엎기 등이 재현된다. 또 백남준의 유작 '엄마'가 일반에 공개된 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다. (02)511-6071 이은비 기자

불교 생태학 학술발표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18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에서 불교생태학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최동순 동국대 교수와 김치온 동국대 강사가 각각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생태관'과 '불살생에 관한 생태문화적 일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윤기억(연세대), 김미숙, 황금연(이상 동국대), 문을식(서울산업대) 교수가 논평한다. 노병철 기자

불교학 · 동양학 · 인문학 전문서 풍부

▮ '종성문고'엔 어떤 책이?

3월 9일 현대불교신문사 사옥내 문을 연 '종성문고'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도서를 기증받아 설립된 사설 문고이다. 특히 서옹 스님의 인가를 받은 종성(1930~2004) 스님이 평생 외형적인 불사를 자제하고 인재불사에 매진했던 성과물이자, 고인의 '사리탑'이기도 하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이 생전에 해인사 강원에 불서를 5천 여권 기증한 사례가 있었지만, 도서의 양이나 질적으로 1만5천여권이라는 방대한 면에서나 그리고 사찰이 아닌 신문사에 도서를 기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문서포교에 전념하길 염원한 종성 스님의 유지가 깃든 뜻깊은 불사(佛事)로 평가된다.

'실참(實參)을 겸한 선리(禪理)의 탐구'라는 종성 스님의 유지를 담아 불자와 시민들에게 개방된 종성문고는 일본어 2천900여권, 중국어 1천400여권, 영어 600여권을 비롯한 1만2천800여권과 본사 소장도서 등 1만5천여 권의 장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도서의 내용 역시 다양해서 불교관련 도서 이외에 인접학문인 동양학, 인문학, 문학 서적 등이 구비되어 있어 교양도서관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한 · 중 · 일 · 남전 대장경과 선학 관련 자료는 일반대학 도서관 이상의 귀중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 스님과 불교학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한글 대장경>(동국역경원)은 물론 <속장경>(홍콩 불서출판공사), <대정신수 대장경>(대장출판사), <남전 대장경>(대장출판사), <불광대장경>(불광산출판사), <팔만대장경 해제>(북한 사회과학출판사) 등 불교사의 중요 전적을 망라하고 있다.


종성문고를 둘러보는 임제선원 불자들. 사진=박재완 기자

아울러 100권에 달하는 <선종전서>(문수출판사)와 46권에 달하는 <선장>(불광대장경편수위), 각각 24권으로 구성된 <정법안장>과 <정법안장 전강>(대법륜각), <선학대계>(전 8권 · 선학대계편찬국) 등 선종의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집대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학, 역사학, 동양학, 역사학, 사전류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들은 인문학 연구의 풍부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한문대사전>(전 20권 · 보경문화사), <한문대계>(전 20권 · 민족사), <세계 백과 대사전>(전 20권 · 교육도서), <망월불교대사전>(전 10권 · 세계성전간행협회), <대동야승>(전 8권)<동사강목>(전10권) 등 민족문화추진회의 '고전국역총서', <한국의 사상대전집>(전 24권 · 동화출판공사), <한국문헌 설화전집>(전 10권 · 한국문학연구소) 등의 묵직한 전집류가 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02)2004-8261 김재경 기자

강북 · 경주 장애인복지관 복지부, 우수기관 선정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과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단에서 실시한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이고 투명성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매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원관련 지표, 사업실적,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설 및 인력 등 6개 영역으로 나눠진 이번 평가에서 두 불교계 복지관은 전국 상위 20% 내에 들었다. 이은비 기자

社團法人 曹溪淨土佛教總院 任員公告

理事長 : 李法賢
理事 : 慧山
理事 : 商言
理事 : 普光華
理事 : 性天
監査 : 聖岩
監査 : 法珍
事務局長 : 洪大成
事務課長 : 法山
弘報課長 : 泰奉

外 職員 一同

社團法人 曹溪淨土佛教總院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4동 138-5호 2층
전 화 02-720-3661~2
FAX 02-720-3578

※ 미등록 된 전국 회원은 본 총원(총무원)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자의 표상이자 사부대중의 귀의처

총림 방장의 역할과 위상

'견성성불'과 '요익중생', 즉 '수행과 중생교화'를 종지로 삼고 있는 조계종은 선종의 기풍을 면면히 이어왔다. 한국 조사선의 법통(法統)을 이어온 조계종에서 선원중심의 총림을 이끌어 나가는 방장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최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 문제를 놓고 종단 안팎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영축총림 방장 추대와 관련해 전국선원수좌회가 종법에 따라 20안거 성만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하자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추대된 초우 스님은 3월 7일 자신의 방장추대를 사실상 고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방장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총림은 스님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과 강원, 율원, 염불원 등을 모두 갖춘 '종합수행도량'을 지칭한다.

이러한 총림을 대표하는 어른을 방장(方丈)이라고 칭한다. 선(禪)·교(敎)·율(律)을 겸비한 명안종사로서 대중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기강을 세우는 총림의 상징이다. 또, 각종 행사와 안거해제와 결제 때 법어를 내려 불자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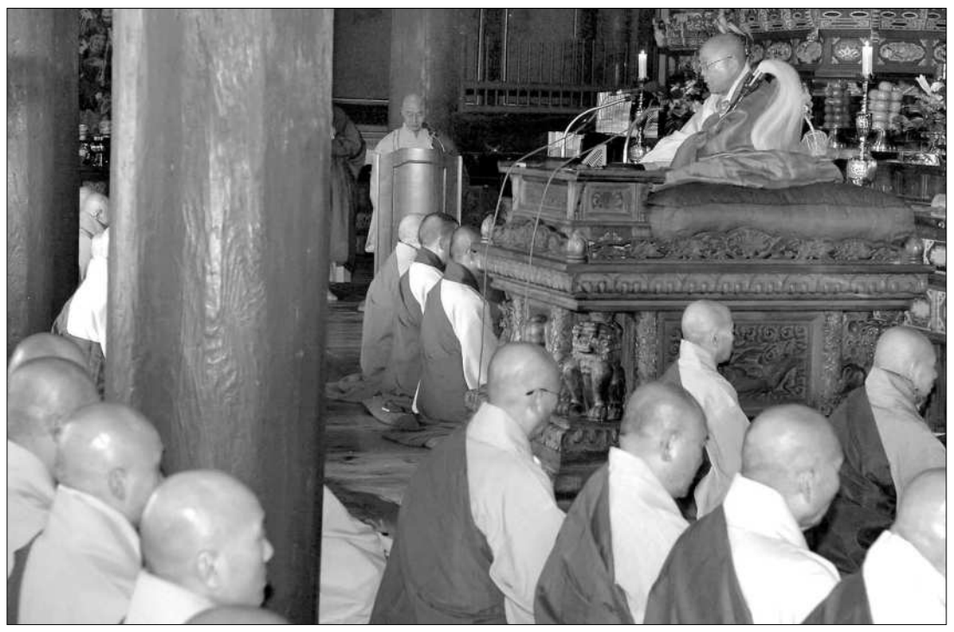
오늘날 조계종이 표방하고 있는 선종(禪宗)의 생명은 수행과 명철한 깨달음에 의한 법통의 수립이다. 수행과 깨달음에 철저한 정법의 안목을 갖춘 명안종사(善知識)야 말로 모든 총림의 안목이자 법도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조사선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총림의 방장은 수선납자의 표상이며 사표로, 위로는 불조의 혜명을 잇고, 아래로 사부대중의 귀의처가 되는 최고의 상징이다.

방장의 어원은 유마거사의 선실(禪室)을 사방일장(四方一丈)이라고 한데서 나온 말로, 중국 선종에서는 주지(住持: 方丈)의 거실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이후 당대 선종의 발전으로 백장선사에 의해 선중(禪衆)의 주지임무를 맡은 장로화상을 방장이라 부르게 됐다.

<선림보훈> 권4에서는 ▲도덕이 종문의 사표 ▲언행이 일치 ▲인의 충실 ▲예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방장의 요건을 강조한다.

방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나? 명나라때의 회산선사는 <선문단련설(禪門鍛鍊說)>에서 ▲서원을 굳게 세우고 고통을 감내하라 ▲근기를 살펴 화두를 일러주어라 ▲선방에 입실하여 다스려라 ▲직접 선방에 나아가 일깨워 주어라 ▲실제 단련법을 제시하라 ▲교묘하게 경책하고, 참구자의 적정을 전환하라 ▲조사관을 부수고 안목을 열어 주어라 ▲선학의 이론 체계를 연구하라 ▲행실을 엄정히 하라 ▲재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단련하라 ▲신중히 법을 전하라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백장청규(百丈淸規)>는 방장의 책임을 ▲대중을 위하여 설법 ▲방장실에 입실하여 각자의 공부를 점검 ▲요사를 순시하여 점검지도 ▲행자들에게 훈시 ▲깨달음의 상징인 법의를 받음 ▲시주를 청하여 재를 관장 ▲정법을 전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등 15가지로 정해 놓았다.



방장은 총림의 최고 어른으로 수행자들의 정신적 지도자다. 안거 결제대중에게 법어를 내리는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선·교·율 겸비한 명안종사
유마거사 선실 '사방일장'서 유래
주지 임명권 등 권한 보장받아

근대 한국불교에서 총림은 일본불교를 청산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됐다. 불교의 왜색화로 수좌들의 수행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효봉 스님이 조선불교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해인사에 1946년 가야총림을 처음 개설했다. 청담·성철 스님 등 전국에서 100여 수좌들이 해인사로 모여들었고, 이후 1967년 해인총림 탄생의 시발점이 됐다.

성철 스님은 "총림운영의 기본방침은 계정혜의 삼학을 바탕으로 엄격한 계율과 일관된 이론 그리고 철저한 참선정진으로 견성성불하는 것"이라며 선납들의 치열한 수행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해인총림의 초대 방장이었던 성철 스님은 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수좌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대신 선방 수좌들에게는 엄격한 수행을 요구했다. 매년 안거중에는 누구도 빠짐없이 7일간의 용맹정진에 참가해야 하고 탈락하면 바로 내쳤다. 이러한 전통은 아직도 해인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역대 방장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에 대한 기억이 가장 강렬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성철 스님은 대중을 압도하는 풍모와 따라가기 힘든 수행정진력을 가진 큰스승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조계종 총림법은?

방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한 조계종의 총림법 제6조는 '①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으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 한다 ②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총림 대중의 수행을 지도 감독한다 ③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④방장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7년 처음 제정된 총림법은 종단의 수행중심도량인 총림의 활성화를 바라는 청담 스님의 뜻에 따라 주지 임명권을 방장이 갖게 하는 등 권한을 최대한 보장했다.

그러나 2004년 대체입법으로 마련된 현재의 총림법은 제정 당시부터 "중앙종회가 종단의 정통성을 지켜온 선원의 상징적 존재인 방장의 자격은 강화하면서 권한은 제한하려 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 현산)가 통도사 방장 후보의 20안거 성만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수좌들은 중앙종회가 만든 20안거 성만 규정을 종회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권만을 쫓는 정치승들의 준동에 방장의 위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방장은 수선납자들의 실참을 지도하고 총림의 수행기풍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명안종사를 모시지 못할 경우, 20안거 성만은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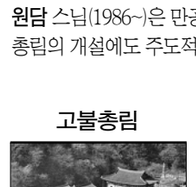
인물로 본 조계종 5대 총림

해인총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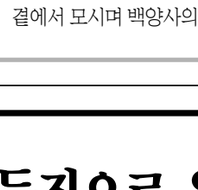
1946년 효봉 스님은 조선불교의 중흥을 주장하며 수좌들을 중심으로 해인사에 가야총림을 열었다. 한국전쟁으로 총림이 와해됐지만 선원을 중심으로 총림대중이 수행정진을 이어나갔다. 1967년 **성철** 스님이 방장을 맡아 조계종의 첫 총림인 해인총림이 시작됐다. 2대 방장은 **고암** 스님(1970), 3·4·5대에 다시 성철 스님(1971)이, 6대 **혜암** 스님(1993)이 자리를 이었다. 현재는 7대 **법전** 스님(1996)이 해인총림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조계총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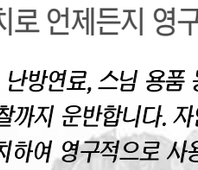
효봉 스님의 법맥을 이은 **구산** 스님이 1969년 정혜결사의 정신을 이어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조계총림을 열었다. 구산 스님은 1·2대 방장으로 불일회를 창립하고 불일 국제선원을 개원하는 등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도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3·4대 방장 **일각** 스님(1984)을 이어, 5대 방장을 맡은 **보성** 스님(1998~)은 전계대화상을 역임하는 등 특히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해 "선정과 지혜에 앞서 참다운 계행을 지녀야 올바른 삼학을 익히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영축총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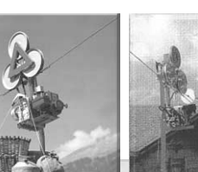
1984년 통도사가 총림으로 지정되면서 초대 방장에 추대된 **월하** 스님은 당대 선지식 구하 스님의 선맥을 이었다. 월하 스님은 1967년부터 통도사 조실에 올라 산문을 나서지 않고 수행과 후참납자들을 지도에만 전념했다. 영축총림은 2003년 12월 월하 스님 원적 후 2대 방장을 추대하지 못하고 공석으로 있다.

덕숭총림



경허·만공 스님의 덕숭가풍이 계승된 덕숭총림 수덕사는 1985년 **혜암** 스님이 초대 방장에 추대되면서 총림의 문을 열었다. 독자적인 견성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중들을 지도해 왔다. 100세가 넘도록 운수행각과 참선정진에 매진하는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2대 방장 **벽초** 스님(1985)은 1배 이상은 받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보현보살의 화신'이라 불렸다. 3대 방장 **원담** 스님(1986~)은 만공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선지식으로 덕숭총림의 개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고불총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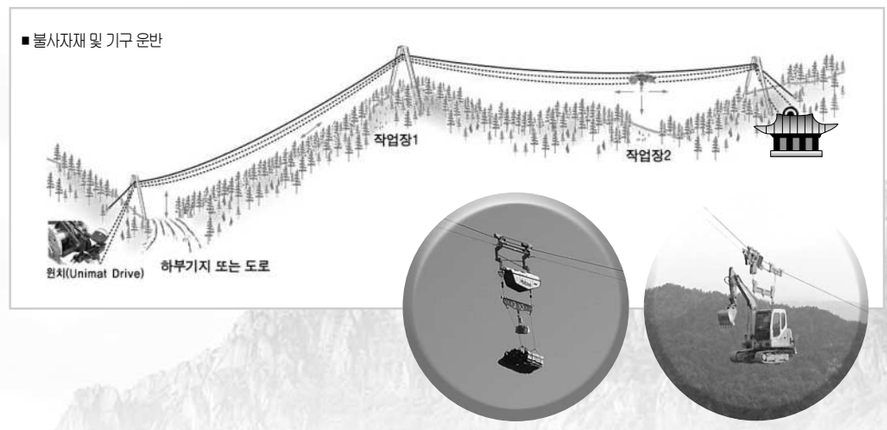
만암 스님이 1947년 일제청산을 기치로 백양사에 '호남 고불총림'을 결성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맥이 단절됐다. 1996년 문을 연 고불총림의 초대방장으로 추대된 **서옹** 스님(1996)은 동국대 대학선원장 겸 조실로 천축산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대흥사 선원 등 제방선원의 조실로 수많은 수선납자들을 지도하며 참사람운동을 펼쳤다. 2대 방장 **수산** 스님(2004~)은 만암·서옹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백양사의 선맥을 이은 백양사의 산 증인이다.

깊은 산속, 사찰 불사 운송비 걱정 끝!

자연 훼손 없이 자재, 작업기구 운송 – 기존 운송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 험준한 산악, 다리가 없는 강 건너 등 운송비용 부담으로 불사를 하지 못했던 사찰에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불사 자재, 기구등을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 불사자재 및 기구 운반



생 산 성 : 최고의 운반속도(10m/sec). 최고의 운반중량(6톤/회). 신속한 설치, 해체(설치 3주이내, 해체 10일 이내). 연속운전 가능
안 전 성 : 완벽한 브레이크시스템(3중 시스템). 간편한 조작기능. 정밀한 운전. 단순한 설비. 80년 이상의 사용실적
범 용 성 : 산악, 험준한 지형등 지형여건에 구애받지 않음. 대규모 사찰 신축 및 개축 불사
환경보호 : 어느 지형조건에서도 최적 설치(환경훼손 최소화). 지형에 적합한 설치로 산림보호 최우선.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설치

아직도, 사찰 필수품을 등짐으로 운반하십니까?

사찰에서 항시 사용하는 물품을 한번 설치로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자동 운송합니다

도보로 운반하던 사찰 필수품(생활용품, 난방연료, 스님 용품 등)을 한번설치한 기구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사찰까지 운반합니다. 자연훼손 및 민원 없이 설치 가능하며 수일이내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사찰 필수품 운반

사용대상 : 도로가 없어 도보로 물품을 운반하는 산속 사찰
용 도 : 사찰 필수품 등 1회 200, 400, 500kg이하의 경량물 자동 운송
특 징 : 운송장비 자체의 구동장치에 의한 이동. 한번 설치로 영구사용. 간단한 설치 및 해체 가능. 수일이내 설치가능

(주)한성에스티 Hansung S.T Co., Ltd 서울 강남구 포이동 163, 영화빌딩 201호 전화 02)574-9504(代) 팩스 574-9769 / 홈페이지 www.hansungst.com

스위스 위센장비 80년 노하우로 한성에스티가 모든 안전 및 책임을 보증합니다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며, 불사관련 견적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부산 종교화합 중심에 불교가 있다

정여 스님 공동善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취임
심산 스님, 열린종교시민대학 주도하고 강의도



3월 8일 열린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장 이 · 취임식에서 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정여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월 5일 부산의 새날 교회.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이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올해로 7기 째를 맞이한 열린종교시민대학 강의가 있던 날 심산 스님은 새날 교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3월 8일 부산의 6개 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부산시청 동백홀을 가득 메웠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2대 대표회장으로 정여 스님(여여선원장)이 취임한 이날, 스님, 원불교 교무, 신부, 목사 등 종교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를 보냈다.

최근 열린 이 두 행사는 부산 종교계가 지금 종교 화합의 꽃 피우기에 한창임을 잘 말해준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물론, 젊은 성직자들이 종교를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에 나섰고 그 흐름에 평신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

부산에서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움직임은 한층 더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 종교계에서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목사는 "타 지역에 비해 부산에서 종교간 대화 운동이 활발한 이유가 바로 불교에 내재된 사상적인 다원성과 포용성에 기인한다"며 종교 화합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7기를 맞은 '열린종교시민대학'의 경우 심산 스님을 중심으로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등의 젊은 성직자들이 모인 열린종교모임이 주최하며 사찰, 성당, 교회 순으로 돌아가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3개월간 진행되며 5개 종교(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천주교, 불교)의 성직자가 강사로 나서 2주씩 강의함으로써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형식적인 교리 이해에 그치지 않고 화합과 교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종교인 축구대회를 계획 중이며, 홍법사에서 열리는 8기 열린종교시민대학은 교리보다 감성과 문화로 소통하는 열린 종교,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계춘 신부에 이어 정여 스님이 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공동선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의는 2003년 반여성당에서 발기인 모임을 가진 이후, 6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공동선 추구라는 큰 목표아래 종교음악회, 3 · 1절과 8 · 15 광복절 기원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다.

뿐만 아니라 삼랑진 여여정사에서 종교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성당, 교회, 법당 등에서 음악회를 열며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각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앞으로 공동선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착한 마음 갖기'라는 운동을 펼치며 각박해지는 심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1995년 창립된 부산종교인평화회도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공동선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장 정여 스님은 "종교는 세상을 맑히는 샘물과 같다"며 "종교인들이 뜻을 합쳐 세상의 혼탁함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불사 회향 눈앞

신행 보금자리 우리손으로

부산 번화가인 서면의 한 건물 옥상. 40평 규모의 기본 골조를 마무리한 조립식 건물이 들어섰다. 아직 외부 골격만 갖춘 상태로 공사가 한창이지만 바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 법당으로 사용될 공간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서면에 부산불교실업인회 회관을 마련한지 3여 년 만에 법당 불사를 발원하고 올 1월부터 3개월째 회원들의 정성과 참여로 불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서면의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의 모습.

이달 하순 준공 예정
문화강좌 등 열린 공간
신행단체에 무료 대여
창립 15주년, 장학사업도

부산불교실업인회는 1991년 2월 故 김정태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108명의 실업인들이 모여 창립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발원하며 창립된 부산불교실업인회가 그동안의 숙원사업이던 회관 마련의 꿈을 이루자 내친 김에 회원들의 신행과 수행을 위한 법당 마련까지 시작한 것이다.

빠르면 3월 하순에 준공될 이 법당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신행과 수행의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꾸며진다. 불교용품, 불상, 불단 제작을 하는 회원이 내부 장엄을 맡고, 외벽 골조도 회원과 회원의 지인들이 맡아 '회원들이 직접 건립한 법당'이라 의미를 더한다.

월례 법회 등 회원들을 위한 법회 공간이라는 기본 목적 외에도 법회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신행단체에 법당을 무료로 대여하게 된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다는 입지적 조건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문화 강좌와 법회 등을 개설, 법당의 활용 폭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에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처님 도량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다.

김윤환 회장은 "회관 인근에 사무실이 많은 만큼, 바쁜 업무로 산사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법당에 들러 마음을 돌아보면서 불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도심 건물에 세워진 옥상 법당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4년 사무국을 회관내로 옮긴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법당 개원과 함께 김윤환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3월 24일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계획중인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박수관 상임부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대사회적인 역할 증대에 나서게 된다.

많은 회원들이 드러나지 않게 불사에 보시하고 이웃을 돕고 있지만 부산불교실업인회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장학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서다.

IMF로 대부분의 실업인들이 한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원들은 부처님의 법대로 살며 고요하고 여여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매월 열어온 월례법회에서 들었던 부처님 가르침을 기업 경영에 접목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온 덕분이다. 비온 뒤 땅 굳는다는 속담처럼 부산불교실업인회의 신심은 IMF라는 역경을 딛고 번화가에 우뚝 솟은 법당만큼이나 견실해지고 있다. (051)818-9914

천미희 기자

"모든 이에게 안락함 주는 공간 되길"

밀양 정토사 효심추모관 3일 개관식 봉행



밀양 정토사(주지 묵화)는 3월 3일 밀양 삼랑진읍에서 최신 납골시설을 갖춘 효심추모관 개관식을 봉행했다(사진).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식은 경과보고, 인사말, 개원 테이프 절단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묵화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토공원 효심추모관은 국가 시책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정성을 다해 불사를 진행했다"며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경상남도와 생활협동의료법인 허가를 얻은 상태이므로 추모관, 노인전문병원, 법당 등을 갖추고 죽은 이나 살아있는 이 모두에게 안락함을 주는 공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묵화 스님은 그동안 효심추모관 시공을 맡아온 (주)산양종합건설 최칠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효심추모관은 대지 3만5천 평에 납골당 부지 3000평, 건평 1500평 규모로 납골 봉안기수는 2만5천 여기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올 10월 중으로 노인전문병원인 효심노인병원 기공식과 함께 법당 80평과 요사채 200평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055)352-9114 천미희 기자

불교TV 부산지사 개원법회

불교TV 부산지사(총괄국장 손정현)가 개원법회를 갖고 부산경남의 불교 소식 전하기에 본격 나선다.

불교 TV(대표이사 성우)는 3월 15일 오후 2시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대성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을 법사로 불교TV 부산지사 개원법회와 함께 불교TV 미국 전역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부산지사의 개원 소식은 한동안 불교TV 부산지사의 공백으로 불심의 도시로 대변되는 부산과 경남의 불교 뉴스를 접할 수 없었던 스님과 일반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051)467-3301 천미희 기자

반야원 지장경 강의, 21일 개강

범어사 직할포교원인 해운대 반야원(주지 목종)은 다른 불교대학에서는 접할 수 없는 지장경 강의을 연다.

2006년도 상반기 반야불교교양대학 교과 과정에 포함된 지장경 강의는 주지 목종 스님이 직접 강의한다. 입학은 3월 19일, 개강은 3월 21일이며 지장경 외에도 기초 교리, 초발심자경문 등의 과정도 개설된다.

주지 목종 스님은 "지장경은 집을 지을 때 터전에 해당되는 경전"이라며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보살이며 기본이 되는 보살이므로 대원본존이라고 부르는 만큼 지장경에 대한 이해는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051) 701-5655 천미희 기자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
부산불교교육원 수강생 모집

1년 6개월간의 공백기를 극복하고 2005년 11월 10일 다시 문을 연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이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제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과 과정은 제35기 불교입문자 과정(6개월), 제 1기 불교학과(1년), 경전과정으로 선으로 본 금강경(6개월), 제1기 다도과정으로 마음다루기와 다도(3개월) 등이 개설된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靈木之等



7천년된 靈木(영목)의 신비함을 한 알 한 알
부처님 염주에 담았습니다!

사업번창, 소원성취, 합격, 승진 기원, 무병장수 부처님 전에 영혼이 담긴 靈木염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지니고만 다녀도 액운을 물리칩니다!

靈木(영목)이란 神木(신목)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四川省 岷江 유역에서 발견된 약7천년된 고목이 홍수, 지진 등 자연변화를 거쳐 진흙 속에 묻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모양이 기이하지만 나무재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다. 靈木은 지구상에 한곳밖에 없는 매우 희소한 나무로 영원히 재생하지 못하므로 더욱 진귀함을 느끼는 것이다.
靈木의 은은한 향은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우며 氣를 도운다고 하여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靈木을 소유함으로서 富(부)를 얻고 무병장수 한다고 하며 생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중국 四川省 '영목예술수집센터'에서는 '고궁박물원', '중국수집가협회', '중앙미술학원', '사천사회과학원' 등 20여명의 저명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靈木의 과학성, 학술성, 문화성, 예술성을 전문 연구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靈木은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약 2m 정도의 조각품을 현지에서도 수 억원에 호가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법인(法印)과 염주를 만들어 지니면서 잡신을 쫓고 정기를 맑게 한다고 하여 귀하게 여겼으며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여 부적(符籍)처럼 소장한다고 한다.
불기(佛紀)2250년 석탄일(釋誕日)을 맞아 국내 최초로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佛子)님 몇 분께 현지에서 靈木으로 수(手) 제작한 백팔 염주와 단주를 바칩니다.
靈木 염주로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빌어 만사형통하시고 무병장수,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靈木으로 佛事를 하시거나 특별한 수 공예품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도 해드리며 중국 현지 발문도 가능합니다.

백팔염주1, 단주1, 원목 보관함1, 실크주머니1, 성분 분석표1

靈木佛事推進協會(영목불사추진협회) 대표전화 02)3445-8856

군위 인각사

고려시대 쌍연지·목탑 심초석 발굴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들이 3월 8일 고려시대 건물과 연못터를 둘러보고 있다.

일연선사 주석시 가람배치 파악 기대
회랑안 사각형 연지 백제서 온 것 입증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를 위한 발굴조사과정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2기의 연못, 고려시대 대형 목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심초석(목탑을 지탱해주는 중앙기둥의 주춧돌, 사리구를 넣어두는 곳)이 발견됐다.

조계종문화유산 발굴조사단(단장 탁연, 이하 발굴조사단)은 3월 8일 경북 군위군 인각사 발굴 현장에서 개최한 제1차 군위 인각사지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을 비롯해 군위군관계자, 발굴조사단, 김동현(문화재위원,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정재훈(문화재위원,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조유전(토지박물관장), 문명대(동국대 교수), 이강근(경주대 교수) 등 지도위원과 조사위원들이 참석해 발굴과정과 현장확인 및 발굴 방향등을 논의했다.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일연선사 주석 당시 가장 번창했던 가람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극락전과 강설루의 해체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위군의 의뢰에 의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됐다. 발굴 지역은 극락전과 강설루가 있던 부지 40×43m의 작은 구간이다.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1991년부터 이미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발굴조사단 등에 의해 수차례 이뤄졌지만 고려시대 건물지와 쌍연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발굴조사단은 일연선사 재세시의 가람배치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극락전 부지에서 확인된 심초석은 대형 목탑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대형 목탑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또, 2곳에서 발견된 연지는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정원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부여 동남리 사지에서만 발견된 특이한 형태다.

정재훈 문화재위원은 "회랑안에 연지를 둔 것은 독특한 형태로 탑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며 연지가 갖는 특이한 상징성은 연구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네모반듯한 모양의 연지가 쌍을 이루어 발견된 것은 백제에서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인각사지 중심축(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현 박사는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시간을 두고 정확한 발굴과 조사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명대 교수는 "극락전지에서 심초석이 발견됨에 따라 극락전 부지가 예전의 금당지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뒤흔들어놓았다며 금당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발견된 초석과 심초석으로 목탑복원도를 만들어 목탑의 정확한 시대를 확인하는 것도 금당지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글 · 사진/군위=배지선 기자

대구 범음범패연구원 졸업식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원장 법운) 부설 범음범패연구원은 3월 9일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법당에서 제3회 졸업생 6명을 배출하고, 신입생 20여명을 받아들였다. 또, 1학년 2학년과정을 수료한 수료생 12명에게 수려증을 수여했다(사진). 배지선 기자

칠곡 송림사 복장불사 점안식

경북 칠곡 송림사(주지 성덕)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명부전 복장불사 점안식을 봉행한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송림사 명부전에는 1600년대 봉안된 것으로 알려진 삼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상이 있으며 모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정면5칸 측면3칸으로 된 홑처마에 맞배지붕인 명부전에는 오역의 대죄를 범해 교화를 바랄 수 없는 무리를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대웅전의 기단과 같은 높이로 쌓은 축대에 건물을 지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054)976-8116

대불어 대구지회장에 선용 스님



대구 달성군 현풍 포교당 주지 선용스님(사진)이 최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대구지회장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동안 구심점이 없이 침체기를 맞았던 대불어대구지회가 새로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용 스님은 청소년교화연합회와 서울지역 어린이 지도자들의 모임인 '길눈'에서 활동을 했고, 좋은벗풍경소리와 인연을 맺으며 <쌩쌩꽁꽁>, <개구쟁이 스님> <합장> 등 어린이 찬불가 노랫말 20여 편을 짓는 등 어린이 포교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주지추대위 발족

동화사주지추대위원회가 3월 3일 대구 삼덕동 진석타워 빌딩에서 발족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며 추대위 공동위원장 혜승 스님은 "동화사 주지 선출에 대해 과열 혼탁되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승가 화합을 깨지고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공동인식에서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화사주지후보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4월 7일 오후1시 열린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경북 청년불자들은 살아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

회장단 취임식 대신 사찰서 대화의 장 마련
합동법회 전국대회 개최 등 추진 목소리도

3월 5일 경북지역 청년 불자 80여명이 포항 보경사에 모였다. (사)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 13대 신임 회장단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지부 지회 임원간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것.

대불청 경북지구 12대 류춘일 지구장과 13대 김성식 지구장을 비롯해 구미, 포항, 영주, 상주 예천 칠곡, 풍기지회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중앙회 김익석 회장도 서울에서 한달음에 달려왔고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도 자리를 함께했다.



"경북지구 청년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7~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법한 회장단 이 취임식 대신 조촐한 상견례를 갖게 됐지만 김성식 신임지구장은 어느 때보다 경북지구 청년불자들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예천 영주 상주 경북 북부 청년불자들의 결집이 눈에 띈다.

점심을 겸한 간단한 상견례시간, 모든 지회의 임원들과 청년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성식 신임지구장이 김익석 중앙회장에게서 인준서와 등록증을 받았다. 또, 김진기 전임 대의원의장에게 공로패가 류춘일 전임지구장에게는 재직기념패가 수여됐다. 경북지역 청년불자들은 박수로 지난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임 임원들에게는 함께 싱그러운 대불청 경북지구를 만들어가자는 눈빛을 쏘았다.

보경사 주지 법달 스님은 구정선사의 일화를 들려주며 "불교는 문자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알음알이를 가지고 공부해선 안 되며 마음이 담백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처럼 함께한 대불청 경북지구 청년회의 만남은 보경사에서 포항 바닷가로 넘어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어느덧 언니 동생이 되어버린 청년불자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야 한다는데 마음이 통했다. 비록 모든 청년불자들이 자주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김성식 지구장만은 월 1회 각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버스 한대를 대절해 함께 온 예천, 영주, 상주 청년 불자들은 합동법회를 개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처음엔 조용하더니 신임회장단에 바라는 요구의 소리도 커져갔다.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지 못하더라도 공통의 회원명부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며, 2007년쯤 전국대회를 경북지구가 개최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열기를 뿜으며 쏟아져 나왔다.

"도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는 김회장이 경북지구 청년불자들의 힘을 받아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무식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온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정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2년간 불청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는 만큼 청년불자들의 마음도 깊어가고, 청년불자들의 건재함을 알리는 함성도 드높았다.

"대불청 경북지구는 살아있다."

배지선 기자

공군 K-2 기지내 초대형법당 증축

공군 최대 기지인 대구 동구 K-2부대의 성무일승사(법사 화엄)가 공군 장기계획에 의해 연면적 350여평 (법당 130평, 요사 220여평) 지상 2층 규모로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초대형 법당으로 증축된다.

성무일승사는 공군 포교의 전략요충지로 가장 많은 공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다.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많은 부대 법당 중 하나다. 법회 참가자가 300여명이 넘지만 1976년 지어진 법당이 100여명 남짓 협소하고 비가 새는 등 노화되어 재건축불사를 시작하게 됐다. 공사는 20여 억 원의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3월 9일 K-2 기지내 불사 장소에서 거행된 법당 기공식에는 제2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을 비롯해 군수사령관, 남부사령관, 공군본부 선근 법사 등 군 법사 및 군장병 가족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옥불보전 낙성법회 봉행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2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옥불보전 낙성 및 준제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3월 7일과 8일에 걸쳐 봉행했다.

7일 열린 점안법회는 우학 스님 인사, 공로패 전달,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의 특별법문으로 이어졌고, 8일 낙성법회는 테이프 컷팅식, 육법공양, 삼귀의, 우학 스님 인사, 공덕패 수여,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영남불교대학 옥불보전은 연건평 2,700여평 지하2층 지상 7층규모로 2004년 9월 1일에 착공했고, 지상1~3층에는 약500여명을 수용하는 참좋은유치원이, 6~7층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으로 선방, 강원, 율원을 겸하는 학림이 들어섰다. 그 외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삼보갤러리가 6층에 위치하며 옥상에는 연밭이 있는 생태공원과 우리 농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053)474-8228 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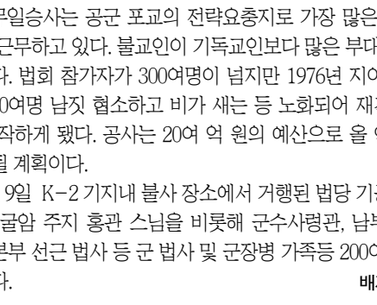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랜덤하우스중앙 RANDOM HOUSE JOONGANG 펼치면 보이는 새로운 세상 www.randombooks.co.kr
구입문의 02-3705-0108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이 그려낸
청화 큰스님 일대기!

장좌불와, 하루 한 끼, 토굴 수행, 칼날처럼 치열했던 청화스님의 40년 구도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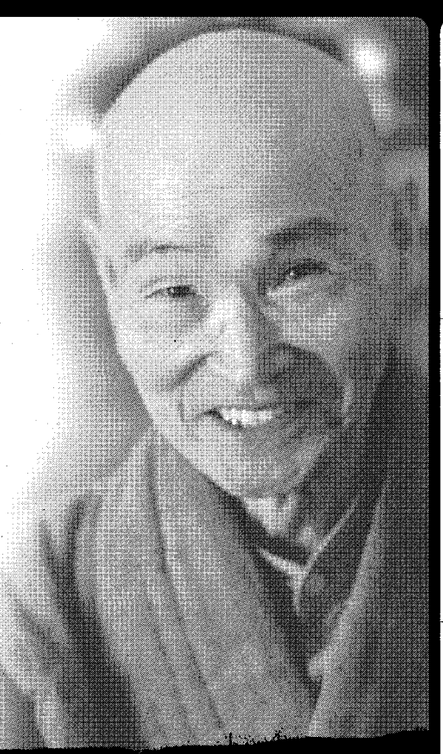
청화 큰스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가 가신 도인道人이다.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 불와의 수행을
평생 지켜왔던 청화 큰스님. 그는 도道의 실체를 증명한 우리 시대의 선승이자 스승이다.



청화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소설로 재구성한 뛰어난 소설. 베스트셀러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가 '전설적 수행승'이 아닌 '인간적 구도자'로서의 스님을 되살렸다. – 중앙일보

장좌불와, 토굴 수행을 하며 당대의 선승으로 꼽힌 청화스님(1924~2003)의 일대기. 신동으로 주목받던 청화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후의 칼날 같던 구도의 길을 생생하게 전한다. – 경향신문

청화 큰스님의 족적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살날같은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 서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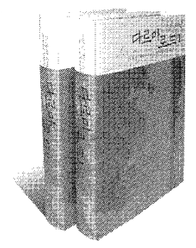
남지심 장편소설
청화 큰스님 1·2
清華
남지심 지음 | 전2권 | 신국판 | 각권 8,500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샘물 같은 이야기
매 순간 행복하게, 매 순간 후회없이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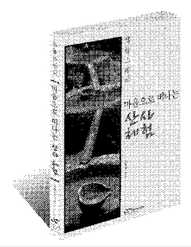
마음 밖으로 걸어가라
정목 스님 지음 | 225쪽 | 값 9,800원

언론과 불교계가 격찬한 최고의 불교 성지 순례기!
진리의 길을 따라 퍼져나간 2,500년 불교 역사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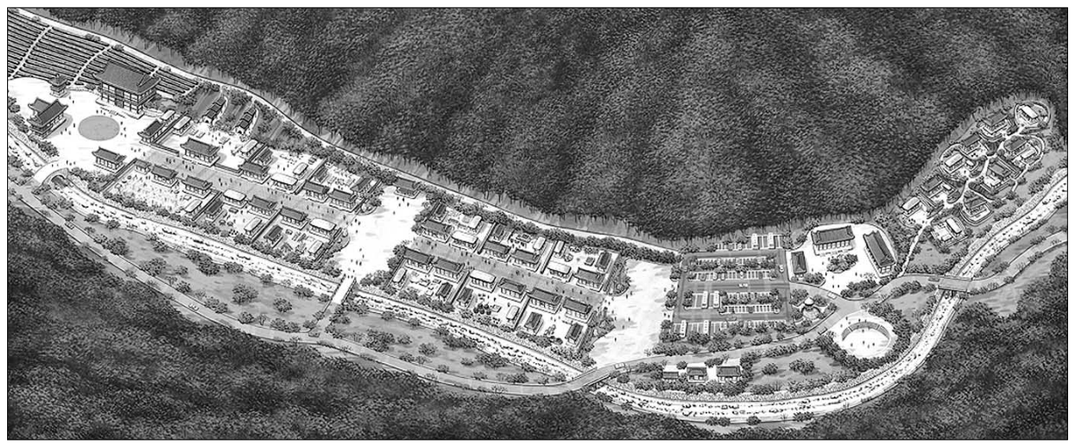


다르마로드 1·2
조병활 지음 | 각권 400페이지 내외 | 각권 값 32,000원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산사로의 여행
전국 21개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완벽정리!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상 지음 | 265쪽 | 값 12,000원



대흥사와 해남군은 불교와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남도 전통문화체험공원' 조성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불교문화, 차(茶), 공방거리, 문화참여 등 4개 권역으로 개발될 전통문화체험공원 조감도.

문화로 생산불교 잡아라

대흥사 2010년까지 전통문화체험공원 건립

3만5천평 148억 투입…차·공방거리 조성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에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대규모 공원이 들어선다.

대흥사와 해남군은 불교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토록하는 남도전통문화체험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대흥사가 수립한 체험공원 조성 기획안에 따르면 매표소 인근 35000여평을 불교문화, 차(茶), 공방거리, 문화참여 등 4개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것.

불교문화권역은 부도,비림원을 조성해 비석과 부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비석과 부도의 모형을 실물크기로 제작해 전시한다.

차문화권역에는 차 농장, 차문화 박물관, 저온창고를 건립해 4계절 직접 차를 재배, 제조하고 시음하도록 한다.

특히 공방거리권역은 도자기, 장승, 도금, 전통목기 등 12개 전통문화 공방을 조성해 분야별 전문 장인들이 상주하고 교육과 체험을 지도한다.

이밖에 체험 공원에는 세미나 강연회 공연 숙박시설을 갖춰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할 예정이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사찰내에 조성되는 전통문화 체험공원은 문화를 이용해 생산불교를 시도하는 첫걸음으로 불교와 차,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흥사와 해남군 관계자는 "체험공원은 올해 기본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자해 건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茶생활은 그대로 훌륭한 수행"

김의정 중신회장 덕림사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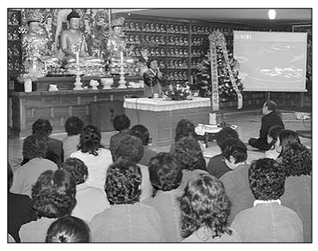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3월 6일 취임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대중강연을 했다(사진).

이날 김의정 회장은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가 마련한 5차 명사초청법회에 초청되어 '한국 차문화 역사와 전통 다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명사초청법회에는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한 지역기관장, 이상진 광주 전남신도회장, 이호준 광주시청불자회장, 백남용 광주전남 포교사단장, 김창배 서불회장 등 지역 신행단체장과 신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있는 김의정 회장은 강연에서 "차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의식과 예절이 수반된 문화이다"며 "우리차를 복원해 생활속에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선(禪)하는 마음이



담겼을때 차의 맛과 효능을 제대로 즐길수 있다"며 "차 생활은 그대로가 훌륭한 수행이다"고 말했다.

강연에 이어 김 회장은 광주지역 신행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포교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덕림사는 명사초청법회에 이어 제1기 경전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초교리반을 거쳐 6개월동안 경전공부를 마친 22명이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제2기 경전반 강좌는 4월 6일 개강한다. (062)362-2091

이준엽 기자

꽃내음 맡으며 봄맞이 음악회

18일 증심사서…이상은 등 출연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이 보름달이 뜰 무렵 증심사에 모여 개최하는 '무등산 풍경소리'가 40회를 맞았다.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종교인모임'은 3월 18일 오후 6시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음악회를 연다.

'무등의 품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이상은, 살레시오여고 중창단이 노래손님으로 초청된다.

음악회에 앞서 증심사는 3월 16~18일 취백루에서 '우리 봄꽃 전시회'를 연다. 봄꽃전시회에는 한백꽃뜨락 대표 나문심 씨가 이야기손님으로 출연해 봄꽃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우리 봄꽃 전시회와 풍경소리 음악회 관련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www.pgsori.org

이준엽 기자

운산 총무원장과 대화

태고종 충북교구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현안에 대한 대화마당을 3월 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사회 참여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정착 △태고종 전승관 불사 등을 설명하고 지역 교구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운산 스님은 군포교 전담 부장 임명 계획을 밝혔다. <태고종사>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젊은 이웃 위한 열린 강좌

선덕사, 법륜 스님 등 초청

새 봄을 맞아 젊은이들의 가슴을 펴게 하는 열린문화강좌가 열린다.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4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오후 7시) 5회에 걸쳐 제2차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조금씩 삶이 바뀌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강좌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4월 5일-그냥살래? 바꾸고살래?), 해남생협 김미옥 이사장(12일-몸과 마음마저 갉아먹는 먹거리), 여성사회교육원 김희은 원장(19일-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26일-북측 사람들이 광주에 온대요)의 초청강의와 선덕사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가족과 함께 행복만들기'(5월 3일)로 진행된다. (062)263-4660)

이준엽 기자



천년고찰 대각사, 아파트 공사중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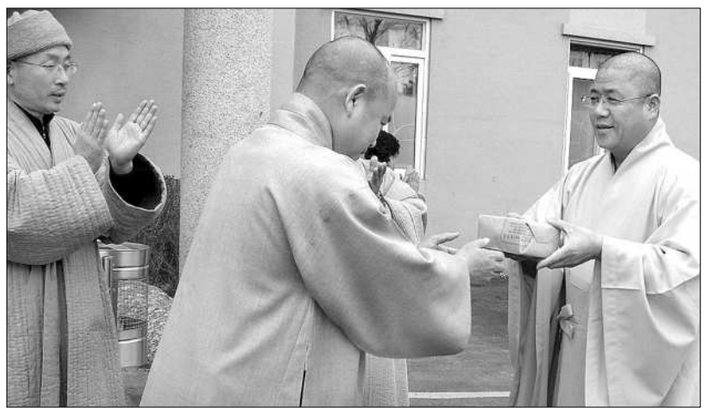
천년고찰 앞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사찰 수행환경이 위협 받고있다.

광주 제석산 대각사(주지 도산) 신도회는 지난 3월 5일 사찰앞에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항의시위를 벌였다(사진).

이날 신도회는 "지난 2004년부터 H 건설이 대각사앞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식수고갈, 담장 및 건물균열, 조망권과 진입로 훼손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다"며 "공사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신도회는 "건축허가 남용으로 사찰과 제석산 환경을 파괴하는 남구청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대각사 주지 도산 스님은 "백제 말기에 지어진 유서깊은 사찰과 지역주민의 휴식처인 제석산이 개발에 밀려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이준엽 기자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사진 가운데)이 낙산사 부주지 정혜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주사, 낙산사서 방생법회 열고 성금 1천만원 전달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3월 9일,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낙산사에서 정월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도공 스님은 "법주사 사부대중의 정성이 낙산사 복원 불사에 초석이 되길 발원한다"며 전국의 불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대전충남 농협중앙회 불자회 창립



대전·충남 농협중앙회 불자회는 지난해 말 회원들의 뜻을 모아 불자회 결성을 마치고 2월 25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한호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새기며 전하는 모임이 되자"고 말했다.

창립법회에는 갑사 주지 장곡 스님, 해광사 주지 해광 스님, 사재동 백제불교대학장, 불자회 회원 및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醫通(의통)·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개강일: 2006. 3. 17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빙의·해리 치유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도인 양생 비법	칠차원 생명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천태종 총무원장 26년

운덕스님 발자취



'뿌리찾기'로 교세 확장 견인

제 7대에서 현 13대에 이르기까지 26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25개 가입 종단 수장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이다.

대한불교 천태종 전운덕 총무원장 스님(사진)이 3월1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운덕 스님은 1980년 군부독재에 의해 사찰이 유린된 10 · 27법난 이후인 1981년 7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현 13대에 이르기까지 26년간 종단 행정의 수반 역할을 해왔다.

26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운덕 스님이 천태종을 위해 남긴 업적은 너무나 많다. 가장 우선 순위로 종단 관계자들이 꼽는 것이 종도수의 현저한 증가. 천태종 관계자에 따르면 80년대 초 110만명이던 천태종도가 현재는 23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교세가 두 배로 확장된 것이다.

스님은 교세확장과 더불어 교리 및 신행체계 확립 등에 힘써왔다.

이는 종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생활불교, 대중불교, 애국불교의 종지를 충실히 종도들에게 전하고 실천에 옮긴 결과라고 종단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최근까지도 운덕 스님이 개성 영통사 복원에 이어 개성 국청사를 복원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각국사가 출가하고, 천태교학을 설한 개성의 절을 복원하는 것은 천태종으로서는 '뿌리찾기'이자 '불맥 잇기'로 종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상월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려는 운덕 스님의 열정은 95년부터 본격화됐다. 천태종의 시발점인 중국 절강성 국청사에 한중 천태조사 기념당을 건립하고 수차례의 세미나와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천태사상을 널리 알렸다.

이러한 노력은 재창건한지 40년밖에 안돼 신흥종교로 인식되던 천태종의 정통성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행체계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해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운덕 스님은 우선 기도법을 단일화시켜 관음정진을 종단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정착시켰다. 관음정진은 상월 원각 대조사가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여러 대승경전을 바탕으로 증명한 것으로써 복잡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행주좌와를 가리지 않고 닦을 수 있는 수행법이다.

또한 본말사의 기도실을 24시간 개방해 신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는 주로 대도시에 사찰이 밀집해 있는 천태종의 특성상 도심포교에 큰 몫을 했다는 평이다.

운덕 스님은 신도들의 체계적인 불교 교리 교육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춘천 울산 등에 5개의 금강불교대학을 설립했다. 교양대학 성격인 금강불교대학은 등록금 전액을 종단에서 지원하며, 수많은 포교사를 배출해 냈다.

2002년, 교육과 불교인재양성에 대한 끝없는 원력은 논산에 4년제 정규대인 금강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대내외에 천명이 되었다.

천태종 사찰을 재가불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자리잡게 한 것도 운덕 스님이 밀어붙인 일이다. 천태종은 모든 사찰의 운영 특히 재정부분을 재가신도들이 맡고있다. 이것은 사찰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중국·북한 교류 통해 '정통성' 다지기 괄목
'생활불교·대중불교·애국불교' 실천 앞장

신행체계 현대적 정비 불교계에 새바람
재가자 중심 사찰운영 확립, 재정 투명화

26년간 스님을 곁에서 모셔왔다는 한기선 금강불교신문 부장은 "천태종이 오늘날처럼 교세가 확장된 것은 교리, 신행 등 다방면에 걸쳐 항상 신도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운덕 스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스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김주일 기자



쌍계사, 205특공여단 백호정사와 결연

백호정사 건립 당시부터 꾸준히 후원
연 2회 수계법회 정기적 지원 등 약속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교구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쌍계사가 동참해 군포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원정)는 3월 5일 205특공여단 군법당 백호정사와 결연을 맺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 주지 원정, 교무국장 중선, 포교국장 수완, 강원 학인 상님, 성원, 문현 스님과 쌍계사 합창단, 11군단 김철호 군법사, 백호정사 신도회장 손원락 신병교육대장, 진주 선우선방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번 수계법회에는 군장병 150여명이 5계를 받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이날 쌍계사가 음료수, 과일, 떡 등 위문품을 준비해 불자 장병을 위문했고 매주 백호정사 법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진주 선우선방(대표 유여여화보살) 회원들도 수계 장병들에게 일일이 합장주를 보시했다.

법회가 끝난 이후 장근영 여단장과 공양을 함께한 자리에서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은 "사중 스님들이 군 포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사중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계법회를 실시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근영 여단장도 "비록 천주교 신자이지만 정서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고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다"며 "스님이 이렇게 법당을 방문해 수계법회를 열고 불자 장병에게 힘을 실어주니 부대장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가 205특공여단 군법당 백호정사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쌍계사는 사실 205특공여단 백호정사와 이미 결연을 맺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관계였다. 2001년 백호정사 건립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며 금전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기공식, 준공식을 모두 주관하는 등 법당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법당 설립 이후에도 군법사가 상주하지 않아 사중의 포교국장 소임을 맡은 스님이나 학인 가운데 지도법사를 1명 위촉해 법회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금은 포교국장 수완 스님이 지도법사로 매월 1, 3째주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강원 학인 스님들이 205특공여단 장병들과 1년에 부정기적으로 친선 축구 경기를 펼치는 등 꾸준한 교류를 해 온 쌍계사는 향후 년 2회 정기적인 수계법회를 지원하는 등 결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다.

백호정사 손원락 신도회장은 "그동안 쌍계사에서 물심양면으로 법당을 지원해주어 항상 감사해하고 있다"며 "결연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진다는 소식에 불자장병들과 군법당 신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쌍계사가 이처럼 군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주지 원정 스님 때문. 원정 스님은 맏상좌 범인 스님이 현재 사천 공군부대 군법사로 활동하고 있어 평소부터 군포교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군법당을 위문하고 수계법회를 지원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쳐왔었다.

쌍계사 포교국장 수완 스님은 "그동안 백호정사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면서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열심히 군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했다"며 "사중의 어른 스님들이 먼저 군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니 자연스럽게 군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지도자 역할 기본이 중요”

조계종 승랍 20년차 스님들 연수 현장

도반과의 시간 · 리더십 강의 등 프로그램 ‘초발심 재충전’

올바른 수행자 · 종단관 확립, 책임감있는 지도자 될 것 다짐


입재식에서 용맹정진을 다짐하고 있는 스님들.


한 스님이 연수 참여 동기를 밝히고 있다.


조별 토론회에서 한 스님이 발표를 하고 있다.


불교지도자 조직관리 진단을 하고 있는 스님들.

“불기 2550년 오늘 저희들은 한국불교 미래와 불교지도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원력을 세우고 이 자리에 운집했습니다.”

조계종 승랍 20년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제5회 불교지도자 연수가 시작됐다. 3월 8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1987년 수계를 받은 비구 · 비구니 스님 중 희망자와 87년 이전 수계를 받은 비구 · 비구니 스님 중 입교에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40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교육부장 법장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연수 의미를 되새겼다.

“출가해 승랍 20년이 넘으면 이제 한 사람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교단의 지도자 반열에 들게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종단과 대중에 대한 책임성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을 제시해 대중과 함께 활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원장스님의 당부에 연수생들은 서원문으로 답했다.

“불교지도자로서 올바른 불교관과 종단관을 확립하고 시대변화를 통찰하는 예지력과 탁견으로 대중과 함께 종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 하겠나이다.”

“행자때 교육받은것 아닙니까”

“불교지도자는 불법을 수행하고 가르치는 스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가, 스승의 위치에 있어야 할 교단이, 그 역할을 상당부분 상실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달라이 라마 방한 운동으로 유명한 진옥 스님(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이사장)이 연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진옥 스님은 ‘불교 지도자의 사명과 자세’를 주제로 강의하며 한국불교 현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개인토굴이 등록된 절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개인 축재가 고급승용차 경쟁을 시키고, 골프를 치게 하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비판을 가할 수 없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소유 등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비구니스님은 “20년차 연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 행자 때 교육받은 것 아닙니까. 너무 부끄럽고 화가납니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비구스님도 “삼귀의를 비롯해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30~40년 수행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왜 중이 됐을까?”

“얼마 전 젊었을 때 긁적거렸던 노트를 꺼내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왜 중이 됐을까’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부처님 시봉하는 것이 좋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도량청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바꾸고자 연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반과의 시간’이 되자 스님들은 다과를 앞에 놓고 둥글게 둘러앉아 자신의 출가본사와 법명, 연수 참여 동기 등을 밝히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걸망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가한 뒤 20여 년 동안 시야를 너무 좁게 가지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스님들의 말 여기저기에 고민의 흔적들이 묻어나왔다. 출가한 지 20년, 사회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 초발심 또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승랍 10년차가 되기 전까진 승랍이 많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0년이 지나자 승랍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승랍에 비해 수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로 보면 20살은 청년인데, 저는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저의 나태함을 발견하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재발심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는 스님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종단 중진으로서의 위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30기 행자들의 경우 세속 나이가 30대, 전문대 출신 이상이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이전에는 아랫사람에게 무조건 엄하게 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도 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스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연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똑게형? 똑부형?

“여러분은 ‘똑게’형입니까, 아니면 ‘똑부’형입니까. 혹시 ‘멍부’ ‘멍게’형은 아닙니까?”

정웅기 불교아카데미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이 ‘지식정보시대의 불교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하다 스님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자 잠시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정웅기 부소장이 리더를 ‘똑게(똑똑하고 게으른)’형,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형, ‘멍부(멍청하고 부지런한)’형, ‘멍게(멍청하고 게으른)’형으로 구분하고, “스님들은 어떤 유형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똑부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일 것 같죠. 아닙니다. 리더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챙겨 아랫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더는 똑게형이 돼 일의 큰 방향만 잡아줘야지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정웅기 부소장이 주요 분야별 인물들의 리더십을 탐구한 뒤 비전형 리더십, 커뮤니케이션형 리더십, 자기관리형 리더십으로 분류하고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지 물었다.

“첫째 자리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형 리더십을 발휘해 신도들을 비롯해 주변과 관계형성을 맺은 후, 비전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제공 기회로…

조계종의 불교지도자 연수는 승랍 20년차, 25년차를 대상으로 2002년 개설됐다. 이는 2001년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해 확립하게 된 ‘수행 및 교육을 통한 지도자상 확립’이라는 교육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참가자간 상호 탁마의 기회를 부여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단적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다.

3월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승랍 20년차 스님들 연수는 ‘리더십과 조직관리’ ‘지식정보시대의 불교리더십’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지도자의 역할’ 등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끌었다.

수년째 불교지도자 연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영철 불교아카데미 NGO미래경영연구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체감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연수 첫 번째 해나 두 번째 해에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스님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글 · 사진/아산= 남동우 기자


나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일까? 연수에 참여한 스님들이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점검과 자기이해를 하고 있다.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외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쑥향 양초의 특징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③ 천연쑥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쑥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쑥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그을음 걱정은 이제 그만!!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그을음 내음새를 한번에 해결한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4호 4.7中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금강경 7개 세트 5.9中 ×19.5cm 연소시간 約 80시간 以上
• 약쑥향양초 1호(돈타대) 5.6中 × 27cm 연소시간 約 100시간 以上
• 약쑥향양초 2호(밀대) 4.6中 × 25cm 연소시간 約 40시간 以上
• 금강반야바라밀경찬 5.9中 × 19cm 연소시간 約 80시간 以上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연소시간 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불자 CEO들의 경영철학

나보다 고객·직원이 먼저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1835~1915). 미국 철강시장의 65%를 차지하는 US스틸사를 일군 그는 경영을 통해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한 CEO로 유명하다. 훗날 미국인들에게 '강철왕'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 같은 경영철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CEO의 경영철학은 경영이념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존재 이유와 경영활동을 방향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CEO의 경영철학에는 경제관과 종교관, 인생관 등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 남중수 KT 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불자 CEO들의 경영철학 속에서도 불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다.


남중수 사장


남용 사장


한준호 사장


박해춘 사장


장경작 사장

'Wonder 경영' '수류득묘' 상통 | **지혜 근간으로 강한 인재 육성** | **투명한 윤리경영 나눔기업으로** | **강력한 추진력 비결은 心 경영** | **법화경 20번 사경 하심·배려 생활화**

◇남중수 KT 사장

민영 2기 KT호 선장을 맡은 남중수 사장의 경영철학은 고객 관점, 주인의식, 열린 문화를 근간으로 한 'Wonder(놀라운 감동) 경영'으로 요약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영이다. 그래서 남 사장은 자신을 CEO 대신 CSO(고객만족 전문경영인)라고 표현한다.

남 사장의 'Wonder 경영'의 근간에는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수류득묘(水流得妙)의 진리가 갈무리돼 있다. 남 사장은 "학창시절 즐겨 읽던 불교서적에서 이 말을 접한 뒤 어려울 때마다 떠올려 힘을 얻는다"고 고백한다.

남 사장은 2004년 9월 취임 직후 첫 활동으로 사내 봉사단체의 이웃돕기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직원을 소중히 생각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인재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GE의 잭 웰치 회장을 가장 존경하는 CEO로 꼽는 이유도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경영스타일 때문이다.

◇남용 LGT 대표이사 사장

LG텔레콤을 8년째 이끌고 있는 남용 대표이사 사장. '지혜 경영, 가치혁신 경영, 정도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인재들의 회사(The People Campany)'라는 인재육성 원칙을 세운 장본인이다.

남 사장이 개인적으로 흔히 쓰는 단어에도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지혜'가 포함돼 있다. 그만큼 그의 가치관에는 불교가 각인돼 있다. 대학 재학 시절 서울대총불교학생회장을 맡았고, 힘들 때마다 경전을 벗으로 삼았다.

남 사장은 LG그룹내에서 행동하는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판단되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그런 남 사장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와 접목시킨다. LGT가 추구하는 '성실하고 우직한' 인재상과 닮았기 때문이다.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된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2004년 3월 34대 1의 공모 경쟁률을 뚫고 거대한 공룡 한국전력 CEO로 선출된 한준호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윤리 경영, 열린 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투명한 기업운영을 추진했고, 국내 최대의 사회봉사단을 창단한데 이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나눔 경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 사장의 '윤리 경영'에는 진각종 신교도로서의 청빈한 생활이 그대로 담겨있다. 서울 강남 행원심인당의 자성일 불공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신실한 신행활동에서 우러난 한 사장의 윤리경영은 한국전력에 붙어다니던 부패와 관료주의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이제 그는 경제관료에서 잘 나가는 CEO로 변신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박해춘 LG카드 사장

성격 급한 CEO 박해춘 LG카드 사장은 불도저경영의 대명사로 통한다. 강력한 업무 추진력으로 부실기업 서울보증보험과 LG카드를 살려낸 이력에서 얻은 별명은 '구조조정의 달인'이다. 지난해 박 사장은 사망선고를 받았던 LG카드를 순이익 1조원을 달성한 우량기업으로 변화시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매몰찬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박 사장의 성격과 다른 꼼꼼함이 있다. 비결은 불교다. 평소 부인과 함께 사찰을 찾아 기도를 하거나 매일 아침 참선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얻은 것이다. 이를 박 사장은 회사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에게 마음을 바치는 심(心) 경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결혼기념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직접 축하카드를 쓰고, 명절 때에는 전 직원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겨 기를 살려주는 독특한 방법이다.

◇장경작 롯데호텔 대표이사 사장

지난해 장경작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롯데호텔은 국내 1등 호텔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롯데그룹의 고급화전략에 맞춰 CEO를 주고객으로 하는 초특급 비즈니스 호텔이 목표다.

웨스틴조선에서 수익사업의 귀재로 불렸던 장경작 사장은 '체인지 위드 미(Change With Me)' 혁신 프로젝트를 들고 장소를 바꿔 롯데호텔의 포스트에 섰다. '체인지 위드 미'는 변화를 향한 장 사장의 경영철학이 담겼다. 취임 전 2년여간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으며 얻은 결과다.

장 사장은 600쪽에 달하는 <법화경>을 20번이나 사경하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절 수행을 이어왔다. 이 기간은 장 사장에게 하심하는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공부로 남아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법회 찬불가 CD



가격: 2만원(별매 가능)

법회 찬불가 CD는 법회 의식곡과 찬불가를 모아 의식·법회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집회가' '삼귀의' '청법가' '사홍서원' 등 의식곡은 물론 '성불하십시오' '우리도 부처님 같이' '홀로 피는 연꽃' '초파일 송가' 등 모두 22곡을 실었습니다. 합창곡CD의 노래는 자비합창단과 불자가수 장미화, 진미령, 심영자, 정유정, 명용희 등이 불렀습니다.

분다의 경제학 (4)

경쟁 상대도 보살행 대상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전략과 목표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각 경제부처도 올해의 경제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이들 기업 및 정부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도 지겹도록 들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의 행복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쟁취하는 전리품이 되었다. 그러나 경쟁자의 불행을 대가로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명한 생물학자 다윈은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자연환경에 부적합한 종은 도태되고 적합한 종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자연도태설을 주장했다. 이로는 번식을 통해 그것이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자들과 사생결단의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그러나 네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생결단식의 삶이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쟁의 개념 뒤에는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와 무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사성제와 연기의 진리를 증득한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무아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중생이 서로 인연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경쟁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파멸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생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집단 위한 행동도 결국은 자신 위한 것
경쟁 개념 뒤 무지·무명 존재함 알아야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이타행 자세 필요

이론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 및 인간 집단들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래의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비할 것을 강조한다. 경쟁력이란 바로 이 대비책을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생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번영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 및 번식을 보다 강력히 추구한다. 본능적으로 동물의 모든 행동은 자기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혹 자신의 집단을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성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동물의 생존 및 번식 본능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집에 다름 아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무지와 무명에서 비롯된 그릇된 집착이다. 현세의 자아를 존속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한 편으로는 그 과정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자리와 타인의 깨달음을 위한 이타가 목적이며, 그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자리이타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쟁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경쟁의 상대방도 보살행의 대상이다.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경쟁은 우리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굳이 우리가 경제활동의 목표로 경쟁력을 삼는다면 그 때 경쟁이라는 개념은 타인을 도태시키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고객 및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이타행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어야 한다. 경쟁국을 도태시키고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 경쟁기업을 도태시키고 우리 기업만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쟁은 결코 불교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인간의 경제활동이지만,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고 나만 쓰려고 하는 노력이 올바른 경제활동은 분명히 아니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마음을 읽는 비법사주전문반모집
포교와 회원관리의 첩경은 사람마음의 파악에서부터...
철학원개업에 필요한 통합강의
(사주학,상담요령, 대체의학, 처방법, 작명,궁합,택일..)
문의:010-2207-1638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중대,부채,병풍
▶각종 보시용 선물용 봉안식용
▶다포에 그림 그려 드립니다
▶전화주문(작업후 등기속달)
안동하회마을입구
연꽃화가 018-588-5698

사랑골 절 금용사
된장 간장 판매
5년, 10년, 15년, 20년
1킬로당 1만 3천원
보살님 백일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 원하시는 분 받습니다.
011-261-4405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륙	시			
식	49재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대장,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1개월 전문가 완성
◐ 부자와 재벌은 겨울(水)태생이 많다
TEL : 02)2231-8894
H.P : 010-9959-8894
미래음양회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해송빌딩3층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02)720-5682

本.像.事 철학 무료공개강좌
■일시: 3월 25일(토요일) 오후2시
■장소: 진주시 경남문화회관 소공연장
■목적: 철학세계 노~하우 공개
■내용: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요강지 무료지급)
■특징: 30여년만에 마침내 삼라만상 밝혀놓음
■문의: 055)972-5297 010-4587-5297
本.像.事 철학연구소 소장 신윤기(玄玄)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폐 차 상 담
자동차 폐차(긴급속보 압류불문)
과태료+개인+법인 세금체납+고장방치퇴차 법인/개인+부분/고이퇴차소유자+해방불분+골지아른 자동차를 폐차/말소를 못하고 계십니까(허불트럭+승합차+버스가능) (파산신청폐)우선/급폐처환영(합법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최고가 매입/부품판매
(전국타지역가능) 자동차 24시간 무료출장
(국가유공자협동사업장)
(주)대흥산업폐차 02)3471-4444~5 02)521-7000/011-470-3118

아름다운 섬 통영 사량도 상도 불모산 옥녀봉
관음기도 영험도량 불사중
동참 소중한 인연 발원
017-229-865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합니다
02)917-3363(서울정릉)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양봉하는 스님입니다.
빈 토굴이나 빈 사찰, 인연 기다립니다.
(부전도 가능)
010-6399-7546

외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총무(여) 구함니다
011-493-1121

사찰(女)사무원 모십니다
(45세 이하)
041)673-2333
대한불교조계종사찰

공양주 구함
시내에서 20분 떨어진 조용하고 정관이 뛰어난 조계종사찰
▷울산 범서
052)211-9048
017-544-5555

부처님 조성불사에 뜻을 함께한 총무보살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051)721-2337
011-594-1526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안산. 조계종 사찰 50대 이상
018-363-1191

비구니스님이 되실분을 기다립니다
011-727-1514

조용한 별장 관리하실분 착실한 보살님 모십니다다
017-265-6300
013)0272-2007
02)577-000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온양
011-422-6757

물 맑고 자연경관 좋은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에서 조계종 스님으로 인연있는 건당상좌를 두고자 하며, 또한 신심있는 40-50대 공양주를 구함
▷내원암
054-653-1180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광주
031)764-4200
011-779-4496

사찰에서 운전 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
010-2385-3355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733-8786

사찰운영 하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공양주 구함 스님 되실분
강촌 절터 매입하실분
033)263-5904
011-370-5904

법당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이하
전북 고창
063)564-2861

사찰을 운영하실 수 있는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010-3138-48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041)751-27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45~55세
011-9387-0385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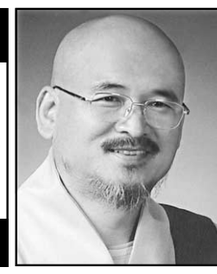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제1기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분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지방분 환영 ●포교활동 하실분 ●스님동참환영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전국만행 ●맨발등산 하실분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신행단체 특강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고, 생일불공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군부대 법당/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635-7008 상담은
018-789-5008 서울739-5008 마산245-2662 중요합니다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프로폴리스 (세계적인 명물)
프로폴리스는 모든 인체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소승이 직접 벌에서 채취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뛰어난 항균 항산화를 작용하는 프로폴리스입니다.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건강기능 양봉원 성구 협장 010-2779-2237

실버타운 소원성취 기도처
산세 수려한 청정도량
저렴한 보시금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편히 모십니다
주지 법사 010-9367-5982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숯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및요사: 60평
● 부지: 1000 (국유지)
● 가액: 7억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25(포접)
● 요사 : 5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6억 (즉시법회가능)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2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9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 부전스님
● 공양주 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스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에서 15~20분거리
● 대웅전 25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600평 신축건물, 고건축 경관수려함 경내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4억(절충가능)

011-530-1808
011-768-8744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휴계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방10개)
● 저수지 부근, 계곡 좋음
● 가액: 3억5천5백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감천면 감천면사무소 앞 (예천읍 20분거리 영주역 20분거리)
● 법당, 요사채,마당,텃밭.- 80평 요사채 (큰방2개, 작은방1개,주방, 욕실, 화장실 2개, 창고) 도배, 장판, 페인트,욕실 모두 새로 했음
● 가액: 5천 3백만원

054)655-4565
010-9596-1225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주생면
● 대지: 200평
● 건물 3동있음
● 4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적합

010-5631-8439
017-401-4939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시장 대형마트 2층. 교통 최요지 지하철2분, 버스2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평수 60평
● 방2개, 시설비 無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051)507-7555

● 위치 : 수원시내
● 종교부지 : 130평
● 법당 : 18평(목조)
● 요사 : 25평
● 가액 : 2억9천 (융자 1억6천 별도)

● 위치 : 부산
● 대지 : 50평
● 법당 : 4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억 8천 (융자 1억5천 별도)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국립공원내 사찰 터 안내

● 위치: 충북 월악산 국립공원내 소재
● 부지 : 52,000평
● 가액 : 5억
● 내용 : 제1월광폭포, 제2월광폭포가 52,000평 안에 소재함

연락처 010-7559-2550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수비 4거리
● 최고 적지 지하철 1분 6층건물 중 6층 107평 옥상에 60여평의 법당
● 가액: 전세 5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500-1777

사찰안내

● 위치: 영천 I.C에서 20분거리
● 대지: 350평, 임야 200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 가액: 2억원(절충가)

054)336-0108
016-831-30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 찰 안 내

사찰안내(전세)

● 위치: 경남 함양군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단청)
● 요사 : 40평, 산신각 : 5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도심인근사찰로 포교지로 적지

● 위치: 경남 사천군 사남면 소재
● 부지 10,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산신각 : 3평
● 가액 : 2억7천만원
● 특징 : 산중사찰로 수행과 기도정진할 도량임

좋은인연 됩니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 법당 30평,대지202평
● 산신각: 10평,창고8평, 요사채26평 조립식 건물,석탑,석등,범종
● 가액: 7천5백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몸만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31)534-1158
019-335-0821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표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 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최고 요지
● 20여년된 사찰,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9천 5백만원 가격절충

0502-244-38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오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500만원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11-599-8476

토굴 안내

● 위치 : 영천IC 5분거리
● 평수 : 104평 중 등기 74평
● 법당 20평, 요사채15평
● 가액 : 4천3백만원 (융자 650만원)

010-9522-245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사찰안내

● 위치 : 서해안이 보이는 고잘(충남지역)
● 대지 국유림 5,000평,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능 (도로포장)
● 가액 : 5억

010-7115-5778

포교당안내

● 위치: 김천시내
● 약 30평
● 전세 월세 가능 시설비 답사후 협의

010-8622-1285

사찰및암자(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및 근교 사실분 · 파실분
● 가액 : 2억, 5억, 10억

남문부동산
010-9695-5114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터안내

● 위치: 남안동IC 5분
● 임야: 13만평
● 평당: 4000원
● 관리지역 8400평, 농림지역
● 평지다수 산중도로양호 골재석 매장 다수

011-351-3264(주.야)

사찰안내

● 위치: 서울 경동시장 부근
● 단독주택 형태, 최근 리모델링
● 법당, 산신각, 방2개
● 가액: 전세 800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8677-089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4개, 창고 50평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2천만원

055)883-8846

수련원안내

● 위치: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 평수: 대지 470평 건평: 51평
● 부속건물: 정자 실외화장실
● 용도: 명상센터, 단식원, 전통찻집
● 가액: 9천3백만원

011-9430-1144

포교당안내

● 위치 : 대부도 내
● 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
● 가액 : 1,000만원 6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010-4215-9119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서구 남부민
● 법당 15평, 방4, 산신각, 용왕각, 종각 화장실
● 부지 399평
● 가액: 2억8천만원

011-580-1407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포교원안내

● 위치: 의정부시청 잔디광장 앞 공영주차장근처 의정부 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일요법회에는 주차비 무료
● 5층 건물중 4층 42평 인등 480등 영가 300위 108불 불사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16년째 포교당 운영중

011-258-6432
031)873-8171~2

사찰안내

● 위치: 성북구 장위동
● 삼존불 108부처,영단 인등 방2개 거실 주방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3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888-013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대지: 400여평
● 건물2동(100여평)
● 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
● 포교원으로 매우 적합
● 가액: 12억

011-587-2275

불자 전원주택

● 위치: 경기 양주시 감악산
● 건평 : 32평 (방4, 욕실, 거실)
● 전망 좋고 아주 조용한 신축건물
● 입주조건 : 방문 후 협의 결정

031)867-1801~2

최고의 사찰 부지

● 山水 최고의 명당 대청호변
● 총4400坪 중 대지 905坪 土木工事 완료
● 가액 : 10억원
● 위치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549-2

연락처 010-8403-9205

임야안내

● 위치: 경남 산청 신원면
● 임야 19800평
● 산세수려하고 자연석 돌많으며 전기인접 계곡접
● 종교시설 및 다용도 가능한 두매산골
● 가액: 1억3천만원

011-570-1317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 250평, 건평75평
구조 : 법당,요사,창고 ㄱ자 형, 현대식 건물
● 산좌 수려,기도도량 최적지 아파트개발 예정지 근처
●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女행자 모집합니다

011-606-197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2~3층 각 35평
● 모든시설 완비
● 가액: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167-1774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 2층중 2층
● 평수 약 45평 삼존불, 영단 별도
● 방2, 거실, 화장실 욕실 별도
● 가액: 보증금 포함 2200만원

018-205-5979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중심도시 (서울 30분)
● 대지: 175평,법당 30평(1층) 요사채(현대식2층건물)
● 가액: 3억2천만원
● 특징: 전통과 현대가 어울린 사찰양식으로 참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016-510-3455

건축허가 득한 포천 토지 422평

● 위치: 포천 직동리
● 광릉수목원 숲과 붙어있음.
● 가액: 2억 2천만원
● 용도: 현재 조립식건물 있고, 건축허가 받았음. 암자, 토굴, 전원주택.
● 소유주와 직접거래

017-328-21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사찰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 3,402평
● 임법당 22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5천만원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서동
● 4층건물 중 4층,각 후불탱화
● 법당 70평, 옥상 사용가,지하철옆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50만원(시설비 1300만원)

054)336-5909
011-9382-4782

토굴안내

● 위치: 강원 영월 중동면 녹전리
● 대지 100평, 전 800평 건평 23평, 3월 준공한 신축건물
● 심야전기보일러, 현대식시설, 조경완료
● 산세 수려한 천하절경으로 수행터 또는 별장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33-378-0327
010-3464-03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부근 2층
● 약 80평(주차시설 완비)
● 법당, 삼존불(동), 후불, 신중탱화 방사 4개, 공양간
● 가액: 일억사천만원 보증금 7천만원(월세,관리비 없음) 시설비 7천만원(절충가능)
● 서울,구리,성남,이천,원주 일대 포교당과 교환가능

011-9788-3306
011-9987-221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관음동
● 건물 : 상가 150평 (2층 주택20평)
● 인구밀접지역으로 포교당 최적지임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100만원
매매도 가능 4억(융자2억포함)

053)981-8889
011-507-77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읍내동 칠곡 동아백화점 네오시티스포츠센터 칠곡 3지구 700m
●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중 지하 60평 2천만원/월60만원 2층 60평 2천만원/월100만원 5층 57평 2천만원/월60만원

053)751-8982
011-528-2875

암자안내

● 위치: 포천 대진대학교 왕방산 선단동 산3번지 동화사
● 대지 200평 건물 45평
● 모든시설완비
● 방 3개
● 전세 2천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절충가능

010-5575-3900
031)536-1578

사찰(급)안내

49재 등 각종 행사 해 드립니다.
(의식전문,부전스님,공양주,사찰사찰터,토지,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계양. 상가2층 38평
● 법당: 18평, 요사: 2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전국 어디든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삼보전에 공양 올리겠습니다.

삼보불사
011-9769-8868
02)736-4589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

소유권 소송 줄이을듯

월정사, 문화재청에 소유권 반환 요청
문화재청, 사찰과의 관계성 입증해야
영동 영국사·남원 실상사 등 소송 준비


문화재청은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 발굴조사를 벌였는데 출토유물에 관하여 사찰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사진은 2003년 2차 발굴조사 당시 모습.

양주 회암사가 소송을 통해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이후 대웅전 앞 석조보살좌상의 발굴조사를 마친 평창 월정사도 문화재청에 소유권 반환을 요청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3월 6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에 공문을 보내 2002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지역 1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13건의 성보문화재에 대해 "소유자를 판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한 잘못된 행정절차를 취했다"며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발굴조사가 월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행됐고 월정(月精)명 암막새 등 월정사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화재가 출토되었지만 30일간의 공시기간 동안 월정사가 소유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점의 성보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상태다.

문화재보호법과 유실물법에 의하면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판명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관할 경찰서장의 통지, 경찰서장의 14일간의 공고, 공고 이후 30일 이내에 국가에로의 귀속 및 발견자와 포장물의 소유자에 대한 가액보상의 절차나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공고 30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해야

월정사는 또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43점의 성보문화재에 대해서도 "공시기간동안 소유권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월정사 발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이상준 연구관은 "1차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문화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이미 국가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차 발굴조사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 연구관은 "2004년 5월 유물 소유자 확인 신고를 받고 그해 7월 월정사에 공문을 보내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회암사지 관련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월정사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정사측에 소송을 지켜보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공고 사실 몰라 국가귀속 빈번

그러나 월정사는 2차 발굴 유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소유권 신고를 했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이미 재출한 상태이기에 이번 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출토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되었다고 해도 사찰과의 관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문제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발굴조사가 끝이 나면 문화재청은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30일간의 공람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공람 공고를 해당 사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사찰에서 이 기간동안 소유권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30일 안에 사찰과 출토문화재의 관계성을 밝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존 사찰의 사찰 명(名)이 기록된 유물까지도 국가에 귀속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월정사와 현재 월정사 다른가

비록 사찰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토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사찰과 유물간의 관계를 문화재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월정사의 경우도 대웅전 앞마당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됐고 출토 문화재가 나왔지만 과거의 월정사와 지금의 월정사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월정사측에서는 수천년동안 월정사가 한 자리 있었고 스님들이 법맥을 이어오며 살아왔기에 출토 문화재가 제작되었을 당시의 월정사와 지금의 월정사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중 소유의 묘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경우 혈맥을 인정해 문중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찰의 경우 법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체성과 전통을 찾으려는 사찰 측과 문화재 보호법을 준수하려는 문화재청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월정사 이외에도 공시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신고를 마친 영동 영국사, 남원 실상사, 울산 동축사 등도 조만간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어서 향후 사찰과 문화재청간의 이같은 분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재청은 2월 1일 의정부 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성곤)가 양주 회암사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있는 출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월 28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회암사지가 현재의 회암사와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고판화' 한눈에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도록 발간


'간경도감판 변상도' 부분.

한국의 고판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됐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주지 선학) 고판화 박물관은 최근 소장품 도록집인 <한국의 고판화>를 편찬했다.

고판화 박물관은 그동안 목판 원본, 목판본 고서, 민화 판화, 중국 년화, 일본 우끼유에, 티벳 판화탕카 등 다양한 분야의 고판화 3,500여점을 소장한 고판화 분야 국내 최고의 박물관이다.

이번에 발간된 도록집에는 삽화 판화와 목판으로 찍혀진 문양 판화, 세화를 비롯한 민화 판화 등 우리나라의 고판화가 삽화의 세계, 문양의 세계, 판화의 세계 등 3개 부분으로 분류되어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선학 스님은 "우리선조들은 유불선 삼교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수많은 목판 작품을 남겼다"며 "그러나 선조들의 찬란한 업적과 예술의 맥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고판화 수집을 시작했고 향후 소장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동양의 고판화 시리즈를 연차적으로 도록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3>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염두에 둔 '웰빙'이 중요한 코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뇌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뇌,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인체의 부분이 건강의 영역으로 집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보를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기억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어 장기의 각 부분이 동작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숨도 쉴 수 있게 하는 뇌는 이제 더 이상 의사나 과학자의 영역이 아닌 일반인의 관심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뇌의 의식이 갖는 심층적 구조에 대해서 탐구한 종교라면 단연 불교를 꼽을 수 있다. 안·이·비·설·신·의로 대변되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이 감각을 나라는 의식으로 발전시키는 의식(말라야식), 그리고 이보다 더 심층적인 구조인 아뢰야식까지 의식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뇌의 구조나 활동을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나서 뇌과학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뇌는 신체의 가장 많은 피가 돌아가고 있고(인체의 20% 이상의 산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 신경세포 다발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열어보거나, 쉽게 손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수술을 통해 절개하지 않고 쉽게 구조나 활동을 보는 방법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들 수 있다.

뇌에 고장이 난 환자가 드럼통과 같은 장치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장이 뇌를 스캔하게 된다.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N과 S극)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장치에 쪼여준 자기장에 의해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의 수소 핵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수소의 핵은 자체가 자전(스핀이라고 한다)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자전에 의해서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다. 공명장치에서 쪼여준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된 핵의 자전이 외부자기장의 없어짐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신호를 내게 되는데, 이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로 처리해서 원하는 인체의 부분을 탐지하는 것이 자기공명 영상장치의 원리이다.

뇌의 부분마다 물의 밀도가 다를 것이므로, 다른 크기의 신호로부터 각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약물에 의

뇌 절개 않고도 구조와 활동 알 수 있어
내면의 소리 영상화할 날도 오지 않을까

한 변화, 심지어는 참선 등의 명상 효과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연구는 명상이 뇌의 긍정적 사고를 하는 부분을 활성화하며, 이 활성화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 지능, 심지어는 면역체계를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건강해 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전에는 불치의 병, 아니 악마의 저주로 여겨졌던 정신병을 비롯한 뇌질환의 이유와 치료법 또한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종교적인 부분, 즉 종교적인 활동에서 느끼는 내면의 소리들을 영상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리 정신의 변화를 영상화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림자일지 모른다.

이러한 그림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나'는 역시 형상화시킬 수 없다는 <신심명>의 한 구절을 생각하게 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일주문



건학 100주년 법회 참석차 방북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은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되는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법회 참석차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방북한다.



중앙승가대 1차 대중법회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3월 13일 중앙승가대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2006학년도 1학기 제1차 대중법회를 봉행했다.



성북구사암련 봉축행사 확정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수 스님은 3월 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위로잔치와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올 봉축행사를 확정했다.



경인불교대학 5기 입학식

경인불교대학 이사장 종연 스님은 3월 9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을 초청해 제5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서울불교전문강당 정기총회

서울불교전문강당 총동문회장 각명 스님은 3월 15일 오후 4시 서울 하림각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11)359-8335



정율 스님 초청 찬불가 공연

군포 정각사 화엄불교대학장 정엄 스님은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정율 스님을 초청해 찬불가 강의 및 공연을 한다.



대불청 전국임원전진대회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중앙회장은 3월 25일 오후 7시 대구불교대학에서 전국임원전진대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취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김성호 제12대 총동창회장은 3월 16일 오후 5시 30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취임식을 거행한다.

연기영 교수 주한네팔 명예 총영사로



동국대 법학과 연기영 교수(사진)는 3월 15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신당2동에 위치한 주한 네팔 명예총영사관에서 주한 네팔 명예총영사로 취임한다. 동국대 법대를 졸업한 연 교수는 현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대표, 아시아태평양교수불자연합회장 등을 맡고 있다.

"화엄의 가르침 미래사회 대안사상"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여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한국불교 선사상의 토대는 화엄입니다. 한암 스님의 이론적 중심도 화엄사상이고요. 화엄은 원융적 무애사상이자 미래사회의 대안사상이 될 것입니다. 한암 스님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을 개최하는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은 "왜 지금 한암 스님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놓았다. 단순히 오대산(월정사)이 화엄사상의 중심처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엄사상이 미래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신념이 확고하다.

"한암 · 탄허 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오대산 가풍은 한국불교 가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스님 아래에서 수많은 한국불교 인재가 배출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한암 스님은 승가오칙(僧家五則)으로 수행풍토를 진작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정신은 묻혀 있습니다."

정념 스님은 선 · 간경 · 염불 · 의식 · 가람수호 등 승가오칙을 통해 한암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것도 한암 스님이 평생을 강조했듯이 실천이 뒤따르는 수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화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림은 간화선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실천적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박3일간의 학림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념 스님이 이렇게 학림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2004년 1월 월정사 주지로 선출된 직후 정념 스님은 월정사에 이어져오고 있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수행가풍 진작을 제1 과제로 내세웠었다.

그래서 한암 대종사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화천군과 함께 한암 스님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작업을 추진하는 등 한암 스님 재조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이 올해 대회를 통해 완전히 자리 잡으면 월정사는 '봄=수행, 가을=문화'라는 코드로 수행과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 정념 스님의 구상이다.

"겨울과 봄에 열리는 단기출가나 가을 문화축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학림이 뒷받침되면 월정사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수행포교도량이 될 것입니다."

월정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수행학림은 3월 17일부터 4월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4월24일에는 '한암 대종사의 사상과 그 영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현대불교 붓다뉴스(news.buddhapia.com)나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를 참고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농사지으며 공부 지역 포교사 활동 계획"

조계종 제11회 포교사고시 수석 김재증씨



"대학시절 불교에 잠시 입문했다가 다시 회귀하는 마음으로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11회 조계종 포교사고시에서 수석 합격한 김재증(48 · 묘청 · 사진)씨. 지금은 전남 영암의 평범한 농군이지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전산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김씨는 "앞으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 경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용수 기자**



광주 원각사 청년회 대구 보현사 청년회 초청

매년 상호방문 법회 개최

영 · 호남 청년불자들이 만나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김선규)는 3월 5일 대구 보현사 청년회를 초청해 '만남의 날' 법회를 개최했다. 60여명의 청년불자가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청년불자는 활짝 피어난 꽃으로 원각의 꽃, 보현의 꽃은 물론 전국 청년불자들이 하나되어 한국불교를 빛내달라"고 당부했다.

법회에 이어 간담회에서 광주 · 대구 청년불자들은 매년 상호방문 법회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곡성 성륜사를 참배했다.

대원불교대학 2006 입학식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은 3월 5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대학 및 대학원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로 개설된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생을 포함한 230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대원불교대학은 이날 졸업식도 함께 열고 총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형 스님 초청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육군 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3월 4일 훈련소 법당에서 소림정사 주지 지형 스님 초청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정두근 육군 훈련소장 등 3천여명의 장병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수계의식에 이어 소림정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청주불교신행회 입학식



청주불교신행회는 3월 7일 동산불교대학 청주지회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학장 혜국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서 교양대학을 개설한 만큼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말했다. 청주불교신행회는 소년원 상담, 혜능 보육원 자원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제5기 입학식



대한불교삼계종 산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학장 일초)은 3월 7일 제5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35명의 신입생을 비롯해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입학식에서 학장 일초 스님은 "의식의 참뜻을 새기며 배워 익혀나가야 한다"며 "철저한 수행과 신심을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화불교대학원 제1회 수료식



삼화불교대학원(원장 혜인)은 2월 25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1회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는 삼화불교동문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회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수료식에서는 또 졸업생 대표 월곡 스님을 비롯해 51명이 수료증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장례지도사 양성
불교장례문화학과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과 정	과 목	
1 년	· 장례학개론 · 상장례민속학/역사 · 종교와 불교 · 실습	· 법의학 · 장묘관련법규 · 장사법위주 · 실습
2 년	· 공중보건학 · 장례식장경영론 · 생활과 풍수 · 실습	· 시신위생처리및 관리학 · 현행장묘제도의제반적고찰 · 불교정토학 · 실습
지 도	· 김일무교수(서울보건대학)	

2.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7시
3. 장 소 동산법당

※특전: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인각스님께 배우는
2년 과정 불교바라작법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교과목	바라춤... 바라춤은 동(銅)으로 만든 악기를 양손에 들고 춤을 추는데 ①천수바라, ②사다라니바라 등 나비춤... ①향화게작법, ②도량게작법, ③다게작법, ④삼귀의작법 등
지 도	· 인각스님(태고종 봉원사)

2. 강의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3시
3. 장 소 동산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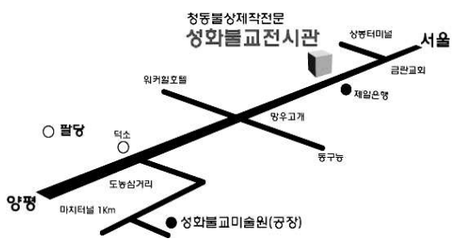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의식교육원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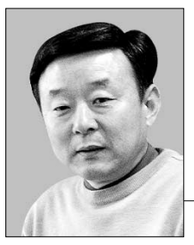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대진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안전불감, 실감하자

십 년 전 독일 여행 중 벌어진 일이다. 독일 땅에 발 디딘 첫날이다. 밤 열시 경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다. 오랜 비행 뒤끝이라 숙소에 짐과 소지품을 던져놓고 방 열쇠를 프론트에 맡기고 호텔 밖으로 나왔다.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후 낯선 현지 사람들과 수작이나 부려볼 심산으로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열한시 1분전, 주점 입장시간 마감직전이다. 열한시 정각이면 대통령이라도 입장불가다. 퇴장은 자유롭다. 아슬아슬하게 입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새벽 두 시에 불쾌한 얼굴로 호텔에 돌아왔다.

프론트에 가서 열쇠를 달라고 하니 확인증을 보여 달란다. 그게 뭔데? 확인증이고 여권이고 소지품을 모두 방에 던져놓고 나왔다. 나는 조금 전 열시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고 투숙한 한국인이다. 날 모르겠느냐? 몹시 피곤하니 빨리 키를 내놔라. 그러나 그런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권을 꺼내 숙박계를 또박또박 적었지만 거기 적힌 자료가 나를 증명하지 못했다. 프론트에서 지급한 작은 카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걸 방에 던져 놓고 나왔다. 철제 로봇처럼 생긴 직원 녀석은, 이튿날 아침, 회의를 거쳐 확인되면 당신에게 열쇠를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결국 나는 호텔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독일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너희들 참으로 한심하다. 서비스 정신이 형편없다. 다시 이 호텔에 오나봐라. 밤새 소파에 쪼그려 자며 잠꼬대처럼 그렇게 끙끙거렸다.

엄격, 정확, 견고, 점검, 확인 또 확인, 이것이 독일인의 특성임을 안 것은 여러 차례 수업료를 낸 이후다. 객실 출입문은 감옥의 문만큼 튼튼하다. 독일어에는 허용 오차, 융통성, 설마, 이정도쯤이야, 대충대충, 남이 안 보는데 어때? 이런 말이 없는 듯하다.

며칠 전 롯데 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청년이 미사일처럼 허공으로 발사되어 석촌 호수에 빠져 숨졌다. 창창한 청춘이 순식간에 소멸되었다.

여기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 재해도 마찬가지다.

봄날이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있다. 어디서 무엇이 터지길 기다리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엄하게 대비하자. 산불, 홍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늘 탓만 해선 안 된다. 대형 교통사고도 낌새를 감추고 대기 중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꺼림칙한 것은 반드시 불행과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일 간 묵으면서 호텔 보이 녀석에게 당한 첫날밤의 수모를 갚을 옹졸한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를 발견했다. 로비 화장실에 가니 까치발을 해야 소변을 볼 수 정도로 변기가 높다.

키 큰 독일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지배인을 데리고 와서 시연을 해가며 따졌다. 그러자 지배인 왈, "당장 높이에 맞게 고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배인은 "1주일의 시간을 달라"며 "대신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호텔에 묵는 여행객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했다.

그 때를 회억하니, 목석처럼 굳은 자세로 같은 대답만 해대던 직원 녀석이 그립다. 자기 임무에 투철한 정신이 존경스럽다. 지금쯤 동양인 체형에 맞게 화장실 공사는 끝냈겠지.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투구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유비무환, 오래된 격언을 다시 새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대학생은 이 사회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따라서 어떤 종교들은 이들 대학생들에 대한 선교의지를 전쟁에 임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캠퍼스선교 120년을 맞아 올해를 선교 재부흥 원년으로 삼고 오는 6월에는 한달간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선교대회를 열어 사실상 한국의 대학캠퍼스를 모두 미션스쿨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 불교계의 대학생 포교전략은 어떠한가. 45년이라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학생불자들의 연합체인 대불련의 이름으로 겨우 대학생포교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식의 위안을 삼고 있는 정도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불련 각 지회의 회원은 대략 20~30명 정도다. 그나마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대학생 포교전략 제대로 짜야

대학교 불교학생회들은 나름대로 새내기 가입과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컨대 1:1 가두포교, 현수막 포스터 홍보, 각종 친목도모 또는 문화행사 계획 등이 그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포교전략은 기독교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대학생 포교,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두 가지만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추행 국회의원의 이름보다 개그프로의 유행어, 진리 종교 자아발견보다 취업 이성교제 술이 더 큰 관심사인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나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분석하여 새내기들의 불교동아리 가입과 기존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유도할 보다 입맛 당기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각 대학 불교학생회와 인근사찰의 결연 및 사찰체험, 감성적 중독증에 빠져 아집과 사회의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타종교와 불교의 차별성 부각 등을 통해 불교에서 자신과 인류사회의 밝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종단, 사찰, 부모, 동문들의 헌신적인 관심과 후원이 시급하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공명선거

고관(高官)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바른 행위를 닦아야 한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라. 〈발보리심론〉

5 · 31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공명선거 대책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보인다. 여야의 관심은 정치적 비중과 파장이 큰 광역단체장 선거에 쏠려 있고, 지방권력 교체를 외치는 여당의 '후보 징발' 무리수가 그것. 이뿐만이 아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는가 하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중간모집책까지 두고 당원을 끌어 모으며 금품수수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현역 자치단체장이 선심행정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사범 242명을 적발,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94명을 기소했다. 규모로는 벌써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2.6배가 늘어나 당내 경선, 정당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당비 대납사건 등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관권, 금권에 오염되면 나라의 기본이 흔들린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당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후보 선출과정의 비리를 철저히 응징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공명선거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등 내부 고발자와 신고자 보호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노병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마애불상이 경찰서 간 까닭

마애불상을 놓고 사찰과 지역주민의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서 기사를 훑어보다가 '인간들 때문에…경찰서 끌려간 부처'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유심히 읽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대구에서 있었다. 불상은 아산시 배미동에 있었던 것인데 땅주인이 대구 성불사 스님에게 이전해서 보냈다고 한다. 문제는 그 이후 배미동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거나 죽거나 했다. 배미동 주민들은 마을 수호신이었던 마애불상이 없어져서 액운이 닥쳤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성불사에 모셔져 있던 마애불상을 임의로 가져가려 했고 결국 주민 2명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의 마애불상은 대구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실려와있는 상황이다.

이유가 어찌됐건 이해는 가지만 마애불도 불상이고 사찰에 안치된 만큼 예불의 대상이다. 배미동 주민들의 사정이 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운과정도 거치지 않고 도둑질하듯 강탈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불사에서도 배미동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자비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하셨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할 불제자가 마애불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중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강진원(서울 등촌동)

현각 스님 기사 인상 깊어

지난 568호 불자들면에 실린 현각 스님의 인터뷰 기사 '나의 전생은 항일독립군이었습니다'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

설령 불자라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 중에서 '전생'이니 '윤회'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어렴풋이 윤회를 인정하는 불자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전생과의 강한 연결고리를 느끼거나 체감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현각 스님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내며 우리나라와의 강한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윤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더불어 한 외국인 스님조차 애국가를 그토록 절절하게 받아들이는데, 과연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3 · 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나 생각하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애국가를 들으며 우리나라를 지금에 있게한 순국선열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올해 3 · 1절에는 아들에게 3 · 1절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며 함께 태극기를 게양해야겠다.

문세현(충남 공주시)

교도소에도 노래방 기기 보급했으면

속세에서 지은죄가 많아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재소자이다. 교도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법회시간에는 불교성가대에서 활동하며 음성공양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찬불가 반주를 할 수 있는 피아노나 음반이 마땅치 않아 매끄러운 법회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던중 현대불교신문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서 찬불가 노래방 기기를 군법당에 보급했다는 기사를 읽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교도소에도 저런 찬불가 노래방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굳이 피아노가 없더라도 반주 기기만 있다면 다양한 찬불가 음성공양을 통해 보다 원활한 법회 진행은 물론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들려줄텐데 말이다.

이곳 교도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고 복역하는 외롭고 힘들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들이 찬불가를 마음껏 부르면서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많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2004-8211, 2 / 팩스 02)737-0697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이순신 일대기’ 美 감동물결

미주 금강경독송회 영문판 무료 배포
조지워싱턴대 등서 교재 활용 의향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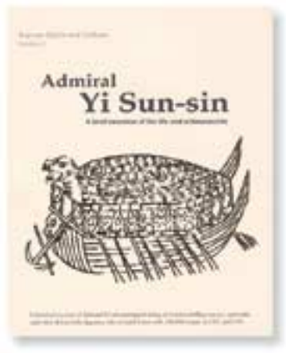
미주 ‘금강경독송회’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영문판 책자를 제작해 미국전역에 무료보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재미동포 불자모임 ‘금강경독송회’는 초판 <이순신 장군>(60쪽) 6000권을 발간해 미국 육사와 공사, 해사, 국무부, 각 대학 한국학과 교수 등에 무료 배포했으며 최근 5만권을 추가로 인쇄했다.

‘금강경독송회’ 뉴욕 본부의 박경원(‘한국정신문화알리기’ 프로젝트 책임자, 46)씨는 “금강경독송회 자체를 알리기보다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나눠주기로 마음을 모았다”며 “회원들이 후원금을 조금씩 모아 책자를 제작 ·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현재 조지워싱턴대, 위튼버그대, 암스트롱유니버스티의 역사학 교수들이 수업 교재로 이 책자를 사용할 의향을 밝혔고 메사추세츠(MIT)대학원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 교재로, 텍사스 A&M대학에서는 역사 홍보자료로, 예일대는 재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전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초판이 발간되자마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책을 추가로 보내달라’는 등의 메일이 각 지부로 쇄도하고 있으며 관련 웹사이트들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링컨이나 워싱턴보다 더 지극하다’ ‘기적같은 인물인 이순신의 전기가 여태 세계사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등의 소감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금강경독송회’에서 발간한 영문판 ‘이순신 장군’.

2005년 9월 ‘금강경독송회’ 김재웅 지도법사가 회원들에게 “한국의 정신문화가 해외에서 너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사속의 훌륭한 위인들의 삶과 정신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뜻을 밝힌 후에 이 사업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금강경독송회’는 <이순신 장군>에 이어 선덕여왕, 계백장군, 신사임당, 원효대사, 세종대왕 등 영문판 위인전을 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양의 훌륭한 사상인 ‘충, 효, 의’를 소개하기 위해 효녀심청, 손순의 돌종, 흥부와 놀부, 의좋은 형제 이야기 등도 외국어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은희 기자

스리랑카 스님 영국훈장 받아

바지락나나, 관용 정신 퍼뜨린 공로 인정

영국 나야크(Nayake)승단을 이끌고 있는 바지락나나(Vajiragnana) 스님이 대영제국 훈장’O.B.E’(Offic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를 받았다.

‘O.B.E’ 훈장은 매년 영국여왕의 탄신일을 기념해 세계적인 공로를 세운 인물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바지락나나 스님은 종파를 초월해 관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종교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바지락나나 스님은 1943년 스리랑카 히폴라의 한 사찰에서 사미계를, 1949년 칸디의 말와투 사원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66년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런던불교사의 부주지가 되어 영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후 1984년 런던불교사의 주지로서 불교 교육프로그램의 부활 및 확대에 힘썼다.

1987년에 바지락나나 스님은 범종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 9개 종교가 참여한 범종교 네트워크는 영국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서 각 종교의 대표기구를 포함한 80개 단체를 포괄했다.

1999년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아동후원단체인 ‘라훌라 트러스트’재단을 설립했다. ‘라훌라’재단은 스리랑카, 네팔, 케냐 등지의 빈곤한 아동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은희 기자

평화걷기 캠페인 참여 불자
18일 보스톤 평화시위 합류

지난 2월 19일 미국 레버렛 ‘불교평화탑’에서 시작된 평화걷기 캠페인에 참여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3월 15일 메사추세츠주 힝햄에 도착해 ‘평화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이곳에서 ‘평화와 평등을 위한 지역 · 국가간 방향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힝햄 평화 프로그램’에는 메사추세츠 주정부 관계자들과 교회성직자 및 시민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평화걷기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20년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시장단’프로그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3월18일 제2차 걸프전 발발 3주년을 맞아 보스턴에서 열리는 평화집회에도 참여한다.

이은희 기자

태국 우타마 스님 96세 생일기념 수계식

태국의 고승 파라 우타마(Phara Uttama) 스님이 자신의 96세 생일을 기념해 3월2일 태국 상클라부리의 왕카마을에서 수백명의 수계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전통의상을 입은 천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공양물을 들고 마을에서 사찰까지 줄을 잇는 광경을 연출했다.

이전에 파라 우타마 스님은 개별적인 수계를 해오다가 지난 해부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단체로 수계식을 거행하게 됐다.

한편 파라 우타마 스님은 30여 년 전 왕카 마을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왔고 최근에 그중 약 2000명이 태국국적을 취득했다. 이 마을은 몬족의 문화와 풍습을 고수해오고 있다. 몬족출신의 우타마 스님은 태국에서 수십년간 불교를 포교해 왔다. 이은희 기자

러 부랴트에 사찰 ‘데바진’ 개원

러시아 불교의 중심지인 부랴트 공화국이 최근 10년간 불교건축군 공사를 진행, 사찰 20여 개를 새로 건립하거나 복원하는 등 불교 중흥에 나서고 있다.

‘인테르팍스’통신은 부랴트 공화국이 지난 2월 울란-우데의 근교에서 새로운 사찰 ‘데바진(Devazhin)’을 개원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부랴트 공화국에서는 최근 불교사찰들이 연이어 건립되고 있다. 사진은 부랴트 공화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이볼긴스키 다찬.

‘데바진’사찰 주지 바이르 스님은 “2만 5000여 명의 신도들이 기와불사에 동참한 덕에 사찰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4개월간의 외벽공사가 끝나고 몽골과 부랴트 조각가들이 40여 구의 불상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데바진’사찰은 최근 부랴트에서 대규모의 사찰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개원한 것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랴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 서쪽으로 30㎞ 떨어진 곳에는 시베리아에 진출한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인 이볼긴스키 다찬(사원)이 위치해 있어 이 지역 일대가 대규모 불교단지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부랴트 불자들은 이볼긴스키 다찬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부랴트 공화국 정부는 부랴트내의 불교사찰 건설 및 복원을 위해 올해 연방 예산에서 약 100만 루블의 지원금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은희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변화하는 말레이시아 불교

한국의 불교계 언론에 소개되는 해외의 불교 소식은 대부분 한 인터넷 사이트(www.buddhistchannel.tv)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한국 불교도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이 사이트가 크게 기여하는 셈이다. 놀랍게도, ‘전세계 불교 소식을 다루는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사이트를 설립 · 운영해온 주체는 흔히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불교단체 ‘불교홍법회(佛教弘法會; The Buddhist Missionary Society)’이다.

‘불교홍법회’는 다민족 · 다종교 · 다중언어 사용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영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대불사(大佛寺; Buddhist Maha Vihara)’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이 이끄는 불교홍법회
복지 · 화합 · 인터넷 포교 모범으로 우뚝

그런데 이 불교 홍법회 본부가 있는 대불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불교홍법회와 대불사를 5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담마난다(K. Sri Dhammananda) 스님의 책 두 권을 우리말로 번역 · 출판한 인연이 있어 2002년 8월에도 개인적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담마난다 스님을 만나 활동 상황을 어렴풋이 느낀 적이 있었지만, 지난 3월 4일에 다시 방문하여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부처님 제자로서 각자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일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전 대학교에 불교학생회를 조직하여 후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무슬림 · 불교도 · 개신교 · 가톨릭 · 시크교도 청소년 수천 명이 참석하는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며, 미혼모와 사회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인신매매로 끌려와 핍박을 받거나 버려진 인근 국가 출신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슬람과 가톨릭 신자들도 매우 큰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말레이시아 인구 중 불교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정부의 장차관에도 불자 여러 명이 진출하는 등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담마난다 스님의 상좌로, 연로한 은사스님을 대신해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는 담마라타나(Dhammaratana) 스님의 얘기다.

20여 년 전 그곳에 머물던 시절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불교가 약진하고 있다’는 느낌은 쉽게 받게 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最高)의 빌딩’으로 알려졌던 쌍둥이 건물 KLCC 4층에 있는 대형 서점 종교 코너에서도 불교 서적 수백 종을 찾을 수 있다.

주로 티베트 불교 관련 서적이 많지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 출판된 책들도 적지 않다. 시내 중심가의 대형 서점에 이처럼 불교 서적이 많아진 것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이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수요 증가’와 ‘말레이시아 불교계의 발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힘사(Ahimsa; 비폭력)’라는 범상치 않은 이름을 가진 식당에 우연히 들렀는데, 지배인의 명함 뒷면에는 “당신의 몸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며, 동물 살생에 반대하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자!”는 구호가 인쇄되어 있어 식당 주인이라기보다는 시민 단체 활동가의 느낌을 강하게 준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사찰인 대불사에서 말레이시아를 넘어 동남아 여러 나라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파하고, 인터넷 상에서 세계 불교계를 하나로 엮어내는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회가 서린다.

한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조흥은행을 신생 신한은행이 흡수 합병하는 데서 보듯,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꼭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며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면 미래가 없다. ■자유기고가

공 고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종령 제 603-1호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의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 여러분! 병술년(丙戌年) 새봄을 맞이하여, 사찰 운영과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새봄의 기운과 함께 일익 화창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 그동안 우리 종단은 법흥 종정스님 입적 이후 혼미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증조 원효성사의 화쟁정신을 망각한 몇몇 지각없는 자들의 종권에 대한 야망으로 종단이 양분되어 심지어 법정시비 까지 야기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일체 시비 분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 이제 종단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고 화합된 종단을 이룩하라는 큰 뜻으로, 2005년 12월 14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비합 278 임시종정 선임”**결정으로 노납(老衲)이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일체의 분파(서울, 부산) 관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종정중심제의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이 정상화 될때까지 공정하고 민주적인 신념으로 임시종정체제로 운영할 것을 천명합니다.

5. 임시 종정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임시종정체제에서는 모든 종무운영과 그 집행은 종헌, 종법에 따라 시행한다.

나. 모든 종무집행의 인장은 '임시종정' 직인과 실인(사인)을 사용하며 그 이전(임시종정 선임 판결이전) 시비 당사자들이 사용한 모든 인장은 무효임을 공고한다.

다. 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 종무사무소를 경주시에 둔다.(단, 종단이 정상화 되면 협의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옮길수 있다)

라. 전국의 본 종단 소속 사암을 지역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균형있게 교구를 편성하고 각 교구도 철저하게 조직하여 교구다운 교구로 활성화 한다.

마. 기존 등록사암과 입적(入籍)승려는 ‘서울측’(송무진측)이든 ‘부산측’(최덕산측)이든 신고만 하면 되고, 현재 분파되어 있는 여타 단체와 사암들 또는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암이나 승려들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내면 심사후 긍정적으로 포용한다.

바. 새로운 화합으로 종단재건의 차원에서 모든 파벌관념을 초월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재교육을 통해서 종도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사. 종전과 같이 종단 임원 일부의 전횡으로 운영되던 종단을 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주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아. 금후 종헌종법에 따른 원만한 정상종단 구성을 위해서 전 종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일시와 장소는 추후 서면통지 및 신문공고토록 한다.

자. 위의 각 항목에 대한 시행은 신문공고일로부터 한다.

▌직인 ▌계인 ▌실인(사인)

불기 2950년(2006년) 3월 8일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대관(벽송)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502-2번지 대원사 내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무소 054)776-1757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569 호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매주 만나 기쁘다는 김종원씨. 김씨는 '사랑의 밥차'가 행복을 나르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향기도반의

'사랑의 밥차' 요리사 김종원씨

조직폭력배 생활 접고 18년간 '사랑의 밥차' 운행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요… 어르신들 행복할 때 보람"

손부터 살폈다. 솥뚜껑 같다. 왼손바닥 군데군데에 칼자국이 선명하다. 소싯적 주먹을 썼던 손.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이 밝다. 조직폭력배의 어두운 기억은 산화되고, 요리사의 맛깔스러움이 손금마다 배어있다. 손이 그간 살아온 인생을 말하는 걸까? 손끝에서 억척스런 그의 삶이 묻어났다.

 # 흐릿한 기억속으로

'사랑의 밥차' 주방장 김종원(47)씨.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야만 했던 유년기를 말했다.

"자세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연탄 화덕 공장을 했다는 것과 엄마가 나를 업어줬던 기억,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학교 담벼락 길을 함께 걸었던 것만이 어렴풋이 생각나요."

너무 어렸다. 어머니의 이름조차 몰랐고,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집나간 엄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종원이 엄마가 야밤에 부산으로 도망갔데.' 몸서리치게 어머니가 그리웠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향 광주를 떠났다. 엄마가 있다는 부산. 무작정 열세 살 어린이는 부산행 버스 의자에 몸을 몰래 숨겼다.

 # 무서울것 없었던 주먹 인생

부산 생활은 힘겨웠다. 식당에서 일한 돈도 떼이고, 고속버스 터미널 깡패들에게 얻어맞으면서 감금도 당했다. 그러다 접어든 조직폭력배 생활. 스무 살의 청년 김씨는 무서운 것이 없었다.

"스물 여덟 살까지 주먹을 썼죠. 중간 보스까지 올라가니, 제가 하는 말이 '법'이었어요. 늘 칼 맞고 머리 깨지는 생활이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다.

무도회장 관리를 놓고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싸움이 붙었다. 당시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날 정도였다. 질펀한 싸움판이 벌어졌고, 김씨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3일 만에 깨어났죠. 일어나보니 온 몸에 붕대가 칭칭 감겨있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지요. 1주일간 병실 신세를 지며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퇴원하고 큰 형님에게 애걸했죠. 저를 놓아달라고…."

 #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불효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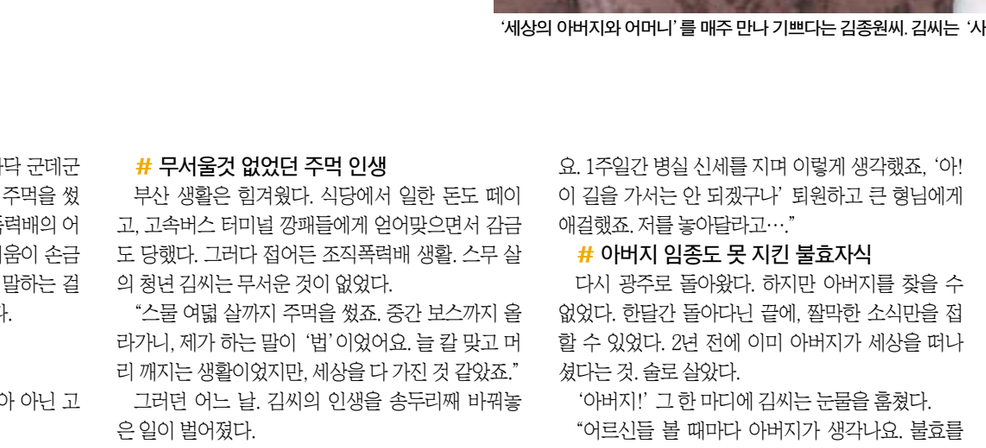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한달간 돌아다닌 끝에, 짤막한 소식만을 접할 수 있었다. 2년 전에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 술로 살았다.

'아버지!' 그 한 마디에 김씨는 눈물을 훔쳤다.

"어르신들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불효를 많이 했는데…. 많이 다퉜지요. 철없이 아버지를 밀쳐 상처를 입힌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 세상의 아버지 · 어머니를 만나다

1989년 겨울, 김씨는 서울로 올라왔다. 건강원을 차려 돈을 벌면서부터 인근 고아원과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뵙듯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였다.


올해 초 경남 하동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밝게 웃는 김종원씨(왼쪽에서 세번째).



'사랑의 밥차' 앞에서 요리를 내보이는 김종원씨.

"너무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끼니를 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길로 곧장 독거노인, 고아원, 장애시설을 찾아 나섰지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비록 한 끼지만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자'고 마음을 먹었지요. '사랑의 밥차'를 하게 된 계기였지요."

그렇게 '사랑의 밥차'는 시작됐다. 차에서 요리도 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도 해드릴 생각에서였다. 봉사가 늘어나자, 김씨는 아예 2004년에 사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대형버스를 구입했다. 비상금, 대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모아서.

"18년간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어요. 경기도 나눔의 집, 분당 정성노인의 집 등 기억조차 할 수 없지요.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간 셈이죠."

 # 어르신들 앞에선 귀염둥이 막내아들

밥차는 음식만 나르지 않는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웃음까지 선사한다. 단 한시간이라도 웃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김씨는 어르신들의 '막내아들'이 되곤 한다.

"곤란한 경우도 제법 있어요. '나 이거 이빨 없어 못 먹어' 하며 한 끼 식사를 거절하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맥이 빠지곤 하죠. '어떻게 할까?' 대뜸 이렇게 말해요. '엄마! 엄마! 놀랬지? 히히히' 너스레를 떨면, 어르신은 금세 웃으세요. 그리고는 제가 '엄마! 아 입 열어, 나도 한 입 넣어줘'하면,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지요."

어르신들이 행복해할 때, 보람을 느낀다는 김씨. 어르신의 마음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던 미안함이 녹아들 때 비치는 미소에서 끝없는 기쁨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봉사가 끝날 때는 눈물 겨워요. 자식 같은 저한테 비닐봉지에 이것저것 싸서 주는 어르신, 꼬깃꼬깃 접은 돈을 바지춤에서 주섬주섬 꺼내 주는 어르신, 돌아가신 부모님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오지요."

 # "가족공동체 일구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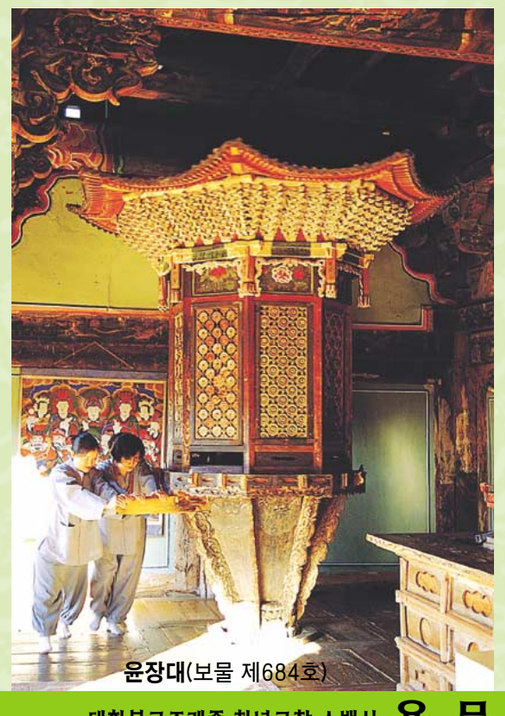
취재가 끝날 무렵, 김씨는 꿈 한 가지를 내비쳤다. 독거노인을 모시고 가족공동체를 일구고 싶다는 것. 매주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 공간이 한계가 있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자주 못 올리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언제든 찾아와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상설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김씨의 희망이다.

"밥차는 정기적으로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보통 한번에 50만원 정도 들어요. 차가 크니 기름값이 30만원이 넘지요. 음식재료비보다 유류비가 더 드는 셈이죠. 유류비가 없어 밥차가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근근이 밥차의 경비를 유지해오는 것이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힘이 나요. 제가 요리한 음식을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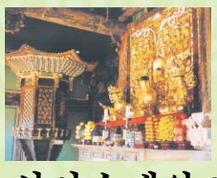
봉사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김씨. '가족공동체'를 만들려는 바람 때문인지, 늦은 저녁 식당일을 하면서도 그의 표정은 한없이 밝았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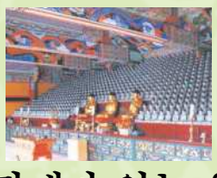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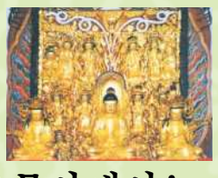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www.yongmoonsa.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9> 운거선사, 왕자출신 의천을 맞으면서

수도권 주변의 번듯한 사찰은 음으로 양으로 왕실 내지는 왕릉과 관계있는 원찰들이다. 그것도 못되면 왕족의 위패 내지는 하다못해 왕자의 태실 등이라도 봉안하고 있어야 제대로 사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 '선불교 암흑시대'의 실상이었다.

왕릉 앞의 사당인 정자각(丁字閣)은 사찰건축에도 영향을 미쳐 통도사 대웅전은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되살린 T자형 법당으로 조성되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는 정치와 불교가 서로 배려하며 타협적 공생을 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왕족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승려의 영접자세가 어떠했는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좌파(?) 사찰'들은 선종의 정체성과 자존심의 유지방편으로 '하마비(下馬碑)' '누각밑을 통한 진입계단' 등으로 그들의 비례(非禮)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고 경책하고자 애썼다.



송나라와 고려는 형제지국으로 문치(文治)를 꽃피우면서 서로를 배려하였다. 그 때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義天)이 출가를 하게 된다. 물론 출가이후에도 모두가 왕자신분으로 그를 대접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의천은 1085년 송나라로 유학하여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였다. 그런데 그때도 누더기를 입은 납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만행을 떠나면서 송나라 황제에게 '천하의 총림을 두루 다니면서 법을 묻고 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나라 조정에서는 궁중의 행사와 의전을 담당하는 관리를 붙여서 의천을 수행(隨行)토록 했다. 승려의 운수행각인지 왕실의 행차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찰 역시 왕의 출행의전에 준하여 맞이하고 보냈다.

그런데 선사중의 선사, 납자중의 납자인 운거요원(雲居了元 1032~1098)선사가 머물고 있던, 강소성 진강부의 금산사는 그게 아니었다. 총림의 방장인 요원선사는 법상에 앉아서 의천납자의 삼배를 받았다. 당황하여 놀란 것은 의천이 아니라 황실에서 특별파견된 수행비서다. 약간 찢어지는 듯한 그러면서도 불쾌함이 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러십니까?"

운거선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내 눈에 의천수좌는 왕자가 아니라 고려의 납자일 뿐이요. 승려가 총림에 입방을 하면 산중의 어른에게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게 우리 법도입니다. 총림의 규범이 이와 같으니 내가 바꿀 수가 없소. 각각의 성씨를 가지고 출가하지만 이후에는 모두 석씨일 뿐입니다. 스스로 왕씨라고 하려고 든다면 불법에 맞지 않소이다."

하지만 황제가 신신당부하면서 보낸 관리는 길길이 뛰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왕실을 업신여기고 관례를 무시하면서 여타 절과는 다르게 대접하는 것을 법도로 삼는다면 어찌 그것이 걸림없는 선지식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

고려왕자 의천, 송나라 수행비서와 함께 만행
왕실의 관례 깬 요원선사 기개에 '묵묵부답'

그러자 짧게 한마디로 대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를 굽히면서까지 세속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결국 정안(正眼)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무엇으로써 송나라 총림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그 어느 기록에도 의천의 당시 태도와 속마음에 대한 반응을 언급한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왕의 그릇이니 '기개 있는 선지식을 이제사 제대로 한 명 만났구나' 하고 흔연히 그 가르침을 받들었을 것이다. 그가 속물이 빠진 제대로 된 승려라면 입이 열 개 있어도 당연히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 기록이 남아있다면 안 되는 도리인 것이다.

고추는 매워야 하고 소금은 짜야 한다. 왕실은 왕실다워야 하고 절집은 절집다워야 한다. 관리는 관리답게, 승려는 승려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제 맛이다. 그 모든 맛을 한 혀에 접할 수 있는 이 일화는 드물게 맛볼 수 있는 명 요리 장면이기도 하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출가에 공덕이 따로 있겠는가

■ '유마경' 간경으로 배우는 '부처님 출가의 의미'



30여 재가불자들이 성상현 법사의 <유마경> 간경에 앞서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친아들 라훌라에게 묻는다. '출가하면, 어떤 공덕과 이익이 있는가?' '도리에 맞는 말로 출가의 공덕을 설명했다'는 라훌라의 대답이 끝나자, 유마 거사가 말한다. '출가 자체에는 공덕도 복덕도 없다. 진정한 출가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해 올바른 행을 부지런히 닦는 거다' 출가자 라훌라가 재가자 유마에게 혼쭐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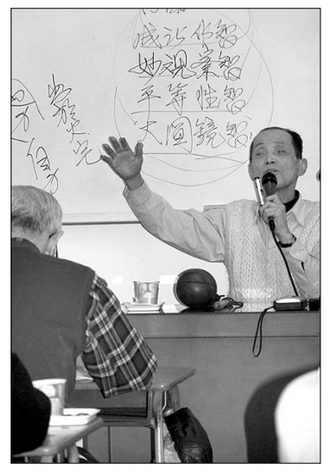
<유마경(維摩經)>. 주인공은 유마 거사. 부처님도 10대 제자들도 여기서는 조연이다. 그럼, 수행에는 출 · 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출가자가 아닌 거사를 정면에 내세워 '출가'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운현동 운현타워빌딩 107호 대한불교보림회 강의실. 보림회장 성상현 법사(72)가 <유마경> 제자품(弟子品)을 강의하는 동안, 경전 자체에는 출가가 바로 '마음출가(心出家)'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출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중간도 아닙니다. 모든 분별을 여읜 열반에 이른 경지가 진짜 출가입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안 깎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체의 상(相)을 끊어낸 세계는 출가의 공덕이 많고 적음도, 있고 없음도 여읜 자리입니다. 무슨 출가의 공덕을 찾으려고 합니까?"

강단 있는 성법사의 어투. <아함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 7보(寶) 경전을 통째로 외워 강설할 정도로 간경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성법사의 강의는 단순한 경전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았다. 읽고 왼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의 힘이 읽혀졌다.

"<유마경>의 핵심은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대화에 있어요. '자식이 병들면 부모가 병이 없어도 아프게 되는 것처럼, 보살은 병이 없어도 중생이 앓기 때문에 보살도 앓는다'는 경구지요. '둘이 아님' 즉 불이의 가르침이 <유마경> 가르침의 고갱이입니다."



대한불교 보림회장 성상현 법사의 강의 모습.

분별 여읜 열반의 경지가 진짜 출가
시간과 공간 초월해 모든 相 끊어야

한역 <유마경> 원문을 한 자 한 자 뜻을 새겨가는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연륜 만큼이나 다양한 수행을 해온 이들은 재가불자의 경전 <유마경>의 깊은 뜻을 절감하고, 재발심하는 낯빛이 역력했다.

13년째 성법사에게 간경수행을 지도받고 있는 이광노(62 · 서울 사직동)씨는 <유마경>을 '무협지'로 비유했다.

"<유마경>은 다른 대승경전과 달리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유마 거사는 어려운 이론을 이야기하지도, 엄숙하지도 않아요. 조금은 짓궂지만 너무도 강렬하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니, 재가불자로서 통쾌하기까지 해요. 재가자로서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하니까요."

성법사는 마지막으로 재가자가 간경수행으로서 <유마경>을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유마경>도 방편입니다. 그 안에서 실상(實相)을 찾아야 합니다. 실상을 찾지 않고 말과 글을 쫓으면 곤란합니다. 말이 없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말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성 자리에는 본래 공덕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출 · 재가를 왜 따지냐는 것이 성법사의 지론이었다.

보림회의 이 같은 간경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5분(법화경), 금요일 오후 2시(유마경)에 열린다. (02)739-1044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아미타사 염불절 수행

서울 종로구 아미타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염불절 수행을 실시한다. 염불절은 '나무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염불하면서 절을 하는 것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수행법. 박종린 법사의 지도와 법문으로 진행된다. (02)745-3351

보리수선원 집중수행

서울 보리수선원(선원장 붓다락키다)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초보수행을, 18일부터 25일까지는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초보수행은 초심자나 구참자 등을 위해 일상생활의 관찰방법, 올바른 수행법 등을 자세히 가르친다. (02)517-2841

명상상담硏 주말수련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에니어그램 워크숍 및 주말명상수련회를 실시한다. 에니어그램 워크숍에서는 연극성 성격장애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주말명상 수련회에서는 호흡법 등이 진행된다. (02)2236-5306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양청우 대종사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귀명삼보(歸命三寶)하옵고
조계종 정화불사(淨化佛事)에 진력하셨으며 강릉 법왕사를 비롯해 조계사, 건봉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 종회의원 등을 역임하시다가 지난 1971년 주지로 계시던 해남 대흥사에서 원적(圓寂)에 드신 양청우(楊聽雨)대종사의 문집(門集)발간을 준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우대종사 관련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개인적으로, 또는 문중의 은법사(恩法師)님이 청우대종사와 인연이 있으신 제방의 대덕스님 등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내 주신 분께는 사례와 아울러 자료의 반납을 희망하시면 반드시 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반갑게 찾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수집자료 : 1. 청우대종사와 관련 있는 사진
2. 청우대종사와의 추억 및 일화 소개의 글이나 말씀
3. 청우대종사의 법어
4. 청우대종사와 관련 있는 편지나 신문기사
5. 기타 청우대종사 관련 자료
▶ 자료수집마감 : 불기 2550년(서기2006년) 4월 30일까지
▶ 보내 주실 곳 : (619-9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43-4 신선사
전화 051)727-4964
팩스 051)727-5256
청우대종사문집 발간준비위원회 합장

불가무술(태극선공)선요가 수련생 모집
무공이라함은 동작 의식호흡의 절묘한조화가 어우러지고 동중정의 경계를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무공수행이라 생각하는 수좌입니다. 6세에 출가해서 36년간 수행도중 부족하지만 수행체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울려 충분한 수행도량이 되도록 3만6천평의 연화지에 수행전문관 법당 길이(64미터)내공정진동굴(84미터)대웅전 요사채 자연산행수행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진정한 각성을 여시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합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수행시간표 불가무술(태극선공)선요가 연화심관법

새벽 3시기상	예불
새벽 4시	좌선(연화기공 : 관법수행)
아침 7시	공양
아침 9시	불교예절교육; 초발심자경문 강의
10시	태극선공(외공;내공수련)
12시	점심공양
휴 식	
오후 2시	연화심관법(심수심법의 통찰수행의실체)
오후 3시	도량정비 : 울력(일체대중동참)
오후 4시30분	차담(수행도중일어나는현상토론)
오후 5시	저녁예불
오후 6시	저녁공양
오후 7시30분	연화기공 수행
오후 9시	저녁점검 취침 및 개인수행

● 수련보시금 : 1일 2만원, 7일10만원, 한달 40만원 숙식제공
(부전스님 2명, 공양주보살 1명 모십니다)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진위면 동천 1리 산651번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종. 경기도 총괄본찰 대각정사
주지 정관 합장
문의처 010-9508-6330/종무소 031)663-9066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1. 동충하초 자실체만을 선별 · 추출하였으므로 동충하초 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2. 동충하초 성장주기 중 유용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의 개체만을 선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3. 살아있는 동충하초를 추출하여 함유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 살아있는 동충하초 100%추출액입니다.
5. 본 제품은 생물자원개발연구소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 용 량 : 100㎖×60 포
◆ 특별판매가 : 125,000원
● 연구개발자 :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 안전성 검사 : 시험번호 제 GO2128 호
● 성분검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3895 호
● 상표등록번호 : 40 - 2001- 0031242
※ 본 제품 판매의 수입금은 법당 조성 기금으로 사용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만대에 걸쳐 무한한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산 60번지
정 토 사 063)255-0733
법연 스님 010-9282-0733

(주) 천성건설
공 사 개 요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석재, 부품 일체
◆ 석, 조각, 석물 일체
◆ 석, 불상, 좌상, 미륵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건설부문
◆ 석굴, 납골당 공사
◆ 석굴, 법당 조성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석 공사 일체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 사 완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 재 갑
(株)天星建設

생명조작, 경제논리로만 볼 것인가

서울대 불이회 올해 첫 법담회 현장 | '불자가 보는 생명조작' 주제발표 · 토론

"올해 첫 모임이네요. 반갑습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봄을 맞은 캠퍼스가 싱그럽다. 3월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 회원들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개학을 맞아 올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 속속 모여드는 10여명의 교수들 표정도 유달리 밝았다.

서울대 불이회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법담회(法談會)'라는 이름의 토론회. '법담회'란 교수불자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게 주제를 선정, 불법에 입각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교감하는 자리다.

1998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자리를 통해 불이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학을 제외한 기간동안 계속 불심을 돋워왔다. 가끔은 법사스님을 초청해서 경전이나 불교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렇다고 법담회가 시종일관 무겁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불자회가 어떻게 꾸려져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은 여느 직장 불자모임과 똑같다.



3월9일, 올해 첫 법담회를 가진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 회원들이 발제자 우희종 교수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전공 통해 불교 바라봐

이날의 발표주제는 '불자가 보는 생명조작'. 우희종(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여서 그런지 회원들의 표정도, 자세도 사뭇 진지하다.

우 교수가 이날 짚은 것은 △인간 · 동물 복제 및 이종장기 개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즉 유전자조작 작물의 필요성 △생명과학에 대한 불자로서의 재인식 등이다. 우 교수는 평소 그 누구보다 줄기세포 문제나 이종장기(종이 다른 생명체에서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키우는 방법)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 왔다.

"사회가 줄기세포 조작이나 형질전환 동물을 이용한 장기 개발에 너무 경제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이 자연계와 서로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본래 연기적으로 '흐름'이 있을 뿐인데, 어느 한 단계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생명의 유일성을 침범하는 것이라 봅니다."

우 교수의 발표에 소광섭(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 연구를 통한 난치병 치료를 꿈꾸고 있는데 이종 장기 등을 인간에게 적용시켰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졌다.

유기적 관계속에서 이해해야

우 교수는 "모든 생명체는 이어져 있지만,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개체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 의해 거부당할 확률이 크다"면서 "만약 무균돼지에게서 인간의 장기를 키워 이식받아도 그 장기가 인간의 몸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창(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교수는 전공분야인 GMO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에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개량 품종이 목적이지만 식물의 유전자 변형은 생각지도 못한 생태계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식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이로 하는 곤충, 동물들의 유전자 변형에도 심각하게 관여될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유전자가 조작된 콩을 자기가 직접 키워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객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박사도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는다.

"사람이든 뭐든 너무 물질화 시켜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만 해석하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존재한다

우 교수도 전 박사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인다.

"현대 과학이 반성해야 할 점도 그 점입니다. 우리는 '쪼갬'에 익숙합니다. 사람을 장기나 분자, 원자로 쪼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방향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1+1=2'라는 공식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1+1'이 '0'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명체 간 중요성이 제기된다. 임승빈(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입을 연다.

"철학도 현상학 같은 경우는 인간과 세계와의 진정한 관계 규명을 주창하고 있죠. 서양에서도 이제 동양적 사고로 계속 근접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점에서 '불교'의 교리 즉,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존재한다(相依相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생명조작 위험 알릴 사회운동 필요

오랜만에 불이회 법담회에 참석한 박세일(국제대학원) 교수는 복잡한 표정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모두 알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유전자 조작 장기를 이식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또 이런 행위가 공동체 · 생태계 파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누가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이상론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생명조작'과 같은 문제는 언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자꾸 경제적 가치와 효용론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생명조작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사회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불자들이 불교 안에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나 부딪치게 마련이다. 우 교수도, 참석 교수들도 그 점은 잘 알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조율하고 그 안에서 살기란 어렵다는 것을.

임승빈 교수 새 회장 선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교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 생활과 학문 그리고 종교를 접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오롯이 불자로서 학문하고 사회 속에 내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윤여창 교수는 "이렇게 법담회에 참여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즐겁다"면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불교를 바라보며 불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불교사랑' 방법"이라며 웃음 지었다.

한편 불이회는 이날 새로운 회장단도 선출했다. 소광식 교수에 이어 부회장을 맡고 있던 임승빈 교수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임 교수는 "올해 못한 사업을 진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담회를 비롯해 불교 기념일 행사, 사찰 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꾸려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힘들때마다 불법에 의지"

고려대 안암병원 김명화 수간호사

서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생아병동.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포대기에 싸여 누워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감격과 환희에 차서 눈물을 흘린다. 부모들 못지않게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마음 졸이며 바라보고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한 손길을 주는 이가 있다. 신생아병동 수간호사 김명화(49 · 사진)씨다.

간호사 생활을 한 지 26년이 넘어선 김씨. 병동에 머무는 눈길마다, 발걸음마다 노련함 그 자체다. 항상 조심하고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다.

"이제 집에서 설거지에다 빨래까지 한 번 더 보고 확인해요. 남편은 좀 불편해하는 눈치인데, 직업병인가 봐요."

김씨는 쾌활하게 웃지만 간호사 일이란 것이 어쩔 수 없이 더 꼼꼼해야 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외과 · 내과 병동을 거쳐 소아과병동, 신생아병동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베테랑이기에.



시기마다 힘든 점은 달랐다. 처음 간호사가 됐을 때는 밤 근무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병동을 책임지는 수간호사로 세상의 빛을 처음 본 아기들의 안전을 돌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그 때마다 힘이 된 존재가 '불교'다.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됐다고 하는 김씨. 막연하게 우울하고, 또 힘들 때 마다 그를 지탱해 준 불법이 너무 소중하다.

또 불교는 김씨를 사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소탈한 사람으로 가꿔줬다. 일을 할 때는 엄한 까닭에 후배들이 '호랑이' 선배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곧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털털하게 웃을 줄 아는 김씨의 마음 때문이다.

김씨가 불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17세 때. 서울 숙명여고 재학 시절, 당시 학교가 조계사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놀러' 다니다 보니 어느새 불자가 돼 있더라는 것이다. 그 때부터 적극적이고 활달한 여고생은 불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서원하는 불자로 변모해갔다.

17세 때 받은 법명 '보현심'은 불자로서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울이 돼 왔다. 그러다보니 스트레스가 많다고는 해도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김씨는 부처님 법속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에 늘 감사하다.

지금은 고대안암병원 지부장으로 고대병원불자회를 이끌고 있는 김씨. 그렇게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삶을 관조하다보니 김씨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다. 노인들을 위한 전문케어를 할 수 있는 간호사, 복지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

"저는 반야심경을 가장 좋아해요. 짧은 글 속에 불교의 진수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향할 수 있는 불자가 되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장례 지도자 시험준비를 위한

장례 문화 학과 학인 모집

한국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본원은 서기 2005년 서울특별시 장묘문화센터 주최 제1회 장사문화제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한국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번 서기 2006년 7월경 실시 예정인 제4회 장례, 지도사 시험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개 강 일 : **2006년 3월 25일**
2. 강의일시 : 매우 토요일 오후 3시~6시 (3시간 강의)
3. 교 과 목

	1학기	2학기
1학년	장례지도사자격시험준비반 장례학 개론 상장례학 공중보건학 장사관련법규 I 실습	장사관련법규 II 의학용어 제의례학 해부학 병원미생물학 실습
2학년	장례기획 사체화학 종교별 장례의식 Embalming 시신 Makc-up 실습	호스피스 실버매니지먼트 장제용품 및 유통 집단장 연구 장례식장 경영론 실습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3매
5. 문 의 : 02)741-0495~6

해동 장례문화 연구소 해동 불교 대학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겉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2> 활등과 활줄

활등과 활줄이라는 소제목을 대하니 생각나는 도반이 있다. 선방을 오래 다닌 훌륭한 스님인데 요즈음 전북 임실 어느 산골짜기 조그만 절에 묻혀 살고 있다. 경이나 어록을 보는 그 스님의 안목은 대단해,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한데도 강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워 초심자들이 배우는 강원 과정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 나이 그 법랍에 선원장 소임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모르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한 그 도반은 나한테는 어떤 선지식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지난 해 그 스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선가귀감>에서 '선은 활줄이고 교는 활등'이라고 한 말의 뜻을 몰라서 오랫동안 궁금했지. 활등은 구부러졌고 활줄은 곧은 것이라고 하여,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알았지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 활등은 휘어 있으니까 '천천히 돌아가는 길'이고, 활줄은 일자로 곧으니까 '곧장 질러가는 길'이라는 뜻이더라고.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도 모르고 다른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지 뭐야. 사람이 잘 모르면 참 어리석네. 활등과 활줄이 화두인 줄 알았네 그려."

도반 스님의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바로 찾으려는 것이 활줄에 비유된 선(禪)이고, 팔만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부처님의 세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활등에 비유된 교(敎)이다. 선은 공부의 지름길이요 교는 차근차근 돌아가는 길이다. 선과 교를 활줄과 활등에 비유한 <선가귀감> 10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諸佛說弓 祖師說絃 佛說無碍之法 方歸一味 拂此一味之迹 方現祖師所示一心 故云 庭前栢樹子話 龍藏所未有底

모든 부처님께서는 활등처럼 말씀하시고 조사 스님들은 활줄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의 뜻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림 없는 법'이 바야흐로 한맛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쳐야 조사 스님들이 보인 한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뜰 앞의 잣나무"라는 말은 용궁에 있는 대장경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 · 교 걸림이 없어 한맛이나
자취마저 떨쳐 내야 한마음

여기서 '활등'은 '구부러졌다'이고, '활줄'은 '곧다'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구부러진 활등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돌아가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조사스님들이 선어록에서 활줄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곁가지는 모두 거두절미하고 곧장 바로 부처님의 세상인 깨달음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교(敎)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선(禪)에서 깨달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면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성취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니 모두가 한맛이다. 그러므로 선이든 교이든 서로가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를 '걸림 없는 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걸림 없는 법'이라고 하여 여기에 집착하면 이 또한 망상이 된다. 선과 교가 걸림이 없으므로 한맛이 되나 이 자취마저 떨쳐 내어야 조사스님들이 보인 한마음이 드러난다. <선가귀감> 9장에서 모든 법이 부정되어 끝내 비어 있는 자리를 '필경공(畢竟空)'이라고 한다. 이 필경공이야말로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자 최종 목적지로서 실상을 드러내는 경지이다. 한 법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은 중국에 와서 불교의 대혁신을 일으켰다. 경전이나 글이 다 소용없다 하여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였고 계율, 염불, 다라니 모든 것을 다 부정하였다. 달마 스님은 오로지 "마음을 살피는 한 가지 일에 모든 수행이 들어있다[觀心一法 總攝諸行]"라고 하고, 또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그 성품을 보면 부처님이 된다[直指人心 見性成佛]"고 하였다.

달마 스님의 이런 법은 혜가 스님에게 전해지고 육조 혜능 스님 때에 활짝 꽃이 펴 그 문하에서 수많은 성인들이 나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투어 침체된 묵은 불교를 버리고 이 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래서 묻기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였다.

어떤 스님이 조주(778~897)에게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묻자, 조주 스님께서는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다. 서산 스님은 이 대답이야말로 법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선(禪)의 근본 뜻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답은 용궁에 있는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게송으로 말한다.

魚行水濁 鳥飛毛落

고요한 연못에 고기가 노니 깨끗한 물이 흐려지고
푸르른 하늘에 새들이 나니 가벼운 깃털이 흘날리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스님 옷은 왜 회색일까?

어려운 말부터 꺼낼까요? 초기불교 교단시절에 계율로 제정된 '괴색법(壞色法)' 전통 때문입니다. '괴색'은 말 그대로 검은 색에 가까운 짙은 '땅 색'입니다. 비구 스님들의 계율을 적은 <사분율>에서는 "비구가 새 옷을 얻으면, 청 · 황 · 적 · 백 · 흑 등 5가지 원색을 피해 청색과 흑색을 섞어 염색해 입어야 한다"고 적혀있지요. 서로 다른 원색으로 인한 승단내 위화감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지요. 푸른색과 검은 색을 혼합하면, 짙은 땅 색이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런 색을 만들어 입기 힘들어, 아예 숯을 갈아 물들여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괴색을 위한 염색재료인 먹이나 숯을 주변에서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색에 담긴 뜻도 알아봐야겠지요? 회색은 보통 색채학에서 우울이나 무기력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승복에서 회색의 의미는 다릅니다. '겸손'과 '점잖음'을 상징하거든요. 또 회색은 중성색으로 어떤 색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색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배경색이 됩니다. 원색의 화려함을 피하면서 차분하고 겸손한 수행자의 품위를 그대로 읽을 수 있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8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3강 혜능의 독특한 사상(四相) 강의

인간적 아집과 오만의 행태들

중생들을 발생의 차이가 아니라 무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혜능이, 사상(四相)이라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원어에 의존해서 해석했을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설명은 파격적이다. 그는 콘즈처럼 사상을 '존재', '자아', '시간' 등의 추상적 철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의 '실제 삶'에서 보이는 중생 군상들의 수많은 아집과 고집들을, 그 '아상'의 양상들을 쪽집게처럼 집어나간다. 듣는 사람은 "이거, 내 얘기 아냐" 하고, 찬물을 맞은 듯, 잠이 확 달아난다. 혜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호사를 누리기로 한다.

원문 번역

衆生佛性本無有異, 緣有四相, 不入無餘涅槃. 有四相卽是衆生, 無四相卽是佛. 迷卽佛是衆生, 悟卽衆生是佛.

迷人恃有財寶學問族姓, 輕慢一切人, 名我相. 雖行仁義禮智信, 而意高自負, 不行普敬, 言我解行仁義禮智信, 不合敬爾, 名人相. 好事歸己, 惡事施人, 名衆生相. 對境取捨分別, 名壽者相. 是謂凡夫四相.

修行人亦有四相. 心有能所, 輕慢衆生, 名我相. 自恃持戒, 輕破戒者, 名人相. 厭三塗苦, 願生諸天, 是衆生相. 心愛長年而動修福業, 諸執不忘, 是壽者相. 有四相卽是衆生, 無四相卽是佛.

"중생들에게 있어 불성은 다르지 않다(*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다만 사상(四相)이 있어,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사상이 있으면 즉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즉 부처이다. (어둠을) 헤매면 부처가 중생이 되고, (진실을) 깨달으면 중생은 부처이다(*중생과 부처의 종자는 따로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이 진실을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는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 ('헤맴'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1) 재산을 자랑하고, 학식을 뻐기고, 가문의 영광에 기대,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행태를 이름 하여 '아상(我相)'이라고 한다. 2) 인의예지신, 즉 유교 사회가 덕목으로 치는 행동 몇 가지를 따라하는 걸 대단하게 여겨, 주변 생명에는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요컨대 내가 "유교의 최고 덕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노라"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합당하게 표하지 않는 행태를 '인상(人相)'이라고 한다. 이 뿐인가, 3) 좋은 일은 자기가 챙기고, 나쁜 일은 남에게 떠맡기는 이런 인간들을, '중생상(衆生相)'에 빠졌다고 하며, 4) (저대로 완전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자기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호오를 매기는 이 '대략 난감한(?)' 버릇을 '수자상(壽者相)'이라고 한다. 이 넷은 범부 중생들이 늘 빠지는, 그리고 빠져 있는 함정이다.

"이 마음의 폐단을 고쳐, 윤회의 고리를 끊겠다고 발심한 수행자들에게도 그러나 또 다른 사상(四相)이 똬리 틀고 있다. 1) 자기 밖과 자기 안을 한사코 갈라,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 이것을 아상(我相)이라고 하고, 2) 내 행동이 곧 법이고, 표준이라는 오만에 계율을 부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인상(人相)이라고 한다. 3) 이 세상의 고통과 윤회가 지긋지긋해서 저기 신선들이 사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심, 그것을 '중생상(衆生相)'이라 한다. 이와 달리, 4) 이 사바를 떠나기 싫어, 복될 일을 부지런히 닦고, 그게 집착인 줄 모르는 것, 그것을 '수자상(壽者相)'이라고 한다.

"(기억하라. 범부나 수행자나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한 열반, 그 종국적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없다.) 요컨대 사상이 있으면 중생, 그게 없으면 부처이다."

부연 설명

직역으로 시작했다가, 성에 안차 아예 의역에다 화장까지 해 보았다. 이런 파격에 눈살을 찌푸리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글이란 메시지라는 것이 내 지론이다. 그 호소력이 기준이므로, 나는 애매함을, 또는 반쯤의 번역을 극도로 싫어한다.

사상에 두 세트가 있다고 했다. 범부들의 그것과 수행자들의 그것, 모두를 걷어내도록 수행하자! 너무나 리얼한 충고인데, 각자 깊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요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범부들의 사상(四相)

1) 아상: "재산이나 학식, 가문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들 위세를 얻기 위해, 그 인정을 위한 가열한 투쟁이 우리네 삶의 질펀한 일상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불교는 이 근원을, 니체의 말을 빌리면 권력의지를 뿌리 뽑고자 한다. 돈교는 "네 자기 속에 그것은 없다. 그리고 너는 그것 없이 완전하다"고 조용히 말한다. "더 뭘 할 것은 없고, 그저 이 마음을 쉬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2) 인상: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실천하지만, 그 행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 *대체로, 도덕가나 종교가, 설교자들에게 이런 유형이 많다. 범부들이 모두 부처들이라, 누구나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가 배운 도덕을 앞세우고, 설교로 들이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 상습적 태도가 자기나 남에게 실은 가장 나쁜 독이기 쉽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니체의 말을 다시 빌리면 '대지를 경멸하는' 자들이 번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중생상: "좋은 일은 자신이 가지려 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 *우리 모두 과실과 열매는 즐기되, 거기 수반되는 노력이나 희생은 회피하고자 한다. 그 습성을 뿌리 뽑거나, 최소한 유보하는 노력을 조금씩이라도 하자. 그래야 뭔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4) 수자상: "한 상황을 대면할 때, 그것을 자기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取捨)하고 분별(分別)하는 것." *사상(四相)의 근본 뿌리가 이것이다. 인간 내부의 무의식적, 자동 발휘적 습성으로 이 활동이 불타듯 치열해질수록 마음의 안정은 흔들리고, 사회의 건강도 훼손된다.

– 수행인의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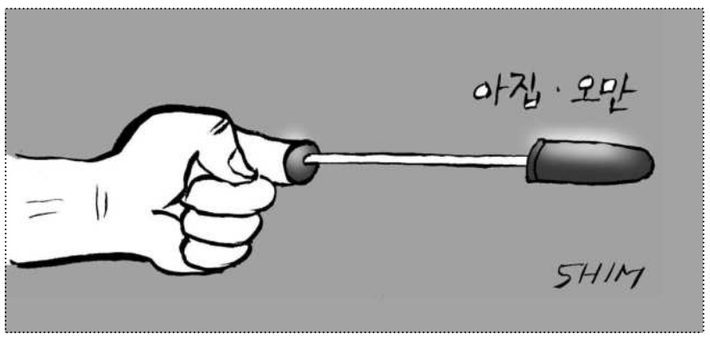
위의 범부들의 사상을 뿌리 뽑더라도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유형의 사상이 존재한다.

1) 아상: 수행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직 나와 남의 구분이 있는 사람. 나는 수행자니 높고, 너는 한심한 중생이라고 내리까는 고약한 버릇" *수행자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 불교의 근본을 망각한 위태로운 유형이다. 나는 수행자들의 수준을 이 병통 여부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

2) 인상: "규율은 내 속에 있다면서, 파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곧 부처'라는 말에 취해, 술을 마시고, 색을 범하는 등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특히 돈교의 수행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3) 중생상: "지옥, 아귀, 축생 등 천하고 고통스런 세계는 싫고, 오직 즐거운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 *이 고해의 땅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누군들 없으랴. 그러나 그럼에도 이 땅에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살아야 한다. 혜능은 말한다. "저 너머의 세상은 없다. 네가 발 디디고 선 곳, 그곳이 전부이다."

4) 수자상: "오래 살기를 바라, 복업을 닦는 사람들로서 아직 집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형." *앞의 유형과는 달리, 이 땅에 아주 눌러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역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가 보다. 수행자는 오고 감에 걸림이 없어야 하고, 머물고 떠남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있으니 있고, 문득 없으니 없다"의 무심(無心) 공부를 더 해 나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선과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이며 세계적 지성으로 평가받는 켄 윌버와 그의 아내 트레야(오른쪽).

죽음도 내 기쁨을 막지 못했네

미국 대표하는 대사상가 켄 윌버와 결혼 직후 암 진단받은 아내 트레야의 죽음 초월한 평화로운 투병이야기

사람은 왜 병에 걸리는가?
영원은 존재하는가?
삶과 죽음, 병과 치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을 대표하는 석학 중 한 사람이며, 선과 티베트 불교의 진지한 수행자. 또 트랜스퍼스널(transpersonal 자아초월) 심리학, 철학 종교 심리학 신과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의 대 사상가인의 켄 윌버와 아내 트레야의 죽음을 초월한 러브스토리.

켄은 아내 트레야를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여러 생을 거쳐 서로를 찾아왔다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한눈에 서로의 분신임을 알아보았다. 켄과 트레야는 단 한번의 포옹만으로 깊은 결속을 느꼈고, 바로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이 채 끝나기도 전에 트레야는 말기 유방암 판정을 받는다. 암세포는 폐와 뇌까지 깊숙이 전이되어 있었다. 5년 동안 아내의 눈물겨운 투병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던 켄. 그가 트레야를 보낸후 유품으로 남긴 일기를 읽으면서 매우 감동적인 언어로 써내려간 내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이다.

이 책에는 눈물겨운 사랑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동양의 불교와 힌두교,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등 종교적인 접근과 서양의 심리치료와 영성과의 관계, 건강과 치료의 본질에 대해 궁구(窮究)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암환자와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안내서 역할로도 충분하다.

트레야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다. 트레야는 지성, 아름다움, 매력, 고결함, 행복한 결혼, 훌륭한 가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심, 불안정, 자기비판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표에 대한 동요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치명적인 병과의 처절한 사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트레야는 그 모든 그림자와 잘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우리는 트레야의 일기와 편지를 통해 그녀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어떻게 명상적인 자각을 이용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어떻게 닫아버리고 괴로워 하고 화내지 않으면서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과 만났는지, 어떻게 평상심으로 암을 맞이했는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을 때조차 온몸으로 공포를 껴안은 트레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린마음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것을 껴안고 허용하기 위해서 나는 두려움을 가슴속에 담을 것이다. 그것은 삶에서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영혼에 자양분을 준다. 나는 아주 기쁘다. 나는 고통을 때려 눕히지 않는다. 나는 병에게 나 자신을 허락한다. 그리고 병을 용서한다. 나는 분노와 괴로움이 아니라 결단과 기쁨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또 '영원한 철학'이라 불리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전통과의 접목도 시도된다.

켄과 트레야는 특유의 방대한 지식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과 뉴에이지적인 접근 모두에 의문을 던지며 철학 심리학 종교적 해석을 더하고 있다. 즉 삶과 죽음, 갈등과 화해, 저항과 수용, 병과 치유등 인생의 제반문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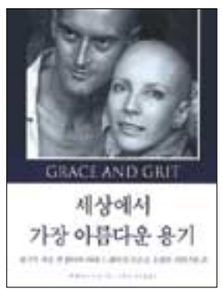
특히 질병과 관련하여 켄은 의식의 9단계(전(前)개인 3단계, 개인 3단계, 초(超)개인 3단계)에는 제각기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해결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켄은 고도의 명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병이 있는가 하면,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몸과 마음의 병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윌버는 병이 출현한 단계와 그것의 치료법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저자인 켄 윌버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모든 영역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그는 노자의 도덕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뒤 동서양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다.

학자가 아니라 영적인 스승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는 삶의 목표를 저술에 두고 있다.

전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로는 <사고적인 신><의식의 스펙트럼><무경계><아트만 프로젝트><에덴으로부터><눈에는 눈><의식의 변용><일미>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켄 윌버 지음
김재성 조옥경 옮김
한언 | 1만9000원

네티즌 강추

자유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변화 그 자체가 돼라



나를 통하여 이르는 자유 리더스넷(주), 게이트 지음

바꾸고 싶다면 변화가 되라.

생각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생활속의 갖가지 스트레스와 사회 대인관계 속에서 겪는 갖은 고민들. 그 수없는 걱정거리 속에서 살던 나에게 자유는 오아시스처럼 다가왔다.

그저 펼쳐지며 겪어지는 것인 줄로 알았던 인생. 생로병사의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 책이 일깨워 주고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깨달음을, 누구보다 쉽게 또 담담히 풀어 놓고 저자는 독자도 그리할 수 있음을 권유한다.

이 책의 저자는 시종일관 '나'라는 주제를 물고 늘어진다. 집요할 정도로 친절한 그의 이야기는 나를 조금씩 변하게 한다.

답답한 세상에 미리 걱정하던 나에게 이 책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자리의 위태함과 생과 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책의 곳곳에서 낭랑히 울리는 저자의 목소리는 지금도 들리는 듯 하다. "나를 통하여 자유에 이르십시오."

'변화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닌 변화 그자체가 되라'는 얘기가 있다. 우화와 더불어 펼쳐지는 담담한 이야기 속에서 어느덧 마음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몇 수십년 깨달음을 찾아 고행한 수행자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자유를 누릴 준비가 돼 있다 또 세상살이에 찌든 40~50대 가장들에게, 주체없이 쏟아지는 감정들에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책을 권한다. 삶에 지쳐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면 이 책은 분명 변함없는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유지연, ypbooks.co.kr/ypbooks)

책속의 밑줄긋기



○ … '좋은 철학이 좋은 기술과 문화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국내 IT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지녀야할 경쟁요소로 좋은 철학을 손꼽는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도 사람을 위한 기술보다 '시맨틱 웹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 책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읽기 바란다.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이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좀더 쉽고 편리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개발에 시맨틱 웹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서비스가 돈이 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내용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생각해내고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 과정임을 기억하자.

인류의 생활과 문화를 크게 바꿔놓은 웹이 최근 들어 '시맨틱 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웹은 처음 등장할 때 모습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초기 웹은 단순한 하이퍼링크 기능의 구현에만 목표를 둔 웹으로 대량의 정보를 자동화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웹은 아니다. 초기에는 웹이 구현한 하이퍼링크 기술만으로도 혁명적이었고 충분했지만 웹이 보급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늘자 초기 웹의 링크 기술만으로 감당하기가 점차 힘들어졌다. 그래서 좀더 인공지능화 되고 대량의 정보를 컴퓨터나 프로그램끼리 자동 처리하는 발전된 웹을 꿈꾸게 되었고, 이러한 목표에 의해 나온 것이 시맨틱 웹(Semantic Web, 뜻살린웹)이라는 개념과 기반 기술이다. -<시맨틱웹: 웹2.0 시대의 기회> 서문 중에서, 디지털미디어리서치, 김중태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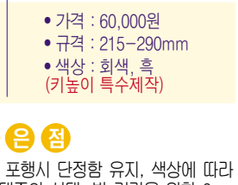
♦원두막 겸 방가로 7000×4000×3200[mm]
홍보할인가격 650만원 → 550만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원두막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820×350[mm]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한 플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찌거나 변형되지 않해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관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www.banggaro.com FAX:(063) 323-3012
평상.net / 원두막.kr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액자 / 저자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쿨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동) 발냄새 무좀방지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반야심경 가르침, 생활에 있소이다



생활속 반야심경
김현준 지음
효림 | 6000원

1년간 월간 '법공양' 연재했던 '반야심경' 강설 엮어

포교지인 월간 <법공양> 8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불자들은 물론 군법당 교도소 병원에 보내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생활속의 반야심경>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월간 <법공양>에 연재한 <반야심경> 강설 내용을 엮은 것이다.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경전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모두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김 원장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 생활과 결부시켜 쉽고 명쾌하게 해석했다.

책에는 공의 의미,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해탈법,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 뜻,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생활, 걸림없고 진실불허한 삶을 이루는 방법 등에 대해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불교 교리인 오온 십이인연 사제 팔정도 육바라밀 삼종반야 공가중 삼제사상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 책에서 "우리는 원래 마하심 반야심 바라밀다심을 갖추고 있는데 원래가 마하요 반야요 바라밀다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회복해 가지면 우리도 부처님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고무풍선과 같은 자아는 진짜 '나'가 아니라고 말한다. 본래 '나'는 고무풍선도 홀연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도 아니며, 허공이며 하늘이며 법계라는 것. 왜냐하면 그 풍선이 터지면 '나'가 없기 때문.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무아를 체득하는 길이라고 밝힌다.

김 원장은 독자들을 위해 반야심경을 독송해야 하는 이유와 독송법및 당부의 말도 친절하게 덧붙이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서고 반야심경을 독송할때는 진실할 뿐 헛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라는 김 원장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이 <반야심경>을 설한 이유도 누구든지 다 간직하고 있는 진실불허(眞實不虛)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의 고무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당부한다. 또 "오온개공(五蘊皆空)임을 관찰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도리를 깨달아 거짓자아를 온전히 비워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결코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괴롭던 것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은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를 창립했다. 현재 월간 <법공양>과 도서출판 효림의 발행인겸 대표로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씨.

안·테·뷰 큰무당 김금화 실화소설 '계화' 펴낸 이경자씨

"무속의 가치 알리는데 불교 도움 필요"



복잡하고 다양한 여성문제를 담아내고 있는 중견작가 이경자씨.

"불교는 한국의 전통신앙인 무속을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한국불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속은 폄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불교가 무속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드러내는데 힘을 주어야 합니다"

큰무당인 김금화(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씨를 주인공으로 소설 <계화>를 펴낸 중견작가 이경자씨의 말이다.

가톨릭 신자였던 이씨는 무속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산 흙 돌을 신으로 생각했다. 25년간 10번이나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완성한 이 소설 <계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무속인으로 꼽히는 큰만신 김금화의 굴곡진 삶의 면면과 무당으로서의 삶과 의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그 안에 뛰어들어 체험한 신명과 대동, 해원과 기쁨의 순간을 그려내고 있다.

또 숱한 굿 체험을 통해 관찰한 큰 무당, 갓 무당이 된 자, 무당이 되려는 자, 신이 내려 고통 받는 사람, 무당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 무당을 찾는 여자들, 무당을 연구하는 사람 등. 이들을 가지치기 하며 '신과 함께 춤추는 사람'인 무당의 속내와 그 의미를 세밀하게 그려낸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던 무속(巫俗)의 정신(精神)및 형식과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오랜시간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 만큼 이씨는 이 소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했다.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무속인들이 다른 성직자들에 비해 유난히 차별받는 현실이 사무치도록 아팠다"고 자신의 감정을 피력했다. 이씨는 "책 발간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폄하되는 무속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이라면 무속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씨는 "어느 종교나 사상가를 떠나 이 책을 읽고 인간적이고 생명적인 측면에서 무당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무속과 불교와의 깊은 관계만큼 불교계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씨는 "절에 가면 산신각 칠성각이 있으며, 서사 무가의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면 불교를 상위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등 무속은 불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는 "무속인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면 자기존재가 폄하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속의 굿중 불교를 수호하는 신인 제석천을 기리는 제석굿이 가장 신경써서 올리는 중요한 굿이며, 염불타령등을 봐도 불교와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 문제를 과감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절절하게 그려내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경자씨는 1948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7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확인'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으로 <절반의 실패>, 에세이집으로 <반쪽 어깨에 내리는 비><이경자, 모계사회를 찾다><그 매듭은 누가 풀까><남자를 묻는다>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다. <사랑과 상처>로 제4회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원우 기자



계화 이경자 지음 | 생각의 나무 | 9800원



파미르 산맥을 넘고 있는 행창 스님의 모습.

떠나는 아쉬움 묻고 머나먼 유라시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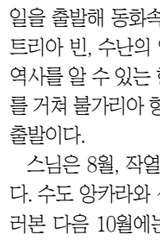
"머물다가 떠나고, 떠남 속에 머무는 인생살이가 나는 좋다. 떠나는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발길 닿는 그곳, 그 순간에 존재할 인연들이 있는 곳으로…, 이것이 진정한 여정이 아니겠는가!"

2001년 5월 1일.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인도학 · 티베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막 마친 행창 스님이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대륙 횡단에 나선다. 자전거 한대에 몸과 마음을 싣고 어여쁜 달마를 찾아 떠난 스님은 독일을 출발해 동화속의 왕국인 체코, 예술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빈, 수난의 역사를 간직한 슬로바키아, 변천하는 역사를 알 수 있는 헝가리, 집시와 견공의 나라 루마니아를 거쳐 불가리아 항구도시 바르나까지 자전거 하나로의 출발이다.

스님은 8월, 작열하는 태양빛아래 흑해연안에 입성한다. 수도 앙카라와 성모마리아 생가가 있는 셀주크를 둘러본 다음 10월에는 어둠의 도시인 그루지야의 수도인 트빌리시를 거쳐 석유와 전쟁하고 난민으로 가득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당도한다.

이어 카스피해를 건너 11월에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도 사르칸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횡단한 뒤 1월 24일 중국대륙으로 접어든다. 중국의 만리장성과 소림사, 뤄양과 시안을 돌아보고 베이징의 텐진항을 떠나 인천항에 2002년 5월 19일 서울에 입성하는 행창 스님. 스님은 꼭 1년동안 약 2만km의 거리를 횡단했다.

행창 스님의 유라시아 자전거 횡단 여정은 일간 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 buddhanews.com)에 74편이 연재되기도 했다.



여행과 수행 그리고 학문을 화두로 삼아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인 행창 스님은 1989년 인도 · 네팔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20년에 걸쳐 90여 국가를 여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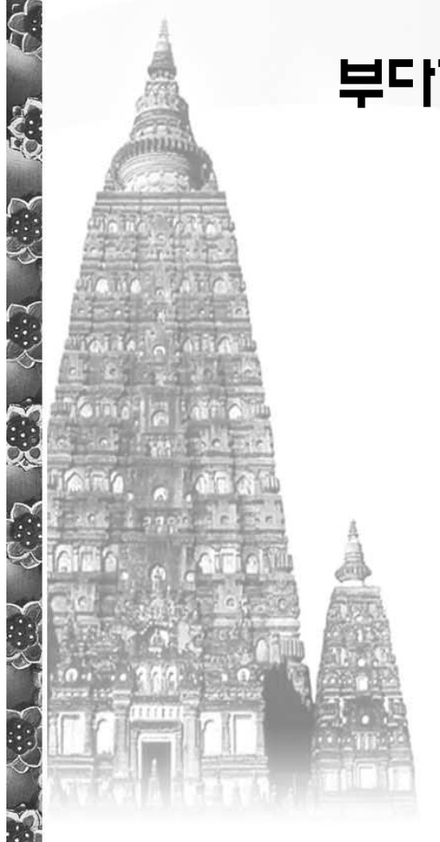
행창스님의 유라시아대륙 횡단기
행창 스님 지음 | 민음사 | 9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	민족사, 나무불 스님, 8500원
· 선학강좌	이른아침, 숭산 행원 스님, 1만5000원
· 영혼의 모음	샘터사, 법정 스님, 8500원
· 산은산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불교가 좋다	동아시아, 가와이 하야오, 1만2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부다가야 12년, 참 많은 분들이 향기로운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혜총스님 지음, 값12,000원)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곳곳에 묻어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갈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이야기



죽음이 없는 樂 (정관스님 지음, 값20,000원)
▶수십 년 간 수행정진하며 대중포교에 힘쓴 스님의 법문에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음을 강조하며, 읽는 이로 하여금 바로 지금 발심하도록 '마음 공부하라'는 간절한 당부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과 함께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 자세가 스며 있다.



묘법연화경
(석혜능 엮음, 값30,000원)
▶정교한 퇴고작업 끝에 다시 태어난 섬세하고 아름다운 묘법연화경. 번역한 글에서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풍부한 내용에서 오는 커다란 감동과의 만남



보현행원품강설
(혜남스님 지음, 값12,000원)
▶오랫동안 동국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에서 후학들의 양성에 힘써온 중산 혜남스님의 자상한 법문으로 스님의 밝은 혜안에서 우러나오는 보현보살 십종대원의 이해를 통해 이 시대 불자 수행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발원문108선집
(덕진스님 엮음, 값6,000원)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수지 독송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곧게하여 생활 속의 근심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



묘법연화경 사경 중송분(게송)
1,2,3,4권 (혜능스님 엮음, 각5,500원)
▶"묘법연화경 중송분(게송)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하여도 묘법연화경 전권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하는 것과 같은 공덕과 의의" 경전을 옮겨 쓰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것 또한 수행방법의 하나.



남 잘되게 하기
(오심스님 지음, 값9,000원)
▶월봉사 주지 오심스님의 생활법문으로 삶의 희망과 올바른 생활을 향한 지혜를 안겨주며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이타행利他行을 부르짖는 진리의 메시지



어린이 법요집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값3,000원)
▶전통예법과 법회 식순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만든 법요집



법화경의 세계-믿음으로 깨어나기
(히라가와아끼라 지음 / 석혜능 옮김, 값10,000원)
▶엄격한 수행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믿음에 의하여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는 법화경 가르침의 맑은 기쁨과 법열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책.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www.buddhagaya.co.kr **편집디자인 대한기획** (051)866-7818

창의적 아이템이면 가능성 높다

- 2006 문예진흥기금,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하나? -



2005년 5월에 열린 해인사 음악법회. 올해 열리는 제2회 음악회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는다.

복지 · 문화예술 국제교류 추가 불교계 참여 폭 넓어져
해인사 음악회 기금 지원, 산사 음악회 운영 사찰 주목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행사를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및 개발, 국민의 예술창작과 향수 권리 신장, 세대 · 계층 · 지역간 문화적 조화 추구 등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불교계에서는 해인사 · 백담사 만해마을 등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문화예술이라는 장르에 국한된다고 해서 불교계에서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불교계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해야 할까.

 # 지원 신청 요건

문예진흥기금은 ▲예술 창조 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문화예술 매개 활동 확대 ▲지역문화활성화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창작 초연될 단일 작품이어야 한다. 국내 공연예술단체(기획사 포함)면 어디나 지원신청이 가능한데 공연 실적 및 활동이 활발한 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단체대표나 작가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정기공모는 10월~11월 사이에 진행된다. 2006년도 지원분은 2005년 10월 20일~11월 18일까지 30일간 공모했는데 총 5304건이 접수돼 전년도에 비해 40.5%가 증가했다. 올해에는 총 1180건에 179억여 원이 지원된다.

정기공모 외에 별도 · 지정공모와 비공모 · 자체 추진 등이 있다. 별도공모는 예술창작 지원 및 기반조성,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및 지속프로그램지원, 청년인턴채용지원 등이고 지정공모는 기획프로그램지원, 기간문예단체지원, 전통예술활성화지원 등이다.

예술창작지원 및 기반조성 관련은 비공모로 진행된다. 올해의 예술작품축제 · 시상,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선정지원,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불교계가 기금활용을 잘 하는 분야는 예술보존조사연구와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 , 전국문학관 운영활성화 지원 분야이다. 올해에는 이 세 분야 외에도 장애인문화접근성 확대사업 분야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등에서 예인음악연구회, 전통등연구회, 동북아음악연구소 등이 불교 관련 행사로 지원을 얻어냈다.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 분야에서는 해인사가 해인사 음악회 개최로 지원을 받아 산사음악회를 운영하는 사찰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 목적과 활동 연계성 확실해야

지난해 하반기 공연 중 연희단 거리패의 창작극 '아름다운 남자', 삼보불교음악협회의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김명숙 늘휘무용단의 사색의 춤 '알 수 없어요' 등은 창작공연 활성화 사후 지원 사업에 선정돼 뒤늦게 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사업 전 ·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니만큼 정기공모 시기를 놓쳤다 해도 올해 사업에 대한 후속 지원을 준비해볼 필요도 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 사업 목적과 활동의 연계성이 확실해야 한다. 사업 구현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과 구체성 · 적합성 · 실현가능성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4차례 심의 거쳐 대상 · 금액 확정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친다. 1차 기금심의, 분야별 1 · 2차 또는 예심 · 본심을 거쳐 2차 기금심의에서 종합심의와 의결을 한다. 이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8개 분야 15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49명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은 "지원신청이 폭증하는데 비해 예산 증액이나 지원정책의 개발이 정비례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지원재원의 확충과 지원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강지연 기자 · 현대불교 자료사진







창작공연 활성화 사후 지원작으로 선정된 김명숙 늘휘무용단의 '사색의 춤 알 수 없어요'(상),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중), 연극 '아름다운 남자'(하).

2006년 문예진흥기금 불교관련 수혜자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윤이상평화재단–윤이상 전곡 해설집 출판(1000만원)
한국미학예술학회–불교예술과 불교미학(1000만원)

■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
김백봉무용단–80년 김백봉의 한국무용 발자취(1000만원)
우봉전통춤보존회–외길 인생 우봉 이매방 전통춤 공연(1000만원)
이생강–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지원(800만원)
임이조–2006 임이조의 춤 '우리 춤 읽기'(1000만원)
해인사–제2회 해인사 음악회(1000만원)

■ 장애인문화접근성 확대사업 지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을 위한 기금모음 연주회(800만원)

■ 전국문학관 운영활성화 지원
(재)백담사 만해마을–문인 창작집필실 운영 사업(7000만원), 우리 시대 대표작가와의 만남–토요문학 아카데미(1100만원), 푸른나무 통일문화학교(1000만원)
만해기념관–나라사랑 만해문학 청소년 백일장(900만원)
미당시문학관–제2회 미당문학제(1500만원)
진해시김달진문학관–아이들과 함께 여는 문학동네(1500만원)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한국서각협회–한글 반포 5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국제서각예술 제 2006 한국전(1000만원)
동북아음악연구소–4회 한 · 중 · 일 불교음악 학술대회(1000만원)
예인음악연구회–정읍 내장사 예인 국제 뮤직 페스티벌(1500만원)
전통등연구회–10주년 기념전시회 및 국제 학술 세미나(1500만원)
타악 프로젝트 그룹 HATA–세계 민속&타악 페스티벌(2000만원)

■ 창작공연 활성화 사후 지원(2005.7~12)
연희단 거리패–창작극 아름다운 남자(2000만원)
삼보불교음악협회–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3000만원)
김명숙 늘휘무용단–사색의 춤 '알 수 없어요'(60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란?

문예진흥기금은 1972년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 문화예술 진흥 사업 ·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기금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 · 관리 · 운영해 오다가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해 문화진흥기금 사업을 총괄하는 체제로 변모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연장 · 박물관 · 미술관 · 사적지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해 모금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수수료 중 일부도 공익자금으로 조성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에는 농협 17개 지부에서 약 6억원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등 지역문화예술 사업에 기부해 기부자 1위에 올랐다.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주빈국 행사 등을 지원한 국민은행이 4억여원으로 2위, KT&G, CJ, 태영인더스트리 등이 뒤를 이었다. www.arko.or.kr, 02-7604-544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든은 어려워도 세살은 쉬운 참살이

글쓴이 | 차 차 석
신국판 | 양장본 286쪽 | 값 10,000원



"이제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부처님의 '전도선언' 中에서

I. 부처님, 이 땅에 오시다 · · · · · 부처님이 세상으로 오심으로써 비롯된 불교발달사 및 핵심교리
II. 없음과 비움의 철학적 사색 · · · · · · · · · · 불교의 기본사상인 무아, 윤회, 공사상의 변천사
III. 계율 이야기 · · · 승가를 유지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율의 근본정신과 발달사
IV. 수행과 삶의 이야기 · · · · · · · · · 이상적인 불교적 삶의 방법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V. 부처님, 여성을 보다 · · · · · · · · · · · · · · · 어떤 페미니스트보다 앞선 부처님의 여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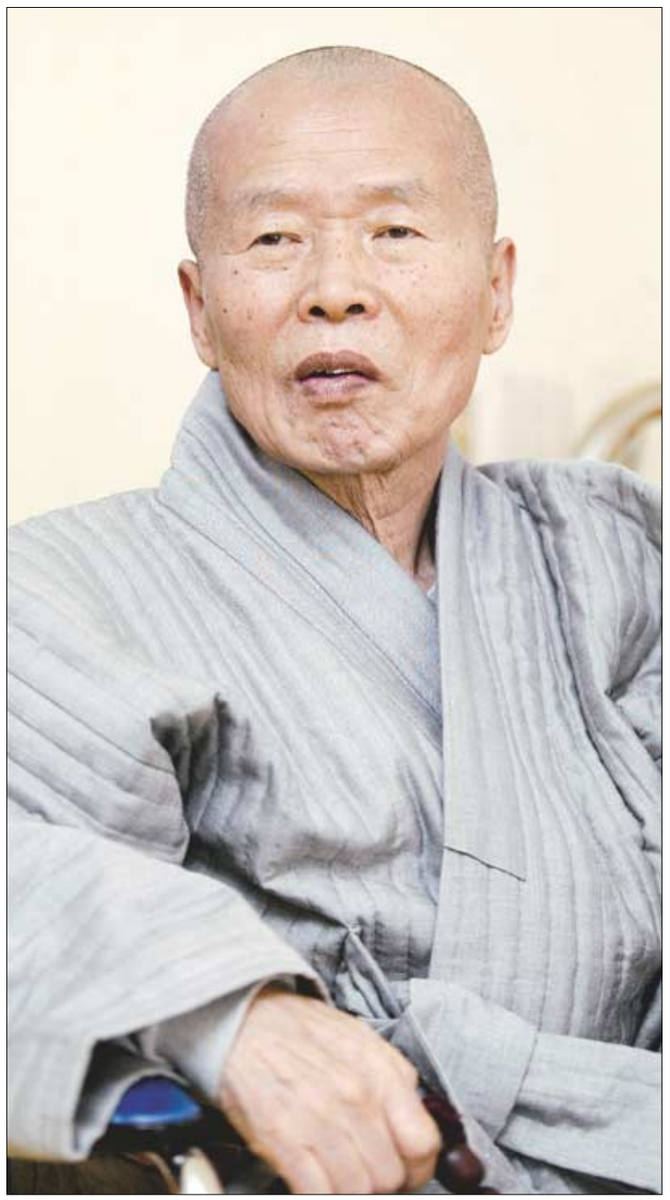
차 차 석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불교신문 논설 위원, 한신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출강 하는 등 불교 알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팩스: 02)393-9696 woribook@chol.com

“평생 쓴 바랑 하나와 전화번호 7개가 전부”

머무름 없이 살아온 50년



출가 후 ‘보따리 싸는 재미’로 사셨다는 대용 스님은 평생 선방에서 본래면목을 참구해 왔다. 지금 병중이지만 스님은 지금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라고 말한다.

상좌 한 명 두지 않고 주지 소임 한 번 살지 않은 채

반세기 대중선방서 정진 … “남과 시비하지 말고 사세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대용 스님 (예산 향천사 천불선원 선덕)

수행자는 드러내지 않음을 미덕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 나선다. 그 와중에 자신의 뜻과는 달리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이른바 ‘유명 스님’이 되기도 한다. 대단한 결례다. 때문에 큰스님을 찾아뵙고 썩 유쾌하지 않은 객(客)이 되어 스님의 일상을 엿보고 법문을 청하는 일은, 개인적으론 마음 설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충남 예산 향천사 염화실에 주석하고 있는 대용 스님(천불선원 선덕)을 찾아뵙는 것도 그랬다.

평생 상좌 한 명 두지 않고, 주지 소임 한 번 살지 않은 채 50여년을 대중선방에서 정진하신 대용 스님을 지면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크나큰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가벼운 춘설(春雪)이 내린 3월 2일, 한적한 촌로(村路)를 따라 향천사에 닿았다. 지난해 동안거에 든 후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 대용 스님을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 향천사 주지 법광 스님이 기자를 염화실로 안내했다. 스님은 병환으로 인해 시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쇠약해졌지만, 기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형형(熒熒)한 운수납자(雲水納子)의 그것이었다.

조용하던 거처가 취재기자, 사진기자, 동영상 촬영기자 등으로 번잡해짐에도 스님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대용 스님을 찾아뵙는 무구 스님(향천사 유치원장)이 곁에서 “예전 같으면 조용히 자리를 물리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가 후 50여 년 동안 상좌나 알은체하는 신도 한 명 두지 않으실 만큼 오로지 참선 정진에만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1929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아버지 김봉학, 어머니 하순이 사이에서 태어난 스님은 43년 북강현 전천군 향순심상고등소학교를 졸업한 후 해방과 더불어 귀국했다. 45년 서울 체신학교 우편과를 수료하고 대구시 중앙우체국 사무원으로 재직하다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일등상사로 7년 만기 제대했다.

군 복무 당시 상주 화령 전투에서 전우들을 잃으면서 인생의 근본에 대해 고뇌하며 방황하게 된 스님은 제대 후 복직 대신 불법(佛法)을 찾아 나서는 길을 택했다. 불연(佛緣)을 맺기 위해 여러 사찰을 전전하던 중 사형(師兄)되는 희묵 스님의 안내로 예산 향천사로 출가, 58년 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당시만 해도 체신학교를 수료하면 엘리트라 칭송받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은사 스님으로부터 ‘수행자는 참선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적정처(寂靜處)를 찾아 62년 청암사 수도암을 시작으로 오로지 수좌의 길을 걸었다.

94년 지리산 정각사에서의 안거를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향천사 천불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신 스님은 이번 을유년 동안거때도 대중스님들과 함께 방부를 들이고 3개월을 마쳤다.

대용 스님을 아는 사람은 끝없는 수행 이력과 함께 ‘무뚝뚝함’으로 스님을 기억한다. 신도들이나 시자들이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하루에 대화 몇 마디도 나누지 않을 만큼 묵언하고 오로지 자기 내면만을 응시해 왔기 때문이다.

“조실부모하고 어려서부터 혼자 외롭게 자라면서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괜한 인연을 짓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 병석에 든 후부터 조금 달라졌다. 가까이 있는 시자나 간병인이 걱정할까봐 늘 웃으며 “나 때문에 올 것 없다”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공양을 올리는 시자의 손을 잡고 “손이 춥다”며 애틋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베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더 말이 많았다면 늘 다른 사람과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붙이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최근 건강이 나빠지긴 했지만 스님은 세수 7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다.

스님의 건강비결은 소식(小食)과 포행(匍行). 하지만 스님은 남과 시비하지 않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 더 큰 건강비결이라고 말한다.

지난 동안거 해제 전 입승스님이 “저희는 보따리 싸서 내일이면 떠납니다. 저희는 스님의 건강이 염려됩니다”라고 여쭙자 스님은 “나도 보따리 싸는 재미로 살았어. 보따리 싸는 재미가 있단 말이야. 나 참 보따리 많이 쌌어”라고 말할 만큼 머무름 없이 살아온 수행이력이 바로 건강의 초석일 것이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걷고 싶으면 걷고,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고, 기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먼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먼 여행을….”

평생 쓴 바랑 하나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 7개가 전부일 만큼 단출한 스님의 세간을 보며 천불선원 입구에 걸린 ‘대휴문(大休門)’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크게 쉬는 문. 배고프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스님은 저 대휴문을 넘어야 할까?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디 평생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스님의 뜻을 거스른 과문한 기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이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용 스님은 향림당(香林堂) 대용(大用) 스님은 1929년 일본 경도에서 태어났다.

43년 일본 복강현 향순심상고등소학교를 졸업하고 45년 서울 체신학교 우편과를 수료했다. 대구시 중앙우체국 사무원으로 재직 중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일등상사로 7년 만기 제대했다.

58년 예산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62년 청암사 수도암을 시작으로 부안 월명암, 문경 김용사,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경북 봉화 각화사, 지리산 벽송사, 도봉산 망월사 등에서 정진했다.

76년 충남 보은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94년 지리산 정각사에서 안거 후 향천사 천불선원에서 지금까지 정진 하고 있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 · 야간)적외선카메라2대 = 200만원,카메라한대추가시 + 40만
“보안은 예방”
CCTV
3대 만족
품질,가격,서비스
사업내용
• CCTV판매 및 설치 공사
• 청소,경비용역
• 방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
시공사찰
• 대성사
• 송림사
• 도현사
A1 에이원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주)에이원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통권 2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황우석 사태를 보는 불교의 눈’(조성택)을 비롯한
흥미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웰빙 시대의 잘 죽기’
웰빙 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오진탁)
붓다의 죽음 (안양규)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김영욱)
부활, ‘웰 다잉’의 한 해석 (이찬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강신표)
근사체험(近死體驗)이란 무엇인가? (최준식)
논 단
율장은 금서인가 (마성 스님)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김광식)
일본 불교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국불교에의 시사 (박광준)
공안 언어의 사회적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한 상념 (박진영)
조선전기 관세음보살의 응신묘법의 도상과 그 창조적 재현 (강소연)
틱낫한의 프럼빌리지 선수행 고찰 (김은종)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전화확인 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 매거진
불교평론에 참신한 광고주를 모십니다
최고의 영독율과 주목율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평론에서 함께하실 광고주를 모십니다. 효과대비 저렴한 광고료로 최대의 만족을 보장합니다.
◆ 광고문의 : 불교평론 광고기획부
◆ 전화 : (02)2004-8214~5 / 팩스 : (02)737-0696
e-mail : jabi1522@empal.com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 / 팩스 02)737-0697

순간순간 결제하며 마음 한곳에

대용 스님의 가르침

▲ 현대불교신문에서 온 기자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절을 합니까?

▲ 박재완, 여수령입니다.

– 박재완, 여수령은 어머니 아버지가 준 물건이지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몸 받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면목이란 무엇인가 일념으로 참구해야 합니다.

▲ 스님은 출가 후 주지 등의 소임을 한번도 맡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소임을 살거나 사중(寺中)일을 본다든가 하면 그 일에 끄달려서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옛날 한 스님께서 "차라리 백년의 운수객(雲水客)이 될지언정 하루도 주지로 살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도(道)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였거늘, 하물며 말세의 근기가 약한 범부(凡夫)이겠습니까.

▲ 그럼 대중 포교나 설법도 하지 않으셨나요?

– 백 사람의 지식인이 한 사람의 각성만 못합니다. 한 물건이 사람 사람에게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없고 위로는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검기로는 칠흑보다 더 검은데 행하고 눕고 말하고 고요하게 생활하는데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 중 일하는 것 빼고 잠자는 것 빼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 정신을 한 군데로 모으는 공부를 해서 이 알 수 없는 것을 참구하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 어렵고 힘들지만 불 흘러가듯 자꾸만 생각해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 정신통일하는 법을 자연히 알 수 있습니다. 냉수는 우리가 매일 먹지만 담담해서 질리지 않습니다. 설탕물이나 꿀물은 처음에는 달고 맛있지만 자꾸 먹으면 질려서 먹지 못합니다. 참선 공부도 이 냉수 먹는 도리와 같습니다.

▲ 어제는 봄을 시샘하는 춘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 눈은 햇빛만 보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눈은 그렇게 녹지만, 그대들의 마음에 낀 티끌은 누가 쓸어버릴 것입니까? 부지런히 정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 지난 동안거 결제 때 대중들에게 어떤 법문(法門)을 주셨습니까?

– 수좌들에게 항상 결제한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어느 때 이르러 보면 결제나 해제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결제와 더불어 신도들이 100일 기도를 동참하는 날이기도 해, 신도들에게 '늘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일념으로 기도하면 정신세계가 멋쟁이가 되고 육신이 아름다워질 것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안거다 100일 기도다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결제를 합니다. 석 달도 좋고 삼년도 좋지만 가장 절실한 결제는 '순간결제'가 으뜸입니다. 마음이 화두를 놓치고 해이해졌을 때 다시 화두를 잡고 순간순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순간결제가 으뜸인 것입니다.

▲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 나의 주인공은 편안하지만 사대(四大)로 생긴 이 색신(色身)은 허물어져 가는 중입니다. 몸으로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능히 참고, 마음으로는 복잡한 것이 있어도 다 쉬고, 외부의 인연을 일체 끊어버리고 그리고서 공부를 시작하는 이때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허공도 늙는다는데, 이 몸뚱어리야 어찌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사(生死)의 주인공은 늙는다거나 아프다거나 죽는다는 것이 없이 여여(如如)한 그 자리입니다.

▲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무얼 하십니까?

– 아무 것도 안합니다.

▲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 본래면목을 찾고 있습니다.

▲ 평생을 선방에서 정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본래면목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 찾기야 벌써 찾았지만 찾고, 찾고 계속 찾아야 합니다. 기자도 자기의 본래면목을 부지런히 찾아봐야 합니다. 삼천 년 전 부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을 하며 얻은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 지위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바를 버리고 얻은 바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버리고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얻고 내가 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는 자비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2005년 향천사 천불선원 동안거를 결제하고 대용 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찍은 기념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는 향천사 주지 법광 스님.

▲ 사회가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갑니다.

– 제가 석굴암에 10여년 정도 기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시끄럽게 마련인가 봅니다. 신라시대 때 도성이 어지러워 임금이 시름을 달래려고 시내에 나왔다가 누더기 입은 충담 스님을 만났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하고 묻자 충담 스님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살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 깨달음은 고통이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왕위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얻으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남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가득찬 그릇에는 담을 수 없지만 비어 있는 그릇에는 담을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배우는 것이나 부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것이 옳은 불교요, 옳은 불교를 찾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성품을 봤다는 말인데, 내가 견성했다느니 인가를 받았다느니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좋은 약은 선전하지 않아도 그 약을 찾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견성한 사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계(法界)의 본성(本性)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와 인생을 구성하는 진리의 본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본성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독립적이며 고정불변한 것은 없으며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기(緣起)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無常)하고 무아(無我)한 것이 세계와 우주와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명에 의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지옥도 극락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해탈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자 깨달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운명은 그 행위에 따라 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춘래춘풍(春來春風)이면 백초일색(百草一色)이라. 승속원융(僧俗圓融)하여 일월왕래(日月往來)로다. 봄이 와 봄바람이 불면, 백가지 풀이 일색이요. 승속이 원융하여 해와 달이 스스로 뜨고 지더라.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6>



사람 다스리는 또하나의 기술-칭찬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다 인구수도 적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품성이 너무나 거칠고 사나워서 온갖 나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하목건련이 부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교화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나라로 들어간 목건련은 이내 자신이 배워온 진리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나쁜 일을 저지르면 그 죄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귀 기울이기는커녕 좋은 말을 들려주는 그를 때리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욕을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목건련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리불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화시키려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못난 체 하면서 가르침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역시 사리불도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주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악한 백성들 교화하러간 10대 제자
가르침 들려주려 애썼으나 줄줄이 실패

마하가섭을 비롯한 제자들이 잇따라 차례로 갔으나 역시 오히려 무시와 비난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덕이 높은 스님들이 실패를 하고 돌아오자 아난이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아라한 한 사람을 욕하여도 그 죄가 작지 않는데 이토록 많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거슬렀으니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들의 가르침을 저버린 죄가 무겁다고는 하지만 보살이 보면 그들은 모두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에 문수사리를 보내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들어간 문수사리보살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당신은 참 용감합니다."

"당신은 참 건장한 몸을 갖추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에게 잘 하는군요."

"당신은 기백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자신들은 원래 포악하고 못된 백성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몰랐던 자신들의 장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봄눈 녹듯 풀어졌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문수사리보살을 칭찬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못된 사람이라고 지적만 하려 들었는데 이 분은 어쩌면 그리도 우리 속마음을 잘 알아주실까? 이 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 행복해."

사람들은 그제야 부처님이라는 성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서둘러 그분께 귀의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그 흉악하고 무거운 죄라는 것이 대체 어디 있는가?" (구잡비유경)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하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아무도 입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슬쩍 돌려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참 재능도 많고 기발하고 아이디어도 신선해. 그런데 너희들의 그 신선하고 힘이 넘치는 세계를 구세대와 공감하려면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까?"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잠잠하던 아이들에게서 대답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아버지들에게 대화를 걸어야 한다."

"그 분들도 우리 같은 신세대를 지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세대만의 문자를 몰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수사리보살이 그들에게 없던 장점을 새삼 만들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 중생은 내가 가르쳐야만 해"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뭔가가 있다"는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본 것이 주효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내편으로 만드는 아주 멋진 방법, 그것은 바로 '칭찬'이라는 것을 경전에서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天一氣功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재복 회장이 오대산에서 만 3년간 매일 100리(40km)씩 걸으면서 얻은 행선법의 의미와 진공 호흡법의 깊은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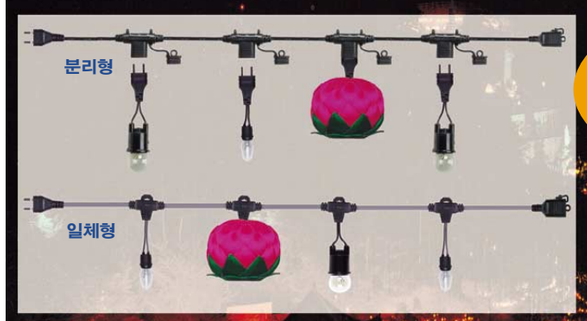
1단계수련 : 3박 4일 코-스
<매월 1회 실시-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내가 병드는 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재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컬라멘트가 6배 (특 칠라멘트)로 빛이 일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꽃차 한잔에 봄향기 가득





산사에서 만드는 꽃차 노하우

봄이 무르익고 있다. 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을 잉태하는 난꽃과 동백꽃, 산수유꽃,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이즈음, 향기로운 꽃차 한 잔으로 춘심(春心)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 〈산사에서 만든 차〉를 펴낸 사진작가 이정애씨의 도움말로 산사에서 직접 만들어 마시는 꽃차를 소개한다.

꽃차는 찻잎에 꽃향기를 흡착시켜 만든 차와 꽃 자체를 차로 만든 것으로 나뉜다. 찻잎에 향기를 흡착시키는 대표적인 차가 바로 자스민차인데, 자스민꽃(말리화)을 찻잎과 함께 두어 향기가 스며들게 한 것이다. 국화나 장미, 매화 등은 보통 꽃을 그냥 말린 후 우려 마신다.

일반적으로 꽃이 작고 꽃잎이 얇은 꽃은 그늘에 말리고, 꽃이 크고 꽃잎이 두꺼운 꽃은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 단, 꽃을 말릴 때는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보관할 때 곰팡이가 슬지 않는다.

봄철에 마시는 대표적인 꽃차로는 단아한 난꽃차, 겨울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운 동백꽃차와 매화차, 목련꽃차 등이 있다. 각 사찰의 꽃차 만드는 노하우와 맛있게 우리는 법을 알아본다.



▶ 난탑산방 돈수 스님의 난꽃차

1. 난초의 꽃봉오리 부분만 따서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물에 살짝 씻는다.
2. 끓는 물(물이 끓어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올라 올 때)이나 뜨거운 물에 우린 녹차를 찻잔에 따른다.
3. 생꽃 한 송이를 찻잔에 띄워 마신다.

▶ 청량사 지현 스님의 생강나무잎차

1. 3월 초부터 꽃망울을 피우는 생강나무의 어린잎을 채취해 그늘에서 말린다.
2.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덖는다.
3.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신다.

▶ 강진 백련사 혜일 스님의 동백꽃차

1. 벌어지려는 작은 꽃봉오리를 따서 그늘에서 말린다.
2. 바짝 마른 꽃봉오리를 찻잔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마신다.
3. 동백꽃을 말리지 않고 우려낸 녹차에 꽃송이를 띄워 우려 마실 수 있다.

▶ 팔성사 혜원 스님의 목련꽃차

1. 목련꽃잎을 따서 흐르는 물에 한 번 씻은 후 다관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린다.
2. 첫 번째 우린 물은 버리고 다시 끓는 물을 부어 2~3분간 우려 마신다.
3. 백목련을 꿀에 2주 정도 재워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실 수도 있다.

▶ 유가사 혜성 스님의 진달래꽃차

1. 진달래꽃을 채취해 꽃술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말린다.
2. 꽃잎과 꿀을 깨끗한 유리병에 겹겹이 깔아 2주 정도 재운다.
3. 재운 것을 뜨거운 물에 탄 후 생 꽃잎을 한 송이 띄워 마신다.

▶ 영주 부석사 도륜 스님의 매화차

1. 공해가 없는 곳의 청매화를 반쯤 핀 것으로 골라 딴 후 먼지를 털어낸다.
2. 뜨거운 방(50~70℃)에 한지를 깔고 꽃을 널어 하룻밤 정도 말린다.
3. 말린 꽃을 한지에 싸 둔 후 한 번에 5송이 정도 꺼내 우려 마신다.
4. 꽃잎을 따서 바로 우려 마셔도 되고, 녹차와 함께 통에 넣어 향을 흡착시키는 매화향차로도 즐길 수 있다. 반쯤 핀 매화는 꿀에 재워 보름 정도 둔 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제공=도서출판 jung Lee





매화차와 동백꽃, 난꽃차(위에서 부터).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9. 보이차 속의 칠자병차 ①



칠자병차의 유래는 골동보이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운송 수단인 마필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60kg의 무게와 수송 길이었던 다마고도(茶馬古道)의 통행여건에 의해 둥근 보이차의 무게는 357g로 정해졌다. 이때 보이차의 총칭은 보이원차(普洱圓茶)라 했으며, 개별 상점에서 만든 보이차는 모두 자신들의 상호에 따라 이름을 달리했다.

오늘날 병차(餠茶)와 원차(圓茶)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재질의 보이차로 존재했다. 당시 상인들은 보이차의 품질을 두 가지로 나눠 만들었는데, 고급 찻잎으로 잘 만들어진 둥근 차를 '원차'라 하여 주로 해외시장에 판매한 반면 하등급 찻잎으로 만든 것은 '병차'라 하여 판매대상은 주로 서역지역이었다. 즉 둥근 모양은 같으나 원료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 것이다. 공산중국 치하 아래 처음 만들어진 둥근 보이차 곧 인자보이차(印字普洱茶)의 포장지를 보면 '중차패원차(中茶牌圓茶)'라는 글귀가 있다. 글자에서 알 수 있듯 고급 찻잎으로 만들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칠자-다복다손 · 병차-둥근 모양 의미
문화대혁명 이후 포장지에 명칭 사용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고 있는 둥근 형태의 보이차는 대부분 칠자병차다. 칠자병차는 보이원차의 전통 포장법과 같이 7편을 한 죽통에 담았다. 칠자병차의 이름에 대해 예로부터 여러 가지 설이 전하고 있다. 운남의 민족문헌에 따르면 '칠자(七子)'란 '다복다손(多福多孫)'의 의미며, '병차(餠茶)'는 둥근 모양의 보이차를 가리킨다고 적혀있다.

'칠자병차'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쇄물로서 등장하게 된 해는 1973년부터다. 이는 문화대혁명 때인 1972년에 그동안 '중국차엽공사운남성공사(中國茶葉公司雲南省公司)'라 불렸던 회사의 이름을 '중국토산축산진출구공사운남성차엽분공사(中國土産畜産進出口公司雲南省茶葉分公司)'로 개명한 후 비로소 포장지의 인쇄물에 '칠자병차(七子餠茶)'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흔히 보이차의 시대적 흐름을 고대와 현대로 나누는데, 그 가름의 잣대가 바로 1973년이다. 1973년은 보이차의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그었던 해다. 회사 이름을 바꾼 것을 비롯해 자체적 수출업무기능의 실현 그리고 미생물발효의 탄생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이 해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대보이차와 현대보이차의 차이는 발효에서 나타난다. 고대보이차의 발효는 자연산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대보이차의 발효는 미생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다. 고대보이차는 다시 골동보이차 즉 호자급(號字級)보이차와 인자급(印字級)보이차로 나뉘지만 모두 자연발효에서 진화(陳化)된 상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골동보이차를 제1세대, 인자보이차를 제2세대 그리고 현대보이차 즉 1973년 이후의 보이차를 제3세대 보이차라 부른다.

제1세대 보이차는 이무(易武)의 개인상점에서 만들어졌던 반면 제2세대와 제3세대 보이차는 모두 국영 맹해차창(勐海茶廠)을 중심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그리고 지금 보이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제품들을 가리켜 제4세대 보이차라 부르고 있다.

제3세대 보이차 즉 현대보이차의 또 다른 이름은 숫자급보이차(數字級普洱茶)라고 한다. 시장에서 이를 '숫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호자급과 인자급의 명칭에 관한 흐름을 일관성 있게 맞추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미생물발효의 탄생을 기점으로 보이차 출하공장을 곤명공장(昆明)은 1번, 맹해공장(勐海)은 2번, 하관공장(下關)은 3번이라고 지정하여 제품을 관리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 한서대학교

감로정
감로정은 방부제와 인공으로 만들어진 식품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일반소금이 아닌 인시(寅時, 새벽 3시30분 - 5시30분)에만 아홉 번 구운 죽염을 넣어 순수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후 3년 간 숙성시킨죽염간장, 죽염된장에 소나무장작불로 구운 국내산 밭 마늘, 산에서 채취한 유근피 등을 혼합하여 환(丸)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감로정은 공양시간을 즐겁게 하며, 해우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한 통(1개월 분)에 55,000원인 감로정을 선전기간 동안 제조원가인 두 통(2개월 분)당 75,000원에 드립니다
(주)가활만인식품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영죽리 725
043)855-2385, 855-8127
농협 417082-51-033062 (주)가활만인식품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주원료 : 야생 머위 추출 액상과 생메실 추출즙 액상, 곡즙 추출혼합물
폴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증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음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계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한
약 왕 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 약왕사 (왕솔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약왕사)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식·용·유 알고 먹어야 맛도 영양도 최고!



음식에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더해주는 식용유. 하지만 그동안 대세를 이뤄왔던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이 화학적 추출 방법과 유전자 조작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원료를 직접 눌러서 짜낸 기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올리브기름과 포도씨기름이 각광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채종유, 녹차유, 아보카도 기름 등 식용유의 재료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기름을 사용한 요리가 그리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집에서 직접 짠 참기름이나 들기름, 고추씨 기름 정도만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는데 사용했다. 19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강유, 즉 쌀겨 기름이 출시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식용유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다.

각종 원료서 짜낸 기름 앞다퉈 출시
튀김용엔 포도씨유 · 옥수수유 적합
아보카도유 · 올리브유, 심장질환에 좋아
두뇌발달에 좋은 호두유, 그냥 먹어야

▷ 곡물로 만든 식용유

 # 옥수수기름 옥수수 씨눈으로 만든 기름으로, 고소한 맛이 강하다. 리놀렌산, 비타민 E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콩기름이 비해 가열 안전성이 좋고, 쉽게 산화되지 않아 마요네즈나 드레싱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다. 발연점이 높아(220℃) 튀김용으로도 적합하다.

 # 콩기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름으로 대두인 흰콩을 사용해 만든다. 불포화지방산인 리놀산과 리놀렌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인지질이 많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산성분이 적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낮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요리에도 적합하다.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 볶음요리에 적합하며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채소 등의 재료에 적합하다.

 # 미강유 쌀겨로 만든 미강유는 맥아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이 풍부하다. 노화방지, 성장 촉진, 피부질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올리자놀이 소량 들어 있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의약품 첨가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대체연료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 현미유 현미의 호분층(미강)과 배아(쌀눈)에서 추출한 고급 식용유다. 특히 감마 오리자놀과 올레인 등이 적당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산 밸런스가 좋다. 가열 안전성과 보존성이 뛰어나며, 맛이 담백해 샐러드드레싱이나 과자, 빵 등을 만들 때 사용한다. 김구이나 부침에 사용하면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다.

▷ 열매나 씨로 만든 식용유

 # 포도씨기름 포도씨를 압착해 추출한 기름으로, 카테킨과 비타민 E, 리놀렌산 함유량이 높아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좋다. 쉽게 타거나 눌어붙지 않아 튀김이나 구이 요리에 적합하다. 특히 튀김을 할 때 짧은 시간에 속까지 익고 기름기 없이 바삭하게 튀겨져 맛이 좋다.

 # 채종유 유채씨를 짜서 만든 식용유로 캐놀라유라고도 한다. 고유의 맛과 향이 거의 없고 담백하며, 낮은 온도에서 잘 응고되지 않아 마요네즈, 샐러드 등에 많이 사용된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튀김이나 부침 요리에 사용하면 바삭한 맛을 살릴 수 있다. 식용유 중에서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제일 낮다.

 # 홍화씨기름 홍화씨를 짜서 만든 것으로, 열에 매우 약해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그냥 먹기도 한다. 담백한 풍미로 음식의 맛을 살려준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

 # 면실유 목화씨에서 추출한 기름을 먹기 좋게 가공한 것이다. 맛이 깔끔하며 발연점이 높아 튀김요리에 적합하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를 튀기면 바삭한 질감이 살아난다. 비린내가 적고 담백해 샐러드나 마요네스 만들 때 사용한다.

 # 올리브기름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올리브기름은 '엑스트라버진(extra virgin)'과 '퓨어(pure)' 또는 '라이트(light)'로 구분된다. 올리브 열매에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해 기름을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은 색이 짙고 향이 풍부해 샐러드드레싱이나 빵을 찍어 먹는데 사용한다. 발연점이 낮으므로 열은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열매에 열을 가해 추출한 후 정제한 퓨어는 색과 향이 옅은 대신 저렴하며,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구이, 볶음요리 등에 쓸 수 있다.

 # 녹차씨기름 차 씨앗에서 짜낸 기름으로 카테킨과 사포틴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흡수율이 97%에 이른다. 기름 자체의 냄새가 적고 묽어 재료의 맛과 향을 살리는데 적합하다. 샐러드와 볶음 요리 등에 두루 사용되지만 향과 맛이 극히 적으므로 무침 요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해바라기씨기름 알파-토코페롤이 많아 동맥경화, 혈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맛이 담백해 고사리, 취나물 등 향이 강한 나물을 볶을 때 사용하면 맛을 한층 좋게 해 주다.

 # 아보카도기름 아보카도를 저온 압착해 만든 것으로,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하며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해 심장 질환 등에 효과적이다. 맛과 향이 진해 샐러드드레싱이나 소스 등에 많이 쓰인다. 발연점이 높아 생선 요리나 볶음, 바비큐 등에도 좋다.

▷ 견과류로 만든 식용유

 # 마카다미아기름 마카다미아너트를 저온 압착해 짜낸 것으로,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빵이나 스낵류를 찍어 먹는데 이용하며, 마사지 등의 미용 재료로도 쓰인다.

 # 호두기름 호두를 압착해 추출한 것으로, 일반 식용유에 비해 칼로리가 1/3 수준이다. 특히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등에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성분이 많다. <신약본초>에는 '급성폐렴에는 호두기름이 최고'라고 적혀 있다. 하루 두세 작은술씩 그냥 먹거나 샐러드드레싱, 비빔밥 등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집에서 만드는 웰빙 식용유

● **녹차기름 재료**: 녹차 잎 25g, 식용유 5컵

① 오목한 팬에 식용유를 부어 한소끔 끓인 후 불을 끄고 뜨거운 김의 열기가 빠져나가면 녹차 잎을 넣어 우린다.

② 1~2시간 후 기름이 식으면 진공병에 옮겨 담고, 10일 정도 후 녹차 잎을 걸러낸다.

● **고추기름 재료**: 말린 고추 10개, 식용유 5컵, 고춧가루 1큰술

① 말린 고추를 가위로 적당하게 잘라 팬에 식용유를 넣고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마저 볶는다.

② 완성된 기름을 식힌 후 고운 체에 걸러 병에 옮겨 담는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0>

도라지 · 씀바귀 김치



어느 해인가 머리를 식히러 무작정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맘때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바람 역시 시원했고 상쾌했습니다. 어쩌면 제주도에 학창시절 친구가 있어 숙식이 해결 가능했기에 주저 없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는 처음 제주도를 찾은 벗을 위해 무척이나 자상하게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친구가 처음으로 안내한 곳은 이름 모를 조그만 야산에 위치한 돌로 지은 예쁜 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한 녹차가 있고, 제주도의 특색 있는 나물을 반찬으로 한 한정식이 주메뉴였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제 친구와 같은 절에 다니는 불자셨는데, 스님들께 배운 음식을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음식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백년초 효소차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백년초라면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너무나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 오묘한 자주빛깔의 백년초 물로 전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김치도 담는 모습을 보고 전 제주도를 방문한 것이 후회 없는 여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오늘날까지도 전 백년초 효소를 자주 담아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 연예인이 목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백년초 사이다를 마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연의 열매에 담긴 약리 작용까지 알고 사용하는 산사의 지혜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런 자연의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 사찰요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큰 행복을 느끼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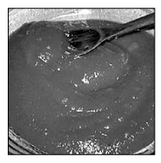
특히 저에게 딱 한 명 있는 조카가 기침을 하면 대추와 도라지를 삶은 물을 먹이고, 변비에 걸리면 아침에 일어나 사과를 갈아서 찹쌀죽을 쑤어서 섞어서 먹이는 등 음식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펼쳐 보일 때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속에 숨겨진 보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만드는법**



<도라지 즉석 김치> 재료: 도라지 1줌, 백년초 효소 4큰술, 양념장(꿀, 생강즙, 다진 대파 흰 부분 1/2작은술, 죽염, 통깨)

① 도라지는 죽염 물에 살짝 담가 절인다. ② 절여진 도라지에 백년초 효소를 넣어 물을 들인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양념장에 물들인 도라지를 무친다.



<씀바귀 김치> 재료: 씀바귀 1줌, 검정깨, 죽염, 양념장(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약간, 감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황설탕 1작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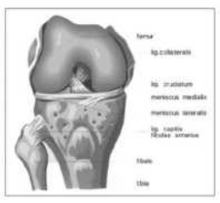
① 씀바귀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죽염에 절인다. ②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③ 절여진 씀바귀를 흐르는 물에 헹궈낸 다음 물기를 완전히 뺀다. ④ 양념장으로 씀바귀를 버무린다. ⑤검정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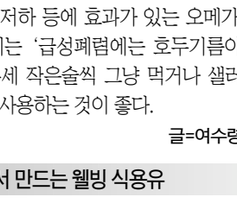
※맛내기 포인트: 효소는 발효정도에 따라 쌉쌀한 맛이 날수도 있고 약간 신맛이 강하게 날수도 있으므로 기호에 따라 설탕을 조금 넣어도 된다. 도라지 김치는 먹기 직전에 버무려야 도라지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새송이버섯 봄나물 샐러드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칢,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051) 583-7886 청 견 스 님: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적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불교계 최초 불교박람회 열린다

'2006 한국불교박람회' 서울무역전시관 23~26일



한국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명은아트의 상품(위)과 가을신선제다의 다구.

군포교 기금 마련 전시회 눈길

차명상 제품, 불교미술품, 불상, 동기와, 달마도, 법고, 불단, 닫집, 자사호, 선무도, 염주, 수련복, 납골시설. 이 모든 불교 관련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불교계 최초의 불교문화상품 박람회인 2006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23~26일 서울무역전시관(SETEC) 전관에서 열린다. 110여개 업체가 250개 부스를 차려 불자들을 만난다. 불교방송과 (주)제이컨벤션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한국불교박람회는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첨단포교, 전통등 · 차, 사찰음식, 장례문화(납골), 행사기획, 불구 및 불교용품, 종단 및 교육, 사찰행정지원 등의 코너가 마련된다.

제1전시관은 사찰건축 중심으로 꾸며진다. 제2전시관은 차 등 불교문화의 장으로, 제3전시관은 불교체험의 장으로 구성된다. 개막행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며 11시 30분에 개장한다.

박람회 기간 중 마련되는 문화행사들도 풍성하다. 우선 군포교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열리는 특별전시 코너가 눈길을 끈다. 설봉 스님 도예전, 혜안 스님 서각전, 귀일 스님 기와전, 전통등 전시회, 한지공예 체험전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명원문화재단의 다도시연은 25일 오후 1시에, 선무도 시연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오후 3시부터 '환경 및 국제불교'를 주제로 대중법회의 장을 펼친다.

26일에는 오후 1시에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의 주례로 불교전통혼례의식이 시연되고, 오후 2시 15분에 LMB싱어즈의 공연이 박람회장을 흥겹게 달굴 계획이다. 오후 3시에는 지광 스님(능인선원 주지)이 '변화하는 세계,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법문에 나선다.

한편 불교방송은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성전 스님의 행복한 미소'(23일 오후 3시), '김병조 교수의 배추머리 노래방'(24일 오후2시) 등의 공개방송을 개최한다.

장혁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장은 "한국불교박람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대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는 형태를 취해 불자 누구나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736-0993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시와 조화 이룬 또다른 찬불가

interview

'오늘은 제비꽃' 음반으로

수완 스님



"3월 15일을 전후해서 제 시들이 발라드풍의 노래로 만들어져 수록된 음반이 나옵니다."

수완 스님(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 · 사진)의 시 10편이 작곡가 진우의 곡과 노래로 불자들을 만난다.

이번 음반은 타이틀 곡 '오늘은 제비꽃'을 비롯해 '포행길에서 만남' '불면' '일출' '낙엽 그리고 바람' '천도' '촛불을 세워뒀소' '우리가 하나일 때' '미궁' '길이 되어 흐르는 강' 등 10곡이 담겼다.

"시를 노래로 만드는 작곡가 진우와 인연이 돼 제 시 15편을 골라 작곡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작업인데 지금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지요."

다음카페 '시노래(풍경)'를 운영하고 있는 진우는 여러 시인들의 시를 선별해 시 전체에 발라드풍의 음악을 입히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3개의 음반을 내기도 했던 진우가 이번에 수완 스님과 손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에 진우는 제10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문정희 시인의 '연꽃'에 곡을 붙여 시상식에서 노래하기도 했다.

"이번 음반에서 가장 불교적인 곡은 '천도'인데 불교합창단을 지휘하는 한 포교사가 음반이 나오면 이런 곡들을 불교합창단에서 불렀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정도로 주변의 호응이 좋다"는 수완 스님은 "삶과 자연, 서정을 노래한 시들과 조화를 이루는 음악 역시 불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어 웅장하고 무거운 찬불가와는 또 다른 찬불가의 세계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천경자 화백의 작품 '황금의 비'(왼쪽), '볼티모어에서 온 여인'(위), '그라나다시장'(아래).

82세 맞아 미공개 작품 포함 250여점 선봬

'천경자-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 展 - 갤러리 현대, 4월 2일까지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로 시작되는 천경자 화백의 이야기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를 거쳐 이제 '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에 이르렀다. 화가로, 불자로, 어머니로, 이 세상과 조우해온 82년 동안 슬픈 전설은 사라지고 아름다움만이 남은 것이다.

사간동 갤러리 현대(관장 박명자)가 3월 8일~4월 2일 '천경자-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 전시회를 연다. 갤러리 현대의 2006년 첫 전시인 천경자 화백의 전시회는 50~60년대 미공개 작품 6점과 70~90년대 대표적인 작품 30여점, 평생 작업한 미공개 수채화 · 펜화 · 연필화 180점, 미완성작품 42점으로 꾸며진다.

'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는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천경자 화백이 82세를 맞아 공개하는 작품전이다. 1995년 호암갤러리에서 열렸던 대규모 개인전이나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천경자의 혼'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생전 마지막 전시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전시회는 천경자 화백의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이다.

천 화백의 드로잉과 작품 밑그림 등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 속에서 천 화백이 꿈꿔왔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02)734-6111

강지연 기자

'지하철 1호선' 3000회 공연



불자 연출가 김민기 대표(극단 학전)가 12년째 진두지휘해온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3월 28~30일 서울대학로 학전그린소극장에서 역대 배우 90명이 참여해 3000회 기념공연을 가진다.

'지하철 1호선'은 1994년 5월 14일 첫 무대를 가진 이후 145명의 배우가 작품을 거쳐 갔다. 60여만 명의 관객이 공연을 봤을 정도로 소극장뮤지컬을 이끌어온 '지하철 1호선'은 국내 최장기 공연 뮤지컬이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라이브 밴드를 소극장 뮤지컬 무대에 선보이기도 했다.

김민기 대표는 지난 겨울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예불에 참석할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제대 후 눈 덮인 백담사를 찾아 밤길을 가다가 죽을 뻔한 일화도 있는 등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 (02)763-8233

강지연 기자

단신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내한 공연



스리랑카의 국립전통무용단이 3월 25일 내한해 부처님과 자연에 대한 작품을 30일부터 60여 일 간 공연한다. 국제불교교류협회와 불교상조(국민상조)가 스리랑카 정부 지원으로 무용단을 초청해 공연하는 것이다.

이번 공연은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 및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불교교류협회 관계자는 "사찰 문화회관 등 어디에서라도 공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30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타에서 난 민돕기 기금마련 공연을 시작으로 경주 동국대(일정 미정), 4월 16일 삼보사 낙성법회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011-581-8851

K옥션 '백남준 스페셜' 마련

K옥션의 3월 미술품경매에 '백남준 스페셜'이 마련된다. 백남준의 유작 '그린1'을 비롯해 백남준과 첼리스트 무어맨의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퍼포먼스 등이 담긴 35장의 사진이 선보인다.

3월 22일 오후 5시에 서울 사간동 K옥션에서 열리는 3월 미술품 경매에는 한국 근 · 현대 작가들의 주요작품과 고미술품, 명성있는 작가들의 해외미술품 등 총 140여 점이 출품된다. 경매에 앞서 15~21일에는 3월 경매 출품작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02)2287-3600

'불교문예' 2006년 봄호 발간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소감과 심사평이 담긴 <불교문예> 2006년 봄호가 나왔다.

청화 스님은 권두언에서 "욕심은 시가 통할 길을 막고 시가 넘어갈 담을 높이고, 시가 스며들 틈새마저 없애버린다"며 "<열반경>에 나온 설선동자가 시가 시 이상의 것이 되도록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붓다가 되고 완전한 자유의 해탈자가 된 것처럼 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일깨웠다.

봄호에는 인드라망생협 이정호 상무의 '불교생명운동 입장에서 본 유전자 조작', 나태주 · 공광규 시인의 신작시 특집, 박시교 시조시인 등의 시조, 동해 명찰 사찰 기행, 홍유연씨의 수필이 수록됐다.

도각 스님 월간 문학세계 시인 등단



도각 스님(前 태고종 사회국장)이 월간 <문학세계>의 12월호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저녁놀' 등 5편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도각 스님의 등단작품인 '바라보기' '바람 거두세' '한얼의 빛' '엄마의 가슴' 등은 선과 명상을 시어로 녹였다.

윤제철 심사위원은 "깨달음을 통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이미 달관한 경지에 오른 자유인의 마음 자세가 매우 눈길을 끈다"며 "부처님의 사상과 현대적 감각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어법으로 그만의 색채를 드러낸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폭 90cm / 길이 6m (48,000원),7m(56,000원), 8m (64,000원),10m (80,000원),12m (96,000원)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환영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장엄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엄)현수막 ₩40,000원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농협 053-01-265785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내 마음의 불씨는 절대로 꺼트리지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거의 모든 종교가 윤회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는 장생불로(長生不老)에 있다고 하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천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 그것도 마음에 있는 거죠, 뭐. 도교가 뭐 다른 겁니까? 도란 마음이죠. 이 마음이 벗어난다면 정말 삶의 보람을 찾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영생이 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가 또 자기 모습을 없애려면 없애고, 또 모습을 나타냈다가 없애려면 없애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송두리째 얻는 거죠.

불교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발견해야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보고 믿고,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니까 나를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기부터 알았으면 그 도리를 모두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도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를 놓고 빈다면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법당에 들어오면 당신이 이 법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이 법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거지 당신이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도 자기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고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인공에 하나로 묶어서 삼배를 하든지, 또는 하나로 부처님한테 묶어 놓고 삼배를 하고 다시금 자기한테 하나로 끌어 묶어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덕이 되고요. 또요?

▲질문자1(남): 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큰스님: 왜 그만 하십니까? (대중 웃음)

▲질문자1(남): 질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생활을 그냥 하는 게 그대로 찰나찰나 윤회가 되는 것이고, 윤회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게 이름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공했다는 그 사실 그걸로 이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2(남): 저는 심용회 총무입니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조금 쉬시라는 마음으로 그 동안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큰스님: 네. 편히 앉아서 하세요.

▲질문자2(남): 네, 감사합니다. 제가 큰스님을 처음으로 친견하게 된 것은 1991년 8월경으로 기억됩니다. 그 자리에서 큰스님께서 저에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신도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저도 그 당시에 예기치 않은 불안 심리를 가지고 큰스님을 친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스님의 '아직 멀었어.'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음공부로 들어가기보다는,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물론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도 저 나름대로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의사와 제 마음이 한마음이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전까지 한 2년 6개월 동안 복용을 했는데, 물론 그 동안 약을 쭉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을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동안에는 약을 먹으면 잠을 아침 10시까지도 자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이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설사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 내과에 가서 설사약을 먹고 그 와중에 감기도 한 보름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약과 감기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제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갑자기 소화도 안되고 입에서 트림을 하면 냄새가 나고, 그리고 구토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니까 '야, 이젠 안 되겠는데.' 하고 내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서 종합 진찰을 받고 결과를 받아 보니깐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왜 여태까지 그대로 놔뒀느냐.' 하면서 추천서를 써 주면서 여기 가서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뭐, 이런 걸 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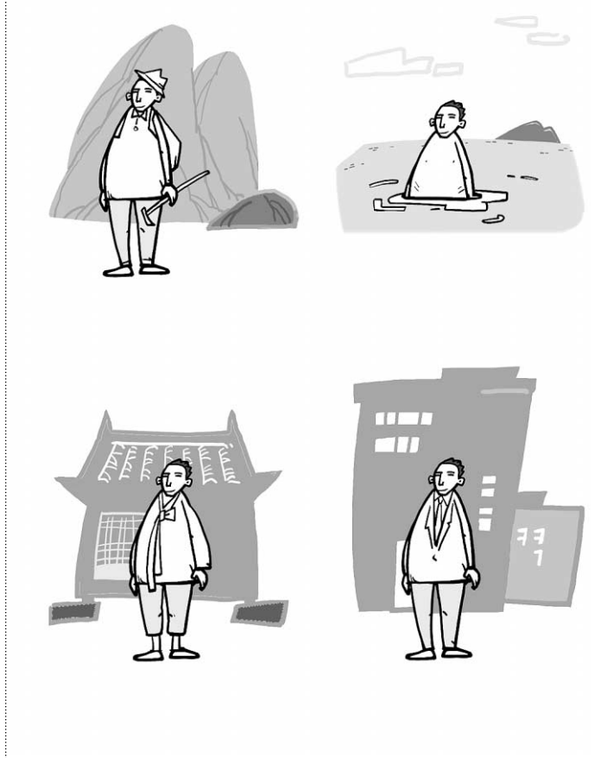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자는데 아무래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람보고 내일 아침에 큰스님을 한번 친견하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어느 병원에 가서 한번 내시경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굳혔었는데요, 집사람이 큰스님을 친견하고 나서 그게 별거 아니고 그냥 염증이니까 마음공부 관(觀)하는 방법만 제게 알려 주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갑자기 약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서 받은 차트, 엑스레이 찍은 거, 그리고 약을 전부 그날로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사전에 약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도 절대 가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약과 병원을 차단을 하게 되니까 제가 불잡을 수 있는 거는 이 한마음 법밖에는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인공을 잡는 공부를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깐요, 한 달 동안 제가 선원을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이 선원이 무(無)의 병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동안을 출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스님께서 '아직 멀었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나름대로 좀 깨닫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새해맞이 촛불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불을 마치고 저녁에 촛불재에 참석을 했었는데, 주지 스님께서 많은 신도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는 거를 보고 거기서 크게 느꼈습니다. 야, 주지 스님은 저 많은 분들을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여태까지 43년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가까운 친구, 아니 가까운 형제들한테도 마음 한번 내 주지 못하고 오직 나 하나밖에 모르는…. 물론 제가 그 동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는 있었습니다.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 인생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쪽으로 굉장히 기울었다는 거를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 놓고, 어떤 울타리를 쳐 놓고 그 속에서 저 자신의 자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밖에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 앞으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눈을 한번 돌려 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소홀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이름 없이 함이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그림 · 최주현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화목을 가져오려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촛불재를 함으로써 제 나름대로 마음의 눈이 약간은 떠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은 이 촛불재만큼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 웃음, 박수) 그 문제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큰스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보면 설법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느긋하게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마음도 생겼고, 또 인내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촛불을 보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의 촛불을 켜들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불과 보이지 않는 불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마음의 촛불은 항상 켜고 다니는데, 내가 어떠한 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을 좀 꺼뜨리고 간다, 이럴 때는 캄캄합니다, 마음의 불을 껐을 때는. 그럴 때 남이 촛불을 켠 걸 보면 바로 또 촛불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켜는 것도 좋고, 안 켜는 것도 안 켜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내 마음의 불만은 절대로 꺼뜨리지 마십시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문제를 제 생활과 결부시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독립을 해 가지고 현재 자개장농 공장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93년도 구정 지나서, 작업을 하려고 재료를 사다가 작업방에다가 신문지에 싸가지고 놔뒀었는데요. 그때 불과 한 15분 사이,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조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내려간 그 사이에 그 물건이 없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공장을 하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심증이 가는, 일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대로 마무리 해 버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식구들과 함께 치악산 가는 길에 있는 소쩍새 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거길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저희가 물건을 쌓아 놓고 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물건을 출고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갔더니, 물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세트가, 딱 장농 한 세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올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 당시에도 심증이 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꼭 이상하게, 물건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증거가 없으니 뭐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또 한 달 전에는, 장농을 만들려면 도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창고에 가니까 제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이 딱 서 있더라고요. 물론 조그맣고 좀 질이 떨어진 물건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제 도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나름대로 과거의 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30면으로 계속

주인공에 맡기면서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가세요

☞29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77년경, 그 당시는 제가 독립하기 전이니까, 남의 집에서 책임자로서 아이들을 한 열 댓 명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부끄러운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자로 한 5년간 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제 일보다 더 열심히 해 오다가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공장에서 재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면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재료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매일 퇴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공장에 있던 거를 저희 집 서랍에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한참을 했는데, 물론 그 사장님도 그전보다 좀 자주 없어진다고 느꼈는지 저에 대해서 조금 추궁하는 눈초리를 보이면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추궁을 하시면서도 그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나와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도안이라든가 이런 게 천상 그집 물건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집 도안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제가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연관시켜 볼 때에 '내가 과거에 그 집에서 남의 물건을 갖고 왔고 도안도 그대로 다 갖고 나왔던 그 결과가 작년에 물건을 분실했던 점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이게 다 내 탓이로구나. 그 사람들 욕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은 물론, 그 당시에도 전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인과응보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사람 심리라는 것이 다 그러하겠죠. 하지만 이 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앞서의 그 사람도 '앞으로 내가 독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상의해 나갔다면 다 도와주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내 탓으로 돌리고 둘이 아니니까, '너도 앞으로 그렇게 인과응보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아라. 주인공, 둘이 아닌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잖아.' 하고 주인공에다 맡기시면서 모든 거를 그렇게 타파해 나가세요.

▲질문자2(남):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래야 그러한 짓을 못하게 됨으로써 걔도 잘되고 또 이쪽도 좋고 그런 거지, 그걸 발설을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다 좋지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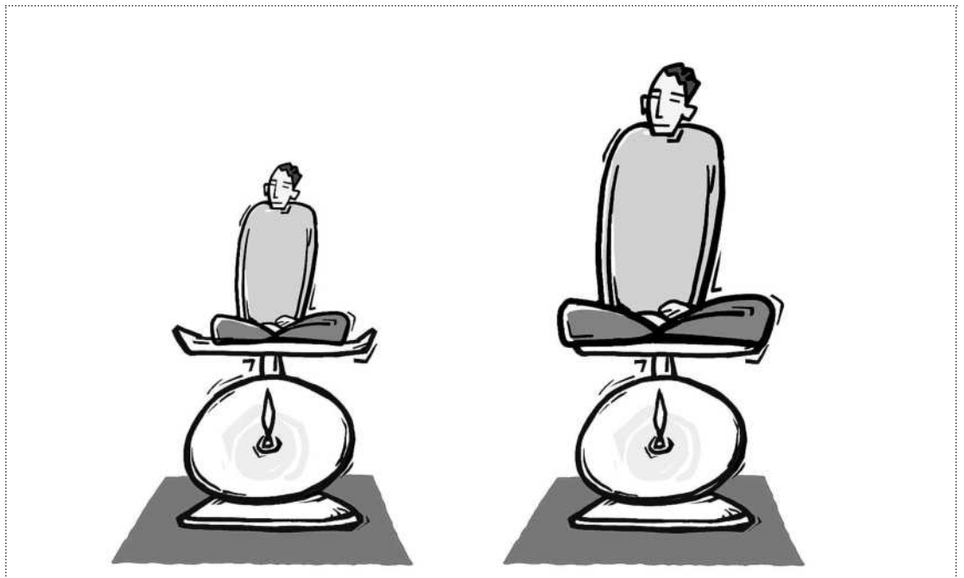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상대를 놓고 빈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질문자2(남):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년 추석 이후로 지금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하청을 여러 군데 공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제 잘못이지마는 물건이 계속 쌓이면서 나가질 않다 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동안 또 선원에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쌓여 가지고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처해 있는 모든 생활, 직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주인공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실험을 하고 점검을 해 가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게 당신 겁니까? 당신 껍데기를 당신이라고 하니깐 그 문제가 껍데기로 남죠.

▲질문자2(남): 예, 예. 맞습니다.

▲큰스님: 당신 속에 당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당신 거지, 지금 당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 나가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 모든 것은 주인한테 맡겨요. '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쌓이는 그 자체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네가 해결할 문제다.' 하고 그 과제를 다 거기다 넘기세요.

▲질문자2(남): 네. 주인공이 한다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사실인 겁요. 하하하….

▲질문자2(남): 그러니까 큰스님께서 한생각 내주셔 가지고 지금 제가….

▲큰스님: 한생각 내든 안 내든, 내나 마나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사회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두 분 질문이 너무 진지해서 큰스님께서 질문에 답문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큰스님: 아니요. 요다음에도 질문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데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고, 넉넉지 못해서 자꾸 피하던 것도 그냥 넘어설 수 있는 패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요다음에도 그냥 질문 토론으로 합시다.

▲사회자: 이번에 저희가 임원 개편이 있었습니다. 새로 된 임원들이 이 자리에서 큰스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임원들, 일어나 주시죠. 조금 앞으로….

▲큰스님: 본래 임원이기 때문에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데요, 뭐. 하하하….

▲사회자: 선 자리에서 큰절로 큰스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도회장: 이번 새로 소임을 받은 저희들 임원회 일동 26명은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주지 스님, 승단의 여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우리 신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한마음 공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도량의 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또 일체 화합 단결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큰스님 앞에 서약드리며 신고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합장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절에서 스님들을 금방 공양주로 내놨다가 금방 선방으로 올렸다가 금방 부목으로 내쫓았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아무 소리도 않고 그렇게 흠겨워서 즐거웁게 일을 하더랍니다. 그 모든 것에 아주,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나무를 패 가지고 와서 불을 때면서 "아이구! 뜨뜻하겠지, 이만큼 때면."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수좌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자체가 가섭같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지위든지, 윗자리라든가 아랫자리를 막론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죠.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돼지가 앓는 소리를 하고 염원을 해도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고쳐 주셨어요. 응해 주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되시고, 때로는 소 속에 들어가서 소가 되시고, 벌레 속에도 들어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부처라는 지위가 없어요. 부처라는 지위가 본래 없는 것이 부처라는 지위거든요. 그래서 지위가 없는 것이 부처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 지위를 어떻게 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거를 했다가 저거를 했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니까 아무 지위도 필요 없어요. 이름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어요. 그랬던 거와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작위 없는, 이름 없는 이름으로써 그대로 진실하게 실천을 하는 데서 우주의 삼라만상 한 도리에서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진실하게 마음도리에서…, 마음도리가 아니라면요, 화목도 깨지고 단결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단합을 하고 화목을 가져오려면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리고 이름 없는 정말 부처가 돼야죠. 이름 없는 사람이 이름 없이, 함이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진실하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있죠. 평등하기 때문에 너, 나가 있고 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아주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물러서요.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웃고들 행하시고요.

※위 법문은 1994년 3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 인 모 집

불광사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통도소리 · 작법무 교육본산

전통의 영남범음범패 통도소리와 통도사 작법무(바라춤 · 나비춤)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 과		내 용	교 수 진	강의일시
경전교리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교수 : 선과법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전통의식	작법무과 (1년과정)	통도바라춤 통도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 청봉스님 (조영선 무용단 단장) 조교 : 무혜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범패학과 (2년과정)	시련 · 삼신이운 헌공 · 49재 및 전통교육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 청봉스님 조교 : 지오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특 전
-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분은 장학생(무료)으로 지원하여 줍니다.
- 본교생이 만약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숙식과 교육에 전액무료임.

◆개강식 일시: 2006년 3월 16일 오후2시
※행자 수시 모집
◆문 의 : ☎055)364-4747,4848
◆장 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통도소리 · 작법무교육본산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과일의 양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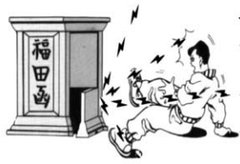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수련회의 기억 (하)

곽기섭 (서울 중랑구 면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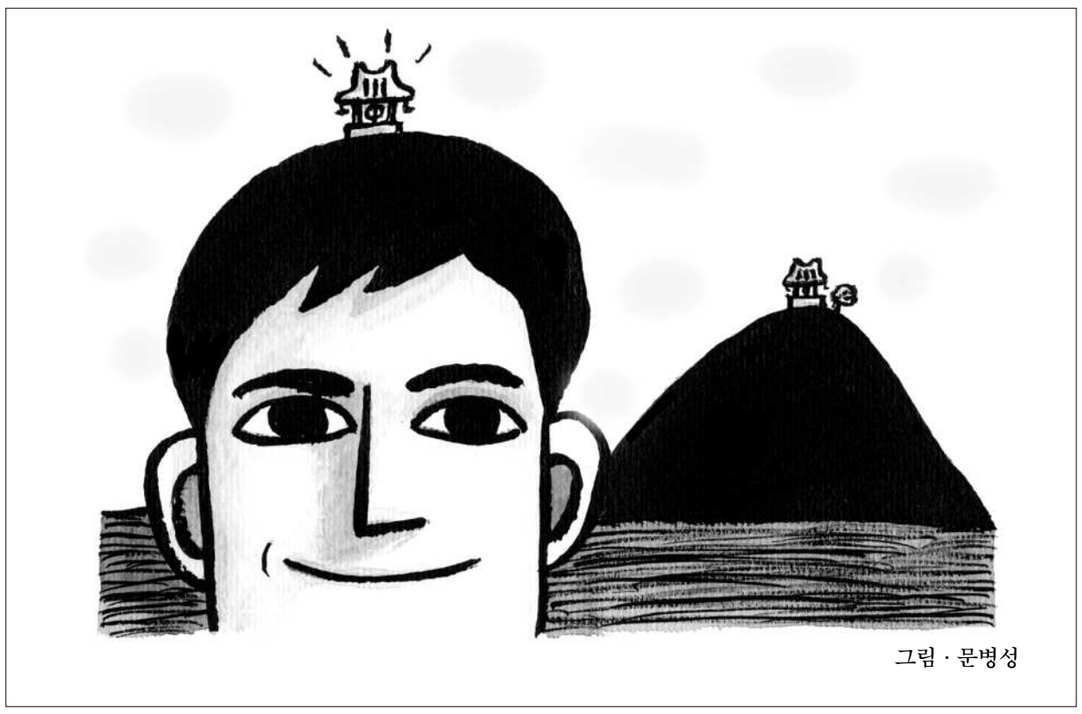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공양 후 법당에 모여 각진 스님으로부터 송광사 사찰안내를 받은 후 개금불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야심경 사경을 선물 받았다. 개금불사는 나 자신이 보고 싶다고 하여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것이다. 수련회에서 인연이 되었기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할 따름이었다.

관음전에서는 또다시 놀라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수련회 참여자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지극한 불심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야심경 사경에 열중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분출이 되고 있었을까? 거의 바닥났을 거라 생각했던 각자의 몸속에서 용솟음치며 올라오던 그 힘을 충분히 느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반야심경 사경과 하나가 되어 종착역에 모두가 도착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한없이 신기한 마음과 이 해도해도 싫증나지 않는 불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어느덧 저녁예불 시간.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당시 완주 송광사 주지이신 도영 스님이 자리하셨다. 저녁 예불 후 바로 참선시간이 있었지만 일정이 잠시 변경되어 관음전에서 도영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날 마침 부산불교대학 보살님, 거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참석하게 된 자리여서 예를 갖췄다. 이 시간, 스님께서는 봉은사청년회에서 참석한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셨다. 칭찬받으려고 했던 수련회 일정이 아니었지만 그 말씀에 힘이 났다. 도영 스님께서는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시자마자 자청해서 법문을 해주셨고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법문 중 "청년 불자가 많아야 불교의 미래가 밝다"라는 말씀과 함께 "서울 한복판에 있어 힘없는 젊은 불자라 생각했는데 수련회 모습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시며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셨다. 포교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사실 예전보다는 생각차이도 많이 생겼겠지만 다른 일상에 더 많이 치우치게 되어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불교대학 보살님과 거사님들도 수련중인 우리가 대견스러운 듯 힘을 더해 주셨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길다면 길었던 시간, 일정은 벌써 마지막 날로 접어들고 있었다. 새벽예불 시간이 되자 비가오고 흐렸던 전날보다 날씨가 맑아져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뒤이어진 수계법회. 다시 한 번 주지

수련회 인연으로 개금불사 친견 기회도
'진성(眞性)' 법명 받고 발심 기회 삼아

도영스님의 크신 한 생각에 감사하여 몸둘 바를 모를 상황이었다. 새벽예불 후 손수 다시 수계법회를 보아주시기 위해 금란가사장삼으로 갈아입으시고 관음전에 나오셨을 때는 수련회를 맞은 청년들에 대한 내면 깊은 사랑의 마음이 보였다. 언제 또 이런 큰 예로써 스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수계를 받고 일일이 이름과 법명을 호명하여 수계증을 나눠 주시는 모습에서 맑고 깨끗하고 따스한 스님의 마음을 절실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수계에서 내가 받은 법명은 '진성(眞性)'. 마음에 꼭 든다. 수계도 여러 번 받았고 법명도 몇 개 있지만 그때그때 새로운 마음이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번에 다시 발심을 하여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법명을 쓰기로 했다.

뒤이어진 각진 스님과의 대화시간. 뽕잎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체험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힘든 건 둘째 치고 좋은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다만 중간 중간 묵언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하기는 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간. 법당을 나와 주지 도영 스님께 인사를 올리러 갔다가 또 한 잔, 차를 대접받고 좋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되어 나오는 길. 서울 올라가는데 늦는다면서 시골 할아버지처럼 일일이 챙겨주시던 도영 스님의 모습, 문밖까지 나오시면서 얼마나 인사를 받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던지 자식이 고향을 찾았다가 떠나는 양 가슴이 뭉클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아쉬움과 다음을 기약하며 전원 이동차량에 탑승했지만 한쪽 마음은 송광사에 남겨두었다.

수련회는 끝이 나고 시간이 지난 지금 회상을 해보았지만 현재 또한 많은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 하지만 그때 맛본 성취욕과 뿌듯함, 자신감, 희망, 또 다른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도전이 이미 시작되어 가슴속에 항시 남아돌고 또 돌고 있어서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불교에서 배운 것과 접목시켜 실천하고 있다. 해도해도 끝이 없다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부딪치고 행하는 쪽이 옳은 것 같다.

무엇이든 안 된다는 생각과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내세우고 그때에 느낀 가슴 뛰는 마음을 항시 간직하고 당황하지 않아도 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좋은 결정을 내렸던 나쁜 결정을 내렸던 하나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니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음을 알았고 이미 결정 된 그때 그 한 가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의 근본과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니 그 안에 해답이 있었다.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건 그렇게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다.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집착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님의 연을 따라 태어났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과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과 법우들 혹은 도반들과 함께 크기가 무한대인 거대한 마음의 그릇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이 마음을 언제든지 꺼내어 닥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매사에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다보면 마음의 여유가 절로 생길 것이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물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나 자신을 믿고 불교를 접해야 한다. 체험으로 느낀 나의 그 마음자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쪽을 돕고 있다. 그리고 둘이 아닌 하나이다. 마음은 죄가 없다. '참나'이자 주인공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돕고 있는 쪽은 나쁜 것, 좋은 것을 구분 짓지 않는다. 아니 구분 짓는 것조차 무엇인지도 모른다. 결정된 쪽에 따라와서 힘이 되어줄 뿐이다. 그러니 행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집착하지 말며 바른 결정에는 망설임이 없고, 또한 결과에는 후회가 없어야 한다. 정말 수행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어느 정도 쌓이다보면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발심하여 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음도 느낄 수 있다. 나 자신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수행의 연속이지만 그렇게 그 도리를 알 수 있게 내안에 있는 그 녀석은 꼭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갈 것임이 분명하다.

끝으로 모든 것에 고맙고 감사해하며 향내음 가득한 수련회의 기억을 기억 속에 잘 싸둔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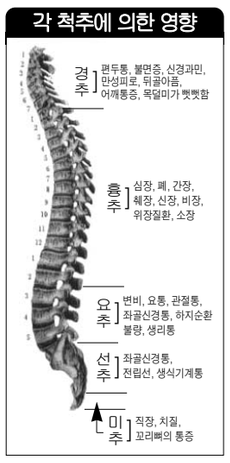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 목탁치는법, 상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등 예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 각단예불 불공 : 상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음시식 구병시식, 장의편,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7~9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 등게, 상귀의,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태징타법,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외..... 범음 · 범패
2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통범음) 시련재, 대령재, 관욕재 중호게 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및 시식 상보통청, 지장청, 시식회향	법주, 바라지 관욕바라, 화의재 바라 향수나열(범음) 사다라니 바라 운심게, 가지게 (범음) 화청, 촉원화청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 법고 공덕게 (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수시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8.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고(古)건물 수 리 전 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공경으로 사랑이룬 화엄 수호신 '선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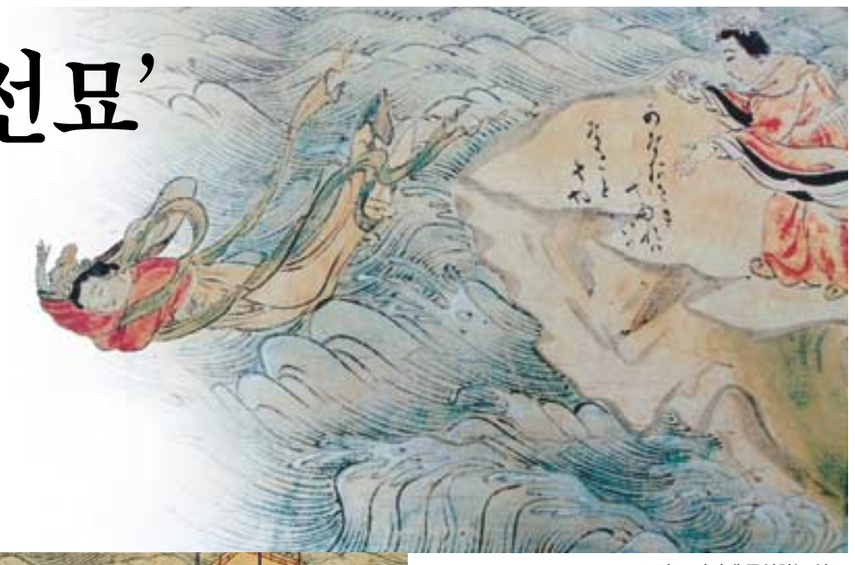


그림2 : 바다에 투신하는 선묘



그림1 : 자신의 설레임을 고백하는 선묘. 의상은 매우 곤란해 하는 눈치다.

불화 속의 명장면 (5)

日 교토 고산사 소장 '화엄종조사회전-의상회'

"어, 어라? 아아– 경솔하여라. 저게 무슨 짓인가"
〈의상도: 제3권 제1단의 화기〉

정말 아차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어져만 가는 짙은 안개 속의 배를 바라만보고 섰던 선묘가 천길 검푸른 바다 속으로 몸을 날린 건. 예기치 않았던 돌발상황에 하녀들이 허둥지둥 뒤쫓아 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는 이미 그녀를 집어삼킨 듯.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고 번득이는 섬광이 비치더니 선묘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해룡으로 변한 그녀는, 사모하는 의상법사가 탄 배를 높은 파도와 거친 폭풍으로부터 안전히 지키며 무사히 신라의 해안까지 닿게 합니다(그림2, 그림3).

일본 교토의 명승지 고산사에는 '화엄종조사회전(일명 화엄연기華嚴緣起)'이라는 긴 두루마리 그림(에마키繪卷)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찰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자 일본의 국보입니다. 이 에마키에는 신라시대 두 명승 의상과 원효의 전기가 그림 설명(詞書)과 더불어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선묘가 바다에 투신, 용으로 변해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의상을 수호하는 이 장면은, 현존하는 총 4권의 '의상도' 전기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묘에쇼닌(明惠上人, 1173~1232년)은, 일본 나라시대에 도다이지(동대사東大寺)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화엄종을 계승하여, 카마쿠라시대 전기에 다시 한번 교토 고산사를 근거지로 화엄종을 부흥시켰던 명승입니다. 그는 신라의 원효와 의상을 화엄종의 조사로서 숭앙하였습니다. 학승으로서의 교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품과 덕행마저 깊이 사모한 나머지, 이 두 조사의 행적을 자신의 삶의 표상으로 삼고 따랐습니다. '원효도' 2권을 포함해 이 화엄연기는 총 6권인데, 그 각 권의 머리마다 "이것은 화엄종 조사에 대한 그림이다. 부정한 곳에 두고 보아서는 안 되며, 잡스런 그림 속에 섞이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엄한 경계 문구를 써넣어 그 경건한 관리에 있어 소홀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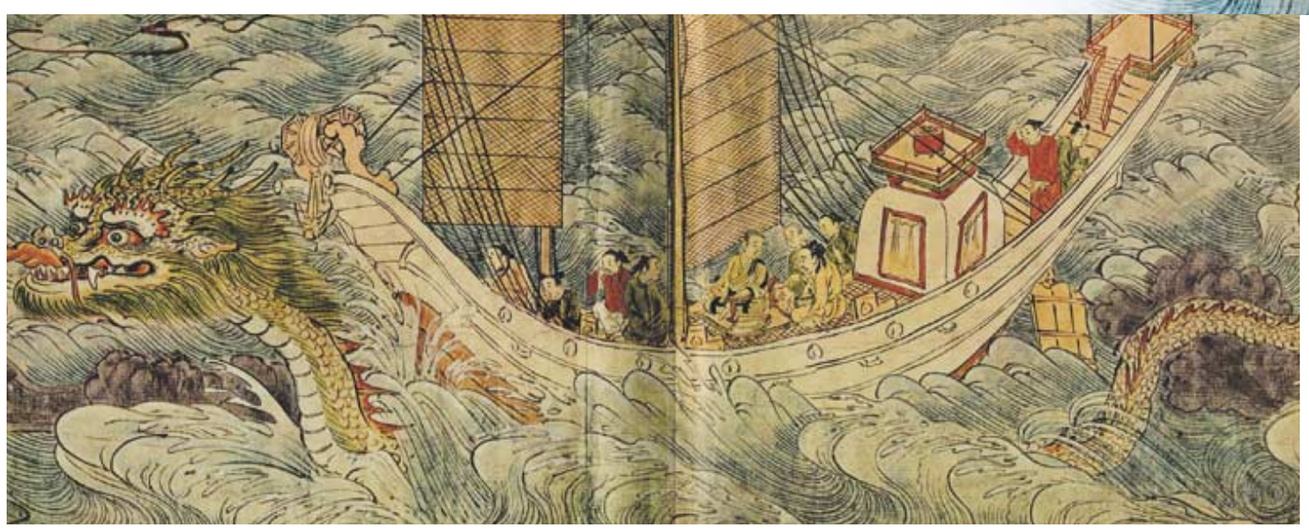


그림3 : 용으로 변한 선묘가 의상이 탄 배를 수호한다

日 스님 묘에쇼닌이 의상 · 원효 행적 삶의 표상 삼고자 제작
원효도 포함 총 6권…각권 머리마다 경건히 관리할 것 당부
의상의 대업 돕고자 용으로 변한 선묘의 신심 애절하게 표현

화엄연기 절정에 해당되는 '바위로 변한 장면' 유실돼 안타까워

묘에쇼닌은 조금은 기인스러웠던 그의 행적으로 유명하여 현재까지도 대중에게 매우 친근한 승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세부터 60세까지의 자신의 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기록한 '몽기(夢記, 꿈의 일기)'. 이 꿈의 일기에는, 어느 날 현란한 꿈에서 깨어나 돌이켜보니 "뱀이기도 하고 돌이기도 한 것, 생각해보니 선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묘의 희생정신이 바로 화엄을 지키고 부흥시킨 기적'이라고 하고, 선묘사를 지어 화엄도량 고산사를 수호하는 권청신으로 삼습니다. 당시 일본은 막부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계급간의 마찰과 권력 쟁투가 일어납니다. 이 죠큐의 난(1221년)으로, 교토를 중심으로 한 귀족 무장들이 다수 희생되게 되는데, 묘에가 지은 선묘사는 남편을 잃은 수많은 여인들의 위안처가 됩니다. '비극적 운명은 오히려 기적을 낳는 힘'이라는 선묘의 교훈은 당시 여인들에게 어필하여 그 힘겨운 난세를 견디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 '의상도'의 설화는 '송고승전(권4)'에 수록된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에 의거한 것입니다. 당에 막 도착한 수려한 모습의 의상법사를 보고, 마을의 단아하기로 이름 높은 선묘라는 규수는 곧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그림1). 그러나 '나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며 신명은 그 다음으로 했다'라는 의상의 강직한 말을 듣고 애심은 신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묘는 의상이 중생을 이롭게 하기위해 결심한 뜻을 공경하며 돕기로 서원을 세웁니다.

그 후, 의상은 지상대사의 거처에서 일승법계의 경지를 성취합니다. 장면은 바뀌어 선묘가 오매불망 의상을 그리며 정성들여 법의와 발우의 법구 상자를 마련하는 장면. 화기에는 의상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이라도 만나볼 것을 소망하여 법구 상자를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의상이 당에 머문 기간이 십 년이므로 말하자면 그녀는 십 년을 기다렸다는 셈이 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짙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아 간발의 차이로 의상이 탄 배는 먼저 떠나고 맙니다.



그림4 : 의상의 부석사 대설법 장면

'대사께서 받지 않으시면 다시 누가 받으리오'라며 바다에 던진 법구 상자가 파도를 가르고 의상의 품에 가 닿는 것을 보고, 선묘는 '저는 내세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몸으로 법사의 대원을 돕는 몸이 되게 하소서'라며 바다에 뛰어들어 용으로 변하여 배를 수호합니다. 그녀는 참으로 솔직하면서도 대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상도'의 권 말미 화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재가(在家)의 애심(愛心)은 용맹한 신심(信心)을 일으켰다. 공경에 의하여 사랑을 이루었다."

묘에쇼닌 자신도 이 '재가의 애심'을 심히 경계했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반고호만 자신의 귀를 잘랐던 것이 아닙니다. 묘에쇼닌은 자신이 여성 신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교만심을 부추기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불모상 앞에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다음날 그 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화엄경〉을 큰 소리로 독송하니, 그 앞에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의 결벽증에 가까운 이런 독한 수행 결과, 그는 결국 '지혜의 신'을 보았던 것일까요.

의상의 무사 귀국을 도운 선묘는 이번에는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거대한 너럭바위로 변해 의상이 그 화엄의 뜻을 펼 장소를 수호합니다. 일명 부석(浮石, 하늘에 뜬 돌)으로 변해 소승 잡학의 거처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니,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물러가고 그 자리에 화엄을 융성시킬 사찰을 세울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사찰 이름은 '부석사'이고, 의상법사를 '부석대사'로 일컫기도 한다지요. 거대한 바윗돌로 변하는 장면과 용으로 변신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은 화엄연기 '의상도'의 두 절정인데, 안타깝게도 바위로 변한 장면은 유실되고 없습니다. 묘에쇼닌은 이 부석사를 흠모하여 그 곳과 비슷한 입지조건을 찾아 암자를 짓고 참선 수행,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무불스님 진품

금니 달마 금니 반야심경 8폭 병풍
선묵 한지 달마도 선묵 반야심경 8폭 병풍

새집입택, 신장개업, 사업성취, 수맥차단, 건강학업 등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굳은 원력의 심신으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화두로 무한존재의 위대한 자기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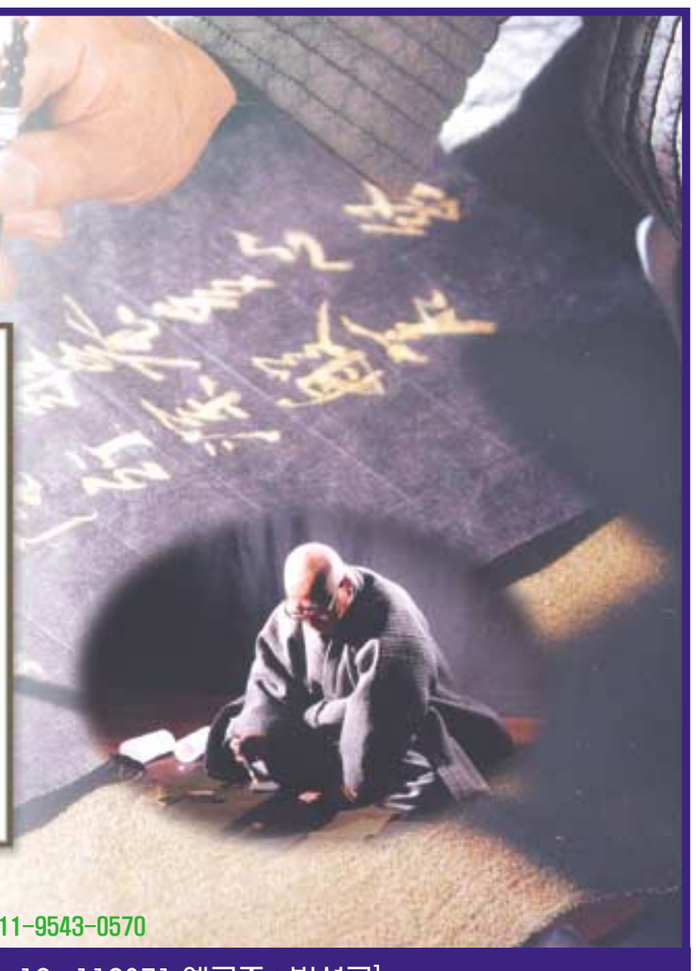
●금니 달마(금가루) 138,000원(3개월카드무이자)
●37×50cm



●금니 반야심경 8폭병풍 999,000원(6개월카드무이자) ●360×137cm
●병풍구입시 금니 달마 1점 선물



●선묵 반야심경8폭 병풍 8장



●선묵 한지 달마도
●30×130cm

금니 달마 금니 반야심경 구입처 : 080-499-7777
선묵 한지 달마 구입처 : 055)573-0289 / 011-9543-0570

대한불교조계종 우담사 / 경남 의령군 칠곡면 도산리 876번지 [입금계좌 : 808-12-119371 예금주 : 박석구]